보이차
www.hongdawon.com
紅茶園 02)744-3311

현대불교

우란분절(백중) 등이 새롭게 나옵니다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0년 (서기 2006년) 7월 5일(음력 6월 10일) 수요일 (주간) 제 585 호

어린이 포교 전담 부서 생기나?

지관 스님 의지 피력…예산 수립 의무화도



"올해 예산 작업을 거쳐 중앙종회의 동의를 구해 내년 1월 조직개편때 포교원 안에 어린이포교 전담 부서를 설치할 생각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사진)이 6월 28일 불교언론문화상 대표를 맡은 수불 스님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어린이포교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이례적으로 어린이포교부(가칭) 설치에 대한 스님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 관심을 끌었다.

그동안 말로 그쳤던 어린이 포교 활성화를 위해 종단 차원에서 적극 나설 계획이라는 것이다. 어린이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불교계 중진스님들 발언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지만, 이날 지관 스님의 발언은 자리를 같이한 이들에게 단호함을 넘어 비장감마저 들었다.

지관 스님은 "미래의 포교는 어린이를 통한 씨앗포교부터 나서야 한다"며 "어린이포교를 바탕으로 중고생, 청소년, 군인포교에 나서야 불교의 미래가 열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종회 동의 구해 내년부터…"
청소년 불자 감소 추세속
밝은 미래 위한 '중대한 결정'

통계청이 지난 6월 1일 발표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 10년간 10代 종교인구의 비율이 1.6% 증가했는데 비해 10대 불자는 무려 16.5%나 감소했다. 참담한 현실인데도 불교계는 속수무책이었다. 불자 어린이 청소년의 감소는 '불교의 밝은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위기상황이라는 절박한 인식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지관 스님은 종단차원의 제도적 대안마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앞으로 주지 임명시 무조건 어린이포교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사찰의 일년 예산 가운데 의무적으로 2% 이상을 어린이포교에 쏟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어린이 포교에 적극 나서지 않는 주지는 재임에도 불이익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관 스님의 말처럼 전담부서가 생길 경우, 어린이포교부는 어린이 포교관련 각종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하고, 전국 사찰의 어린이 법회를 조직화 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총무원장스님의 이런 의지표명을 전해들은 (사) 동련 총재 혜총 스님은 "그동안 어린이 포교에 대한 종단의 인식과 지원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 안타까웠다"며 "종단 예산 확대를 통해 어린이포교 부서 설치뿐 아니라 우수한 비구니 스님들을 어린이 포교에 전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계종의 어린이부 신설 추진은 2003년 비구니 문화부장 임명으로 이웃종교인들의 부러움과 일반인들의 주목 대상이 됐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조계종이 그동안 취약했던 어린이 포교를 위해 얼마나 과감한 투자에 나설지 아직은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의 수장인 지관 스님의, 어린이 포교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하루빨리 현실화되기를 불자들도 대환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1994년 백양사에서 도난당했던 '아미타 극락회상도'(왼쪽사진의 후불탱화 · 백양사 제공)가 최근 한국불교미술박물관에 전시(오른쪽 · 사진=고영배 기자)돼 있어 도난문화재를 반환해 달라는 백양사측과 '선의 취득'이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는 박물관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긋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종법 손질해 포교역량 강화

포교원 '지방종정법' 등 개정 추진…각종 인사에 '실적' 반영

조계종 포교원이 교구본사 부주지가 포교국장을 겸임하도록 하는 등 포교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종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7월 4일 열린 교구본사 포교국장 회의에서 논의된 종법령안은 '지방종정법' '승려법' '교육법' '승가고시법' '본말사주지인사규정' 등.

이 가운데 '지방종정법' 개정안 주요 뼈대는 △종무회의 심의사항 중 신도관련 사항 추가(제13조) △교구본사 부주지 포교국장 겸임(제14조) △교구본사 포교사업 구체화(제16조) △말사 과의 구체적 명기(제19조) 등.

특히 제16조에는 교구본사 관할 지역 신도 및 포교단체 현황 관리와 지원, 본사 및 말사스님들로 구성된 상임지도법사단 구성 후 지역 내 군법당 신도단체 법회 지도법사 활동, 포교예산 편성 및 집행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승려법' 개정에서는 신도관리에 공로가 지대한 자에 대해 '포상'하도록 하는 '당근'과, 사찰주지로서 사찰운영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지 않는 자와 신도 입교, 교육, 등록, 조직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않는 자에 대해 '징계'하도록 하는 '채찍'을 고루 사용하는 것에 주목할 만 하다.

'교육법' 개정은 승가의무교육과정인 기본교육과정(강원)에 신도 및 포교 문제를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교육과정이 없기 때문에, 제66조(교육 목표)에 '포교방법 및 신도 육성과 조직에 관한 교육'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승가고시법' 개정은 △종무기관에서 임명한 종무직, 상근직 소임자 △종단이나 종립학교에서 설립하거나 지정한 법인격 단체의 임명직 소임자 △종단에서 설립 · 지정하거나 운영하는 시설 ·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복지관, 수련관, 신도교육기관 등)에서 상근하는 소임자 △각급 신도단체를 지도하는 소임자 중 승납 10년 이상인 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상임포교사'라는 자격을 부여해 3급 승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해외포교 활성화를 위해 종단 소속 해외사찰에서 포교활동을 하는 소임자에게도 해당된다.

'본말사주지인사규정' 개정안은 제11조(결격 사유)에 '사찰운영위원회법 제3조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와 '포교원장이 정하는 신도등록, 신도기본교육, 신도회 조직 기준에 미달한 자'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포교부장 일관 스님은 "책상에 앉아 포교의 중요성만 강조하는 '탁상행정'으로는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한다"며 "개정 종법령을 상정시켜 반드시 입법화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남동우 기자

'한국-티베트 풀뿌리 운동' 세계침술봉사협회 계승

7월 12일 本社서 설명회

티베트 스님과 사찰을 후원하고 양국의 문화교류를 위해 본사가 지난해 7월부터 벌여 온 '한국-티베트 풀뿌리 운동'을 '세계침술봉사협회(World Acupuncture Service Association, 이하 '와사' · 회장 이홍재)'가 이어받아 펼치게 된다.

'와사'는 풀뿌리 운동과 관련한 제반 계획을 수립하고, 7월 12일 오후 2시 본사 법당에서 회원과 불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신문사보다는 다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불교단체가 운동을 벌여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현대불교'는 국내 전국 각지는 물론 인도 네팔 등에서 침술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와사'가 참여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풀뿌리 운동'을 인계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16면 한명우 기자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24~25면
월주 스님 금산사 회주



시방세계 9면
예천 불교 · 천주교인 큰잔치



도반의 향기 17면
과천 마애 승상 지킴이들
'일연' 생애연구 미진 4면
등록문화재 외면현주소 13면

軍 휴게실 · 화장실에도 '풍경소리' 울린다

군종교구 · 풍경소리 이달부터 군부대에 '포교게시판'

지하철 역사에 붙어 있는 포스터 형식의 포교 게시판이 군장병들의 막사에서도 볼 수 있게 돼 군포교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설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회장 혜자 · 이하 풍경소리)'는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주지 일면)와 공동으로 7월부터 지하철 역사에 붙어 있는 포교게시판을 장병들이 병영 생활하는 휴게실과 화장실 등에 부착해 부처님 말씀을 전한다.

이를 위해 풍경소리는 포스터 형식의 게시판은 물론 5×7 사이즈의 엽서 형식의 게시판, 16절 사이즈 게시판 등 세 종류를 제작해 군부대에 보낼 예정이다. 해당 부대 지도 군법사는 부대 현실에 맞게 화장실에는 5×7 사이즈, 휴게실 등에는 포스터 또는 16절 사이즈 게시판을 붙여 장병들이 편하게 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풍경소리는 그동안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등의 지하철 역사 2000곳에 포교게시판을 걸고 있고 군법당 50여곳에도 엽서를 보내왔다.

이용성 사무총장은 "장병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용변을 볼 때 부담없이 읽을 수 있는 포교 게시판을 군부대내 곳곳에 붙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와 현대불교신문 공동 캠페인
'2006 군포교 합시다'
찬불가 반주기 군법당에 보내기
우리의 불자 장병들이 활력 있고, 보람찬 병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합시다!!!
군대에서 불교를 처음 접하는 장병들이 "찬불가-하나로반주기"로
찬불가를 배워 신행생활의 기쁨과 성불의 연을 맺게 합시다.

언제 어디서나 "찬불가-하나로반주기"면 OK!
세련되고 깔끔한 디자인과 이동이 간편합니다.
법회의 설법용 앰프로 사용이 가능하며,
군부대 위문 공연과 경로위안잔치 등
각종 사찰행사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교도 "찬불가-하나로반주기"면 OK!
어린이도 찬불가 동요와 법회 의식곡 등을 쉽게
배울 수 있고 신도님들도 찬불가 가요를 송년회, 친목회,
지역법회 등의 다양한 포교활동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야외행사에서도 "찬불가-하나로반주기"면 OK!
간편한 이동과 고출력의 웅장한 사운드로 군법당이나
사찰의 야외 법회나 행사용으로 제격입니다.

현대불교와 풍경소리가 함께하는 "찬불가 -하나로반주기" 보급 캠페인에 참여합시다.
풍경소리에서 제작한 법회 의식곡 / 찬불가 가요 / 찬불가 동요 120여곡 추가 내장

찬불가 하나로반주기 구입 및 문의 02)737-0695(직), 2004-8219(현대불교 영업1팀)

KY Kumyoung Life is Entertainment
세계최초 육성 코러스 기술개발하여 노래방기기에 도입
고객맞춤형 제품출시로 노래방문화 정착 일등공신
고객만족도 · 판매율 선두주자 '금영'

■ 제품사양
• 출력 : 100W+100W , 소비전력 : 350W
• 입력전압 : AC 220V 전용 50/60Hz
• 사이즈 : 64.5(가로) × 67(세로) × 150(높이)Cm
※ 모니터포함
• 모니터 21인치(완전 평면)
마이크 2개(5m), 리모콘 포함
• 일반곡 23,000곡 이상 내장 ※ 찬불가 120여곡 내장

도난 성보 반환의 걸림돌 '선의취득'

"장물인지 몰랐다" … 만병 통치약

도난 문화재 거래 근거로 악용…법 개정돼야
유통 촉진 등 사회적 이유 문화재에 적용은 무리

최근 한 사립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는 '아미타극락회상도'가 12년전 도난당했던 장성 백양사의 후불탱화로 드러나면서 문화재에 대한 선의 취득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백양사 성보박물관(관장 지선)은 6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불교미술박물관(관장 권대성)이 소유하고 있는 '아미타극락회상도'가 1994년 백양사에서 도난된 것이므로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불교미술박물관은 구입 당시 도난품인지 알지 못했다며 선의취득을 주장하고 있다.

선의취득이란 민법 제249조의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규정으로 보호되는 제도다. 원소유자의 소유권 보호보다는 거래의 원활한 유통이 사회적으로 이익이 크다는 정책적 판단에 의해 만들어졌다.

선의의 취득자가 무권리자인 전주(前主)의 불법 점유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매매, 증여 등의 유효한 거래 행위를 통해 구입했다면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문화재의 경우도 구입 당사자가 장물인지 모르고 샀다고 주장하면 사실상 선의취득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법의 맹점 때문에 문화재의 도난과 도난 문화재의 거래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문화재는 당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의식이 결집된 역사적 산물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

특히 성보 문화재는 조성 목적이 신앙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만큼 순수한 매매품으로 거래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실제로 가평 조계종 현등사가 삼성문화재단을 상대로 3층석탑 사리함 일체를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도 선의 취득 문제가 쟁점사항으로 부각되었다. 삼성문화재단은 故 이병철 회장이 정당한 방법으로 선의취득했기에 돌려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다른 재화와 달리 유통을 촉진하거나 거래를 원활히 할 필요성이 없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선의취득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고 있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화재청이 2004년 12월 주최한 '문화재 도난 도굴 방지 대책 세미나'에서 주제발제를 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신의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경영국장은 "우라나라 동산문화재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매장문화재의 90% 이상이 도굴되었다는 주장이 있을 정도로 문화재의 도난, 절도가 심각한 상태"라며 "문화재에 한해서 선의취득제도를 제한함으로써 불법적인 문화재 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도난을 줄이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문화관광위 노웅래 열린우리당 의원도 6월 28일 문화재 거래 허가제, 선의취득 배제 등의 내용을 담은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 의원은 "시장경재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를 개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결과적으로 문화재의 경우는 금전적 가치로만 여기게 되고 도난, 도굴, 불법거래가 성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문화재를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제정된 문화재 보호법에서조차 민법의 선의취득 제도에 막혀 오히려 문화재의 거래를 장려하고 있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특히 비지정 문화재의 도난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하루 속히 법 개정이 이루어져 문화재가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닌 우리나라의 민족 문화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성숙한 문화 의식과 문화재의 보존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절실하다.

김두식 기자



국회의원 불자모임 정각회가 조계사 대웅전에서 정기총회 및 조찬법회를 봉행하는 모습.

정각회 이해봉 회장 선출…조계사서 법회

국회 정각회는 6월 30일 대웅전에서 '정기총회 및 조찬법회'를 열고 이해봉 의원(한나라당)을 만장일치로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 회장 인터뷰 14면

이날 총회에서는 또 열린우리당 강창일,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부회장으로 선출됐으며, 간사장에는 열린우리당 이영호, 간사에는 열린우리당 최재성, 한나라당 정문헌, 감사에는 열린우리당 이은영,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이 각각 뽑혔다.

글·사진=유철주 기자

진각종 총무부장에 회성 정사



진각종(통리원장 회정)는 6월 25일 통리원 총무부장에 회성(사진) 정사를 임명하는 등 5개 부처 부·국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재무부장에는 지정(명선심인당 주교) 정사, 문화사회부장에는 호당(실상심인당 주교) 정사, 진각대 교무처장에는 경일(최정심인당 주교) 정사가 각각 내정됐으며, 포교국장에는 정효(정지심인당 주교) 정사, 기획국장에 원암(관음심인당 주교) 정사가 임명됐다.

태고종 규정부장에 법경 스님

태고종 총무원(원장 운산)도 호법부장을 규정부장으로 개칭하고 6월 25일 신임 규정부장에 법경스님(연흥사 주지)을 임명했다. 김주일 기자

동국대 총장 '총추위'서 추천

동국대 차기 총장 후보자는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에서 추천된 3명 중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울·경주캠퍼스 교수회와 노조가 "총추위 절대 반대와 직선제 고수"를 주장해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회(이사장 영배)는 6월 28일 동국대 본관에서 제220차 이사회를 열고 '총추위 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안에 따르면 총장 후보자는 교원 대표위원 21명, 직원 대표위원 7명, 조계종 대표위원 4명, 동문 대표위원 4명, 사회인사 대표위원 2명, 학부학생 대표위원 3명, 대학원생 대표위원 1명 등 총 42명의 총추위에서 추천된다.

그러나 총추위안에 대해 서울·경주캠퍼스 교수회와 노조는 27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법인이 총추위를 주도하겠다는 것은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화라는 대세를 거스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직선제 총장선출 방식을 개선해 정책선거와 공명선거를 이룸으로써 대학발전의 활력을 도모하자는 우리 동국구성원의 열망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사회에서는 입적한 성오스님과 류주형 전 총동창회장을 이사에서 해임했다. 류주형 이사 후임으로는 김재기 동국포럼 후원회장이 선임됐다. 김재기 신임 이사는 류주형 회장 잔여임기인 2007년 11월까지 이사직을 수행하게 된다.

남동우 기자

국내 체류 외국인 스님 87명

2년동안 19명 증가, 화계사에 28명 최다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스님은 몇 명이나 될까?'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가 6월 23일 집계한 조사보고서에는 현재 87명의 외국인 스님이 국내 사찰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조사때 68명 보다 19명이 증가한 것. 외국인스님들은 승가교육, 선 수행, 외국인 노동자 포교 등을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출신국가별로는 스리랑카 스님이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방글라데시 11명, 미국과 네팔 각 10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스라엘 4명, 폴란드 4명, 타이완 4명, 러시아 3명, 인도 3명, 헝가리·캐나다·중국·리투아니아·말레이시아·캄보디아 각 2명 등 총 28개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주사찰별로는 외국인 수행자들이 정진하는 국제선원이 있는 서울 화계사가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화 연등국제불교회관이 11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남양주 보광사 9명, 서울 홍원사 5명, 부천 석왕사와 서울 승가사가 각 4명 순이었다.

조계종 사회부장 지원 스님은 "외국인스님들의 체류중 애로점 등을 추가로 파악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봉영기자

중고생 대상 간화선 프로그램 생긴다

포교원, 여름방학이용 동국대서 강좌 후 '최종안'

조계종 포교원(원장 청화)이 준비중인 대학생 및 중고생 대상 '간화선 수행프로그램'의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

올해 초 1차 교안을 완성해 관계자 워크숍을 거쳐 막바지 보완 및 수정작업을 벌이고 있는 대학생 간화선 프로그램은 지난해 말 선보인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과 전체적인 목차 등 기본골격은 같다. 특히 이들이 쉽게 간화선을 이해할 있도록 대학생들이 겪고 있는 취업이나 이성 문제 등과 관련된 예화(例話)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포교원은 현재 마련돼 있는 교안 내용을 중심으로 이번 여름방학 기간동안 동국대 계절학기 강좌를 통해 선보인 뒤 부족한 부분을 보완키로 하고 동국대 측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포교원은 올해 안으로 최종안을 확정해 전국 대학에서 정기 커리큘럼으로 간화선 수행프로그램을 채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중고생 간화선 프로그램은 대학생 프로그램보다도 간화선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다양한 체험과 예화를 통해 인성과 집중력을 함양하는데도 초점을 두고 있다. 관련기사 18면

포교원은 대학생과 중고생 프로그램도 일반인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주 1회 3시간 강의 기준으로 10~12주 동안 진행되도록 구성된다고 밝히고, 1박2일 또는 2박3일의 집중수행 프로그램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명우 기자

"제기된 의혹 사실과 달라"
조계종, 문화사업단 조사결과

조계종 총무원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하 사업단)'에 대한 최근의 의혹제기와 관련해 6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와 입장을 발표했다.

특별조사단은 6월 23일부터 4일간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 예산 배정의 공정성 및 뇌물 수수의혹 △산업지원센터 설계업체 변경 및 업체 선정과정 의혹 △불용예산 전용 △인사의 공정성 △종무원 출장 시 대가성 금품 수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호법국장 경우 스님은 "제기된 의혹이 대부분 사실관계와 무관하거나 왜곡돼 있고 당사자와 종단에 어떠한 취재 확인 없이 추측과 소문, 일방적 제보에 의해 작성됐다"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명예를 손상하고 훼손한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지원센터 설계업체 변경 및 업체 선정과정 의혹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다. 설계공모에 당선된 고건축 설계전문업체 '삼풍' 대신, 현대건축 설계전문업체 '이로재'로 주 계약업체가 변경된 과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계약금만 7억원인 설계용역을 발주하면서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을 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향후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용수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편집국장 : 위영란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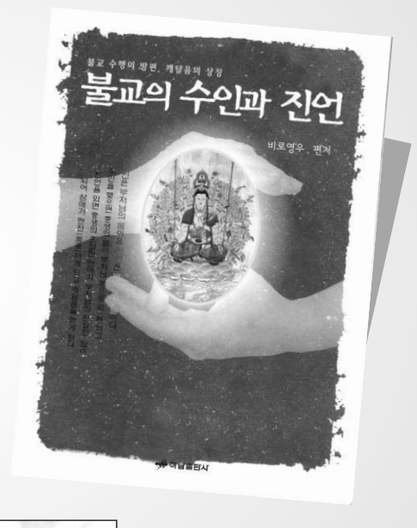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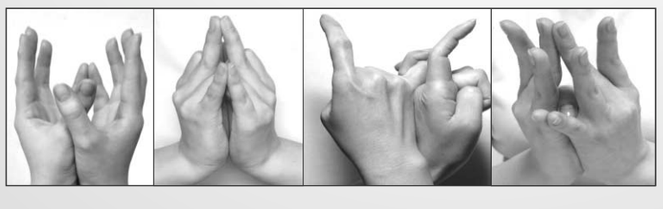
수인은 부처님의 몸이요
진언은 부처님의 말이다

밀교에 밀|密|은 비밀스러움을 뜻하는데
중생의 지혜로 알 수 없는 부처님만이 아시는
비밀한 법이라는 뜻에 기인한다.

이|밀|密|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신밀|身密|, 구밀|口密|, 의밀|意密|이다. 이를 함께 삼밀|三密|이라 하는데, 삼밀을 구유|具有|하고 수행하면 실지|悉地|를 성취할 수 있고 큰 깨달음에 들어 삼명육통|三明六通|에 자재한 불보살이 된다.

삼밀 가운데 첫 번째인 신밀을 다른 말로 수인|手印|이라 하고 범어로는 무드라|mudra|이다. 두 번째는 구밀이라 하고 다른 말로 진언|眞言| 또는 다라니|darani|라고 부르며, 범어로는 만트라|mhantra|라고 한다. 세 번째인 의밀|意密|은 참된 성품|性品|으로부터 나오는 삼매|三昧|의 형상을 뜻하는데 일반적으로 불보살님의 중생교화방편의 삼매를 상념으로 지어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 책에서 다루고 소개하려는 것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인 신밀과 구밀인 수인과 진언이다.





비로영우 스님 편저 / 사륙배판 / 382쪽 / 값20,000원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98-16 남도빌딩 302호 TEL. (02)720-3211 FAX. (02)720-0312 http://www.hnp.co.kr 하남출판사

제2회 민족사 출판원고 공모

불교전문 출판사 민족사에서는 새로운 원고를 발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참신한 원고를 공모합니다.

▶ 상금 ◉ 대상당선작 : 1편 1,000만원 ◉ 당선작 : 1편 500만원

공모요강

▶ 공모분야: 불교입문, 교리해설, 수행, 명상, 역사, 문화, 수필, 만화, 청소년, 아동 등 특정 분야에 관계없이 대중적 호응도가 높은 원고로 국내에서 출판된 적이 없는 순수 창작물. (단 시, 소설, 학술서는 제외)
▶ 응모자격: 누구나 응모 가능함.
▶ 서술방법: 새로운 내용의 글로써 참신하고 진지하며 대중성이 있어야 함. 주제와 소재, 서술형식은 자유.
▶ 원고의 상태: 100% 완성된 원고.

응모방법

▶ 원고제출: 한글파일(hwp)로 작성하여 이메일 및 우편으로 접수. 이메일로 보낼 경우는 출력원고 1부를 별도로 제출요망. 기타 문의 사항은 이메일로 문의 요망.
▶ 원고매수: 200쟈 원고지 700매 이상(단 컷, 사진, 그림이 있는 경우는 매수와 상관없이 단행본 1권 분량이 되어야 함)
▶ 기 타: 원고 앞장에 책제목(가제), 원고개요(원고매수 5~10매), 저자소개(이름, 나이, 성별, 전공, 저 역서 등 구체적 소개), 응모분야를 별도로 명기할 것. 저자소개는 필명으로도 가능함.(단 민족사에서 본명을 의뢰할 경우 밝혀야 함)
▶ 원고마감: 2006년 10월 30일까지
▶ 보내는곳: 110-858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810호 도서출판 민족사 ☎ (02)732-2404
홈페이지: minjoksa.org E-mail: minjoksa@chol.com
▶ 당선발표: 2006년 11월 넷째주 민족사 홈페이지에 발표 및 개별 연락.
▶ 참 고
◉ 당선작은 민족사에서 출판을 원칙으로 함. 출판할 경우 상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인세를 지급함.
◉ 표절 또는 출판 후 저작권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선 취소와 함께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응모한 원고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민족사에서는 참신하고 대중적인 필자 발굴을 위해 연 1회 지속적으로 원고를 공모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동국대 기부금 유치 전화모금 서포터즈 가동

동국대(총장 홍기삼)가 동문들의 기부금 유치를 위해 대규모 전화모금 서포터즈를 조직했다.

동국대는 "최근 전개하고 있는 '후배사랑 등록금 한 번 더 내기 운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학생, 교직원 100여명으로 구성된 기부금 유치 서포터즈가 6월 27일부터 30일까지(1차), 7월 11일부터 12일까지(2차) 동국대 중강당에서 약 5만명의 동문들을 대상으로 전화 모금 캠페인에 나선다"고 6월 26일 밝혔다.

동국대 '후배사랑 등록금 한 번 더 내기 운동'은 지난 5월부터 시작된 기부운동으로, 학부 등록금만큼의 금액을 동문들로부터 월 3만원*100회(300만원) 또는 월 5만원*60회(300만원) 등의 소액 월정 기부로 받는 것이다. **남동우 기자**

불교방송 이성언 사장 사표

불교방송 이성언 사장이 6월 2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7월 31일자로 사직한 이성언 사장은 지난해 11월 경인방송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CBS 등과 함께 "종교방송사들은 경인지역 지상파 방송사업자 공모에 함께 힘을 합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동명의 성명서에 이사회 동의없이 날인하는 등 물의를 빚어왔다.

후임 사장은 대한불교진흥원에서 사장 후보 추천 또는 공채 등을 결정하는 대로 이사회를 거쳐 선임될 전망이다. **강지연 기자**

5 · 31 지방선거 투표소 개신교 974 · 불교 9

5 · 31 동시지방선거 투표소 가운데 불교시설은 9곳인 반면, 개신교 시설은 974곳에 달해 불교시설 보다 108배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가톨릭시설도 88곳으로 불교보다 10배에 달했다. 이는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수록된 각 지역 투표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지역별 종교시설 이용현황을 보면, 서울은 투표소 2210곳 가운데 505곳(22.8%)이 종교시설을 이용해 가장 이용률이 높았다. 인천도 582곳 가운데 70곳이 종교시설에서 실시돼 12%에 달했다. 반면 제주도는 투표소 229곳 가운데 단 1곳(0.4%)만 종교시설을 이용했다.

종교평화위원회는 "법률에 따른 투표소 장소 선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봉영 기자**

파라미타, 지부 역량따라 '희비'

학생 · 지도자 체계적 관리시 회원 급증
"교사불자 · 주지스님 지도자 역할맡아야"

6월 21일 조계종이 발표한 '2005년 통계자료'에서 파라미타청소년협회(이하 파라미타) 회원 감소는 청소년 포교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구체적인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청소년 포교의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통계자료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자료에 따르면 파라미타 전체 학생 회원은 1만4068명에서 1만3775명으로 293명(2.1%) 감소했다.

지도자 회원 또한 471명에서 431명으로 40명(8.5%) 줄었으며, 분회는 306개에서 276개로, 지회는 21개에서 17개로 4개가 줄어들었다.

그러나 경상북도의 경우 학생회원수가 450명에서 1365명으로 915명이나 증가했다.

분회가 12개에서 8개로 4개나 줄었지만 회원 수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경북지부 차원에서 학생과 지도자 회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했기 때문이다. 상근자가 상주하며 회원 활동을 지원했던 것이 큰 힘이 된 것이다.

지부활동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면서 학교와 사찰 분회 회원이 다소 늘어난 것이 '폭발적' 증가의 또 다른 원인이다.

경상남도의 경우에도 2004년 360명에서 2005년 212명으로 학생회원이 줄어들었지만 지난 6월 3일 지부가 창립되면서 회원수가 1000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내년의 통계 발표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강원도(46→82)와 인천(26→47), 충남(0→29) 역시 지도자가 소폭 증가하면서 학생회원수가 증가한 경우다.

불교세가 비교적 약한 전라북도의 파라미타 활동도 주목할 만하다. 학생(870→870)과 지도자(43→48) 회원 숫자 변화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지역 대표사찰인 김제 금산사가 지도자와 학생 회원들의 활동 공간을 마련해주고 템플스테이 등의 프로그램까지 제공하면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학생회원이 1200명에서 360명으로 840명이나 줄은 경기도는 부천 석왕사에 있는 지부운영이 사실상 '정지'되면서 학교와 사찰회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분석됐다.

또 25명이던 지도자가 19명으로 줄어든 것도 활동 저하의 한 이유다. 서울(3200→3100)과 부산(2430→2100)은 '전략적 요충지'임에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렇게 볼 때 청소년 포교의 대안은 지역 교구본사가 구심점 역할을 하고, 종단은 출재가 지도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제공하며, 실질적 업무를 주관하는 파라미타는 체계적인 회원관리와 함께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파라미타 조한곤 사무과장은 "특히 교사불자들과 지역 사찰 주지 스님들이 지도자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종단 차원에서 어린이-청소년-대학생-청년으로 이어지는 포교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철주 기자**

"헌혈증 333장 이웃에게"

광동고 학생들, 생명나눔본부에 전달



"부처님은 우리에게 '보시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셨죠. 어려운 분들에게 작지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이웃이 되고 싶었어요."

불교 종립학교 고등학생들의 '이웃사랑'이 뜨겁다. 6월 28일, 남양주 광동고등학교 총학생회장 이선(19)양과 불교학생회장 박근식(19)군이 생명나눔실천본부 사무실을 찾아 봉투를 전달했다(사진). 봉투 속에는 34만 원과 헌혈증 333장이 들어있었다.

이들은 "학생들이 기증한 헌혈증과 성금을 소중한 곳에 써 달라"고 부탁했다.

광동고 학생들이 헌혈증과 성금을 모으기 시작한 것은 지난 5월 4일, 봉축기념행사 이후다. 부처님오신날을 기리기 위해 매년 열리는 교내 봉축기념행사에서, 광동고 학생들은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마음으로 바자회를 열어 생활용품을 판매한 수익금을 모으고 '자비의 헌혈'을 실시했다. 행사 종료 후 바자회 수익금 33만 5천원은 전액 광동고 인근의 선재동자원에 전달했다.

또 '자비의 헌혈'에는 신대식 교장과 교직원들도 참여해 모범을 보였으며, 헌혈 종료 후에는 헌혈증 기부의 필요성도 교육하며 학생들이 '나눔'을 실천하도록 격려했다. 처음에는 헌혈증을 수첩 속에 끼워 갖고 다니며 자랑하던 학생들도, "혈액이 비싸서 정작 수혈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도 있으며, 헌혈증을 기부하면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설명을 듣고 한 장 두 장 헌혈증을 기부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차곡차곡 모인 헌혈증이 333장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봉축 기간 동안 광동고 불교학생회 회원들 연등을 판매한 수익금 34만원도 생명나눔실천본부에 함께 전달했다.

광동고 불교학생회 지도법사 혜정 스님은 "막연한 종교교육보다도 보시를 실천하도록 돕는 것이 가장 큰 부처님 교육"이라고 밝혔다. **이은비 기자**

여름방학 자원봉사로 보람있게

여름방학이 다가왔다. 현재 중학생은 연간 18~20시간 이상, 고교생은 연간 2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을 하기에는 여름방학이 적기. 그러나 막상 어떤 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할 지 막막한 청소년이라면,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준비한 불교계 복지관으로 눈을 돌려볼 만하다. **이은비 기자**

불교계 복지관 여름방학 봉사활동 프로그램

기관	날짜	대상	연락처
서울 구로종합사회복지관	7월중	장애 · 비장애학교	(02)852-0522
궁동종합사회복지관	7월 24~28일 8월 5~6일	청소년 레인보우 자원봉사학교	(02)2613-9367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8월 1~3일	자원봉사학교	(02)3494-4755~6
목동청소년수련관	7월 22일 ~8월 19일	또래상담자 동아리 활동	(02)2642-1318
본동종합사회복지관	7월 26~27일	부엉이 캠프	(02)817-8052
삼전종합사회복지관	7~8월	자원봉사학교	(02)421-6077
옥수종합사회복지관	7~8월	종합봉사활동	(02)2282-1100
은평노인종합복지관	7월 24일~8월 25일	자원봉사학교	(02)385-1351
군포장애인종합복지관	8월 16~18일	장애 · 비장애 청소년이 함께 하는 자원봉사캠프	(031)396-3108
한솔종합사회복지관	7월 24일~8월 18일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031)716-4215
부천 원종종합사회복지관	7월 25~26일	농촌체험캠프	(032)677-0107
원주 명륜종합사회복지관	7월 24일~8월 13일	청소년봉사활동	(033)762-8131
부산 낙동종합사회복지관	7월 19~21일	종합봉사활동	(051)271-0560
부산 물운대종합사회복지관	7월 24일~8월 19일	하루같이 봉사단	(051)264-9033
대구 남구종합사회복지관	7월 25일~8월 29일	직접기획	(053)476-7700
구미 금오종합사회복지관	7~8월중	장애체험 자원봉사캠프	(054)458-0230
경주장애인종합복지관	7월 24일~8월 4일	장애 · 비장애 학교	(054)776-7522
구미 금오종합사회복지관	7월	직접기획	(054)458-0230
영주장애인종합복지관	8월	장애 · 비장애 학교	(054)633-6415
진주장애인종합복지관	8월	장애 · 비장애 청소년캠프	(055)763-6677~80
여수 문수종합사회복지관	9월	청소년봉사활동	(061)652-4242~3
광주 광산구장애인복지관	7월	장애 · 비장애 학교	(062)943-0420

조선왕조실록 월정사로 올까?

불교계 · 서울대 · 정부 관계자 비공개 간담회

7월 14일 도쿄대로부터 서울대로 반환되는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의 소장문제를 놓고 불교계와 서울대의 한판 승부가 불가피할 예정이다.

조선왕조실록환수위원회(공동대표 정념 · 철안)와 서울대실록환수위원회(위원장 이태수), 문화재청 유홍준 청장,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6월 27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관계자들은 <조선왕조실록> 반환이 불교계의 노력이 일구어낸 성과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으며 국보급 문화재인 실록이 원래 보관돼 있던 월정사 사고로 환수되기 위한 방안, 실록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추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환수될 실록의 활용과 보존에 대해서는 다각적이고 치밀한 검토와 준비를 거쳐 추진돼야 될 것이며 실록의 환수와 활용에 양측 환수위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실록되찾기국회의원모임(공동대표 김원웅 · 노회찬 외 3명)도 6월 29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긴급회의를 가져 '실록 소장에 대한 적합성 판단'이라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문화재청에 제출했다.

한편 조계종 승랍 30년 이상 연령 55세 이상 스님 170여명은 6월 22~23일 도고 한국증권연수원에서 열린 중진주지연수에서 결의문을 통해 "정부와 문화재청은 국고를 투입해 오대산 사고를 복원한 취지에 맞게 조선왕조실록이 원 소장처인 오대산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대산 사고본 반환을 기념하기 위한 고불식이 월정사에서 봉행될 예정이다. **남동우 · 노병철 기자**

능인선원 YBA 파키스탄서 구호활동

서울 능인선원이 파키스탄 지진 피해 지역에 구호활동을 펴난다.

능인선원 부설 YBA(Young Buddha Association, 총재 지광)는 7월 8일부터 17일까지 지진 최대피해 지역인 발라코를 방문해 초등학교 개원과 함께 여름캠프, 의료 봉사, 정화조 설치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친다.

먼저 YBA는 올 2월 파키스탄 국가인간개발위원회(N.C.H.D)와 체결한 '글로버 호프 학교' 2곳 설립 지원계획에 따라, 100명 규모의 여자초등학교를 건립한다. 건물 3동이 들어서는 여자초등학교 건립에 YBA는 이미 미화 1만3천 달러를 지원했으며, 이에 앞서 150명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남자초등학교 1곳의 설립도 마무리했다.

지난해 12월 한 달간 현지에서 구호단 활동을 벌인 YBA의 이번 방문에서는 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물탱크를 설치하는 등 지역개발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YBA는 대학생 자원봉사단 및 의료진료단 10여 명을 구성할 계획이다.

YBA 지도법사 탄경 스님은 "제3세계 지원활동은 국제화 시대에 빼놓을 수 없는 사업인 만큼 한국 청년불자들의 봉사정신을 아낌없이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일산경찰서, 황룡사 前 주지 정모씨에 구속영장 신청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6월 29일 신도들에게 가짜 만병통치약을 판 사기 혐의 등으로 고양시 일산동 황룡사 前 주지 정모씨(42)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무덤을 파내고 주검 밑에 고인 물을 퍼낸 뒤 신도인 김씨 등 5명에게 만병통치약이라며 1잔당 5만~60만원씩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물을 마신 피해자들은 식중독과 피부병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정씨는 또 속옷에 차고 다니면 모든 일이 잘 풀리는 부적이라며 가짜 여우꼬리를 100만~300만원에 판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런 수법으로 정씨는 지금까지 15명의 신도들한테서 2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무속인으로 활동해오다 지난 2002년 태고종에서 정식 승려증을 받고 2002년부터 황룡사 주지를 맡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태고종은 정모씨를 지난 6월 7일 사찰 등록을 취소하고 승적을 박탈한 바 있다. **김주일 기자**

이 책을 읽지 않고 간화선을 논하지 말라

여기 한 권의 책 속에 간화선의 진면목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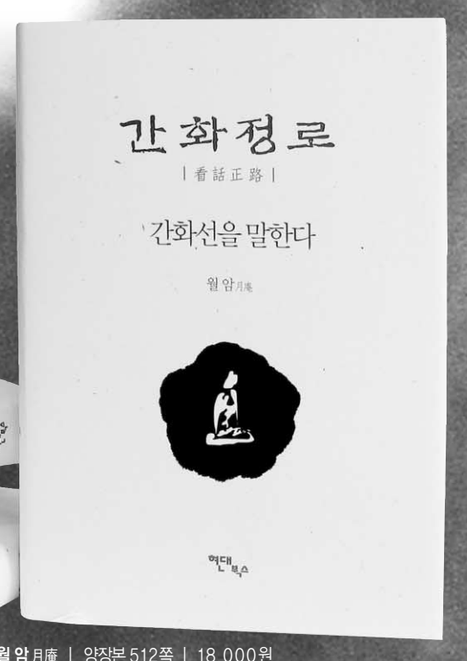
미래문명의 대안으로 떠오른 선禪, 그 선의 정수이며 최고 수행법이 바로 간화선이다.
지리산 벽송사 벽송선원에서 정진중인 월암스님이 간화선의 역사와 사상 그리고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간화선의 지침서를 출간하였다. 간화선에 대한 올바른 이론과 실참을 지향하는 수행자의 삶이 선수행의 올바른 길임을 제시해 준다.
저자는 간화정로가 한국불자들의 필독서가 되고 선원수좌들의 애독서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동안 글로벌 시대에 우리 간화선이 우수하다고 자처하면서도 세계에 알리는데 지침서가 부족했다면 간화정로는 선의 정체성을 알리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설정스님(덕숭총림 수좌)]

월암스님은 제방선원에서 수행 정진하면서 간화정로를 집필하였습니다. 이제 이 책이 스님, 재가, 해외불자들에게 선수행의 지침서가 되어 눈 밝은 납자가 무수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영진스님(전국 선원수좌회 의장)]

간화선이 수승함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롯이 수행을 일관하신 분들은 근거를 제시하여 설명하기 어렵고, 불교 학자들은 실참이 부족하여 그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워 정확한 간화선을 알리기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수행과 학술적 근거를 겸한 간화정로는 이 시대에 필요한 간화선 지침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미산스님(중앙승가대학 교수)]

월암月庵
· 도문화상을 은사로 중생사 출가
· 북경대학에서 <돈오선 연구>로 철학박사 학위취득
· 중국 진여선사, 백림선사, 남화선사, 천동선사 등 선원에서 선칠禪七 안거
· 백양사, 화엄사, 봉암사, 정혜사, 벽송사 등 선원에서 수선안거
· 동국대학 선학과에서 강사로 후학지도
· 現 지리산 벽송사 벽송선원에서 정진중
· 불교신문 <선의 종장들> 기고중



출판 한달만에 2쇄 돌입

글 월암月庵 | 양장본 512쪽 | 18,000원

看話正路
간화정로

혁대북스 (02)2198-5151 (051)244-1251 좋은기획 좋은디자인 좋은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전국 유명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생애 · 사상 다룬 기초 자료 부족 … 연구 부진

일연 스님 탄신 800주년 … '일연 스님' 연구 성과는?

일연 스님의 〈삼국유사〉는 정토학과 국문학 언어학 등의 학문분야에서 많은 연구와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정작 일연 스님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학제적 접근은 활발하지 못하다. 원인은 간단하다. 일연 스님에 대한 사료(史料)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삼국사기〉 〈조동오위〉 보각국사비 등이 일연 스님의 사상과 생애를 살펴볼 수 있는 유일한 역사적 증거물이다. 일연 스님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들은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선승이었을 뿐 아니라 국사(國師)로서 왕을 보필하고 우리민족의 주체성과 유구한 역사를 담아 낸 〈삼국유사〉를 저술한 일연 스님에 대한 정확한 연구가 필요한 때"라고 입을 모은다. 일연 스님 탄신 800주년(7월 6일, 음력 6월 11일)을 맞아 스님에 대한 연구 현주소를 살펴봤다.

전문 연구인력 부족 · 재정 어려움도 난제
공동연구작업 네트워크 등 환경 구축해야

▶ '일연' 주제논문 · 저술 50편도 안돼

일연 스님에 대한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가운데 생애와 사상을 짚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는 〈삼국유사〉 〈조동오위〉 〈능엄경환해산보기〉 보각국사비 등이 전부다.

하지만 이나마 남아 있는 자료에도 스님의 사상과 생애에 대한 자세한 언급보다는 개괄적인 설명이 대부분이다.

일연 스님과 〈삼국유사〉를 인용하거나 부소재로 다룬 연구 논문과 저술은 2700여 편에 이르고 있지만 저자 일연 스님을 집중적으로 다룬 논문과 저술은 50여 편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학자들이 〈삼국유사〉에 대한 학술적 연구 가치는 인정하되 저자인 일연 스님의 사상과 생애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반증이다.

고조선~삼국시대의 역사적 내용을 담은 야사(野史)인 〈삼국유사〉를 통해 스님의 사상과 생애를 정확히 연구하기엔 어려운 점이 많다. 〈조동오위〉 또한 조동종 스님들의 어록을 경전 주석서 형식으로 담아냈기 때문에 지은이의 사상과 연구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중 조금이나마 일연 스님의 사상을 엿볼 수 있는 자료는 〈능엄경환해산보기〉와 보각국사비다. 〈능엄경환해산보기〉는 일연 스님과 보환 스님의 문답 내용을 부분적으로 기술하고 있고 보각국사비에는 일연 스님의 생애와 저술 등을 4000자 정도의 한자로 기록하고 있다.

일연 스님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연구단체도 일연학연구원(원장 상인, 인각사 주지)이 유일하다.

학자도 동국대 김상현, 중앙승가대 김상영, 연세대 국학연구원 고운기, 경북대 주보돈 교수 등 15명 내외다. 통상 불교학술 단체의 연구 인력이 작게는 30명 많게는 10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연세대 고운기 교수는 "일연 스님의 사상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어록이나 시집이 다량 남아 있어야 하는데 거의 전무한 상태여서 어려움이 많다"며 "이 같은 원인은 여말선초 시기의 억불숭유 정책과 일연 스님의 사상과 업적 등을 배척한 유학자들의 탄압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선사로서의 면모와 해박한 교리적 지식의 겸비는 당시 국사의 직위를 받기 위한 필요조건이었기 때문에 일연 스님이 분명 당대의 선지식이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 후원제도 마련해 활성화를

그렇다면 지금까지 일연 스님에 대한 연구 활동과 성과는 얼마나 될까. 가장 왕성한 활동과 성과물을 내고 있는 곳이 바로 일연학연구원이다.

일연학연구원의 가장 큰 성과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회에 걸쳐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20여 편의 논문 내용과 토론을 분석해 2005년도에 발간한 〈삼국유사 연구 창간호〉를 들 수 있다. 또 2003년 〈삼국유사〉 1~5권을 영인본으로 만들어 관련 학자와 사찰 등에 보급한 〈영어로 읽는 삼국유사〉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물로 평가받고 있다. 2005년에는 〈보각국사비 탁본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해 주목받았다.

이 보고서는 금석학자 등 10여명의 학자들이 참여해 비바람에 마모된 보각국사비에 담겨진 일연 스님의 생애와 사상, 업적 등을 판독해 냄으로써 일연 스님에 대한 중요한 연구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일연 스님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구요원 부족과 재정적인 어려움을 먼저 극복해야 한다.

일연 스님에 대한 연구에 앞장서고 있는 학자는 10여명으로 '일연학 연구소'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렇듯 전문 연구원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비록 설립된지는 오래됐으나 많은 성과를 기대하기란 무리다. 부족한 재원도 일연학연구원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 중 하나다. 교구 본사인 은해사의 지원과 후원금을 통해서 연구원 운영자금과 세미나 개최 비용, 학술 자료 수집 비용 등을 충당하고는 있지만 질 높은 연구 환경을 만들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때문에 재정이 충분히 마련되어 '일연학술상'을 제정할 경우 학술활동은 물론 개별연구에도 상당한 활력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승가대 김상영 교수는 "일연학연구원이 매년 1차례에 걸쳐 일연 스님과 〈삼국유사〉에 대한 학술대회를 열고 있지만 학자들의 무관심과 재정부족으로 인해 3~4편의 논문도 발표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일연 스님에 대한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학자들끼리의 공동 연구 작업 네트워크 구축 △지속적인 연구 지원 시스템 마련 △관련 학자들의 정례적인 토론회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게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인각사 주지 상인 스님은 "일연 스님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 20여명이 정기적인 토론회를 가져 이에 대한 정보공유 시스템을 만들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세미나 개최와 석 · 박사 논문 수집 비용, 관련 학자 육성 · 배치 등을 사찰이나 종단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는 '학술단체 후원 제도' 체제 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노병철 기자



군위 인각사에서 매년 열리는 일연스님 다례제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 일연 탄생 800주년 기념행사

행 사	일 시	장 소	연락처	주 최
일연 탄신 기념 법회	7월 6일	군위 인각사	(054)383-1161	인각사
일연 탄생 축하음악회	7월 7일	경산시 계정숲 특설무대	(053)811-2231	경산시
일연 · 〈삼국유사〉 국제학술대회	7월 20~21일	한국학중앙연구원	(031)709-8111	일연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삼국유사 대제전 기념음악회	7월 28일	인각사	(054)383-1161	인각사
삼국유사 대제전 주제공연 /일연문화상 시상식	7월 29일	인각사	(054)383-1161	인각사
산사 불교 단편영화제	7월 29일	인각사	(053)420-8060	대구독립영화협회
이하석 시인과 함께 떠나는 삼국유사 여행	7월 29일	경주 일대	(053)423-4244	예술마당 솔
일연 입적 법회/보각국사비 복원제막식	8월 1일	인각사	(054)383-1161	인각사
제87회 경북 전국체육대회 '일연주제'로 개/폐막식 행사	10월17일/23일	김천종합운동장	(054)420-6114	김천시

▌일연 스님과 삼국유사는?

일연(一然, 1206~1289) 스님은 고려 후기 승려로 초자는 회연(晦然), 호는 무극(無極), 속성은 김씨(金氏), 이름은 견명(見明)이다. 장산(지금의 경산)에서 태어났으며 8살 때 해양(지금의 광주로 추정) 무량사에 들어가 학문을 닦았고 19살에 출가해 설악산 진전사의 고승 대웅(大雄)의 제자가 되어 구족계를 받았다. 27세에 보당암 주지로 있으면서 참선에 몰두해 '삶의 경계는 소멸이 없고, 부처의 경계는 더함이 없다(生界不滅 佛界不僧)'라는 말을 참구해 득도했다고 전한다.

49살 되던 해에 정안(鄭晏)의 청을 받고 남해 정림사로 내려와 남해의 분사대장도감 작업에 참여했다. 59살에는 대선사에 올랐다.

61세 때 강화도 선월사에 머물면서 개당하여 구산선문(九山禪門)중 하나인 가지산문(迦智山門)에 속하는 '목우자(보조 지눌)'의 법을 이었다. 81세 되던 해 노모의 봉양을 위하여 귀향했다가 이듬해 군위 인각사를

59세때 '대선사' 지위 올라
저서 100여편 중 일부만 남아

중건하고 당시의 선문을 전체적으로 망라하는 구산문도회를 두 번이나 열었다. 1289년(충렬왕15년) 7월 8일 인각사에서 세수 84세, 법랍 70세로 입적하였으니, 시호를 보각(普覺), 탑호를 정조(靜照)라 했다.

한편 일연 스님의 저서로는 〈선문염송사원〉 〈중편조동오위〉 〈화록〉, 〈게송잡저〉 〈대장수지록〉 〈조정사원〉 〈제승법수〉 등 100여 편에 달하는 것으로 전하지만 현존하는 자료는 극히 일부다.

〈삼국유사〉는 1281~1283년(충렬왕 재위 7~9)에 저술했으며 5권 2책으로 구성된 야사(野史).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와 더불어 고대 사적(史籍)의 최고봉으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고조선에 관한 서술은 한국의 반만년 역사를 내세울 수 있게 하고, 단군신화는 단일민족의 긍지를 심어주는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

그 밖에도 많은 전설 · 신화가 수록돼 있으며 향찰(鄕札)로 표기된 〈혜성가〉 등 14수의 신라 향가(鄕歌)가 실려 있어 〈균여전〉에 수록된 11수와 함께 한국 고대 문학사의 실증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다. 내용상 상 · 하로 구분되며 역사적 사실을 주로 다룬 1, 2권은 상책에 해당하고, 불교적 내용을 주로 다룬 3, 4, 5권은 하책에 해당한다.

5권 2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삼국유사〉는 권과는 별도로 왕력(王曆), 기이(紀異), 흥법(興法), 탑상(塔像), 의해(義解), 신주(神呪), 감통(感通) 피은(避隱), 효선(孝善) 등 9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교 조계종(佛敎 曹溪宗) 創宗 公告

창종 선언문(創宗 宣言文)

悠久한 歷史와 오랜 傳統에 빛나는 우리佛敎가 이 아름다운 國土에 傳해 온 以來로 敎宗과 禪宗이 그 나름대로 燦爛한 佛敎文化의 꽃을 피웠다.

敎宗의 五派와 禪宗이 相互鼎立하여 처음에는 敎의 紀綱을 바로 세우고 禪門을 開山하여 敎化의 堂을 열고 宣揚에 使命을 다하다가 12世紀 高麗때는 안팎으로 政變의 소용돌이 속에 휩쓸리는 가운데 佛敎的 戒行이 解弛해져 안으로 禪과 敎의 對立이 極甚하여 上求菩提 下化衆生하는 宗敎本然의 姿勢를 잃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 後 佛敎 僧團의 宗敎的 危機感을 直視하고 九山禪門의 代表的 地位로서 普照國師 智訥의 頓悟漸修와 定慧雙修思想을 基底로 하여 麗末에 中國 石玉淸空禪師로부터 達磨이래 六祖의 眞隨와 臨齊法脈을 이은 太古 普愚國師 宗祖로하여 法界圓隆 會三歸一의 思想으로 禪敎兩宗 統合에 그 높으신 뜻을 이어받아 禪家의 이어온 法을 널리 宣揚하고자 우리나라 佛敎의 獨特한 宗門이 開山된 것이다.

過去 三國의 찬란한 佛敎文化가 高麗에 이르러서도 發展 維持되어 왔으나 其後 李朝時代의 背佛崇儒 思想에 의해 寺院은 깊은 山中으로 逃避하기에 이르렀고 五百餘年이란 긴 歲月동안 衰殘의 길을 걸어 왔으니 참으로 佛敎 暗黑時代이며 法亂이 아닐 수 없었다.

그리하여 雨後竹筍같이 諸 宗派가 亂立하는 가운데 우리도 義然히 일어나 佛祖의 慧命을 이어 나가려는 時代的 使命感과 大願力으로 大同團結하여 佛敎曹溪의 宗名을 公稱하고 宗憲 宗法을 制定하여 先代佛敎本然의 斬新한 모습으로 傳法度生의 門을 열어 敎化에 邁進하고자 佛敎 曹溪宗 創宗을 宣布한다.

佛紀 2548年 3月 1日 佛敎 曹溪宗 創宗 發起人 一同

任員 名單

종 정 無空 海印 부종정 靈 山

원로회 의장 慧珠 고 문 德相 종회의장 如如

총무원장 性霞

사무총장 道 燕 조직부장 慧 性

총무부원장 現 默 조사부장 大 松

포교원장 補 一 교무부장 曉 靜

중앙교육원장 曉 天 사회부장 智 宣

호법원장 德 岩 섭외부장 智 明

전국비구니회장 度 圓 재무부장 慧 禪

전국선원장 松 岩 규정부장 海 松

전국거사림회장 이벽봉 홍보부장 妙 覺

전국신도회장 金正憲 총무부장 高 理

전국교구 · 광역직할교구 · 해외특별교구

◆ 佛敎 曹溪宗 總務院 : 무량사 주소 : 충북 충주시 살미면 세성리 628번지 전화 : 043)851-4879

사부대중에 올리는 꽃 공양

태종사, 7월 22~24일 '제1회 수국축제' 열어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명소 태종대에 자리 잡은 태종사(주지 진용)가 수국에 파묻혔다. 고봉으로 퍼 담은 쌀밥처럼 새하얀 수국의 봉오리들이 경내를 가득 채운 태종사는 '혼자보기 아깝다'는 불자들과 지역민들의 의견을 제1회 수국축제로 꽃피울 계획이다.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 열리는 태종사의 '제1회 태종대 수국축제'는 30여 년 동안 각국의 수국을 옮겨 심고 가꾸어온 태종사 조실 도성 스님과 태종사 대중이 지역민들과 부산의 불자들에게 올리는 꽃 공양이자 공덕 회향인 셈이다. 축제 동안 일본, 네덜란드, 태국, 중국, 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국에서 옮겨 심은 40여종의 수국들이 도량을 장엄하게 된다.

'꽃들을 위한 향연'이라는 부제를 단 태종대 수국축제는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명소임에도 이렇다할 축제조차 없었던 태종대에서 처음 열리는 축제여서 '태종사'에 국한시키기 않고 '태종대 수국축제'라 명명했다. 특히 수국축제를 준비하는 주체 역시 태종사 대중의 울타리를 넘어 영도지역에 살고 있는 '역사와 문화를 생각하는 모임' 회원들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김도용(동주대 박물관장 퇴임) 위원장을 비롯한 8명의 추진위원은 하루가 멀다 하고 모임을 갖고 '꽃들을 위한 향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꽃'이 단순히 수국이 아니라 '사부대중'의 다른 이름"이라고 강조하는 준비위원장의 말에서 이번 축제의 공덕과 즐거움이 전체 대중들에게 골고루 회향될 것임을 짐작케 한다.

각국서 옮겨 심은 40여종 1천여 오색燈과 함께 장엄 자연생태학습장 조성 계획

행사도 다채롭다. 개화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꽃 빛이 바뀌는 수국을 감상하는 즐거움 외에도 다양한 문화 행사가 마련된다. 첫날인 22일 11시 축제를 알리는 길놀이를 시작으로 3일 동안 모듬타악연주, 대금독주, 판소리, 살풀이, 민요모음, 삼도설장구 등의 공연과 함께 투호 던지기 등 전통 문화 체험행사도 마련된다. 특히 3일째인 24일에는 통일 염원과 만 중생들의 평안을 기원하는 탑돌이로 수국축제의 마지막 밤을 아름답게 수놓게 된다. 이번 공연을 계기로 상설 무대를 설치 중이며 태종대 순환도로를 따라 1천개의 오색 등을 밝힌다.

제1회 수국축제는 태종대에서 열리는 최초의 축제라는 의미 외에도 자연생태학습장과 수목장 조성의 원력을 담고 있어 의미를 더한다. 수국축제를 계기로 태종사는 야생 약초를 위주로 학생들이 와서 견학 할 수 있을 정도의 자연생태학습장을 조성한다. 야생 그대로의 자연을 간직한 태종사는 이미 황칠나무, 생강나무, 가시오가피, 병꽃나무 등 수많은 자생 약초가 2700여 평의 도량에 산재해 있는데다 축제를 위해 옮겨 심는 약초들도 많아 앞으로 우리 약초의 효능을 제대로 알리는 생태학습장으로 손색이 없다.

한편 수목장 운동도 축제와 더불어 시작된다. 매년 가을 가족나무 심기 운동을 펼칠 예정인 태종사는 결혼기념일 나무 심기, 나의 탄생목 심기 운동을 통해 나무를 가꾸고 죽은 후에는 수목장의 기능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축제 준비에 한창인 주지 진용 스님은 "화려한 축제보다는 지속적인 연구와 기획으로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축제의 본보기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051)405-2727

천미희 기자



'茶·禪' 치매 예방에 효과

정여 스님, 치매예방세미나서 생활선 특강



"마음 다스리는 일 같다"

'치매예방 및 재활과 차선 복지모델'을 주제로 부산여자대학이 주최한 학술세미나에서 부산여여선원 선원장 정여 스님(사진)이 선 특강을 해 관심을 모았다.

6월 24일 부산여자대학 다촌문화관 전시실에서 부산여자대학 사회복지계열, 한국전인케어복지협회, 대한치매예방재활협회 공동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차와 선이 치매예방과 치료에 미치는 연구 논문들이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특히 부산여자대학은 한국다도협회 장이었던 故 정상구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던 것이 인연이 돼 차선(茶禪)을 통한 복지실현을 위한 연구를 이어왔던터라 각 대학의 차관련 복지 모델을 다양하게 소개하는 자리가 됐다.

그 중에서도 정여 스님의 특강은 차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선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강의로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정여 스님은 "맑고 고요함속에서 차를 마시는 일이나 고요히 앉아서 좌선을 하는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 조금의 차이도 없이 한결같다"며 선의 정의, 선의 유래, 선 수행의 근본목적을 비롯해서 좌선의 올바른 자세까지 상세하게 설명했다.

차문화복지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여 스님은 차와 관련된 복지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차와 선이 추구하는 맑고 고요한 마음이 다르지 않으니 차를 통해 부처님이 설하신 복지와 자비의 사상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천미희 기자

스리랑카에 복지시설 건립 기금 전달



조계종 울산불교신도회(회장 황경환)는 6월 24일 통도사 백련암에서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스리랑카 노인복지시설 '유디토리트라미야'의 건립 기금 2천만 원을 전달했다(사진).

황경환 회장 취임 이후 6월 초 신도회 임원 25명 전원이 일본 성지 순례를 다녀왔고 울산불교방송국 개국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울산불교신도회는 이번 복지기금전달로 스리랑카와의 교류에도 물꼬를 텄다.

이날 전달식에서 황경환 회장(사진 오른쪽)은 "스리랑카가 없었다면 부처님의 온전한 말씀인 원전이 전해질 수 없었다"며 "10월경 2천만 원을 추가로 보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금을 전달받은 스리랑카 시라 스님은 "이 성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한국의 모든 불자님이 스리랑카에 보내주는 마음으로 알고 감사히 받겠다"며 감사함을 전했다.

한편 이날 임원회의에서는 9월 개최 예정인 제10회 울산 불교합창제 계획안을 토의하고 합창제를 문화 축제로 기획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특히 빠르면 9월 이전에 개국 허가를 득할 가능성이 높은 울산 울산불교방송국 개국을 축하하는 행사로 준비하기고 의결했다.

천미희 기자

부산·창원 5·31 선거 당선자 초청법회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정치인들의 당선을 축하하고 시정과 도정발전을 기원하는 법회가 부산과 창원에서 각각 열렸다.

부산불교신도회(회장 공병수)는 6월 28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부산발전을 위한 5·31 지방선거 당선자 초청 리셉션'을 개최했으며 마산창원불교연합회(회장 원정)와 진해불교사암연합회(회장 운성)는 6월 26일 창원 성주사에서 '민선4기 지방자치 출범 경남 도시정발전 기원법회'를 각각 봉행했다.

28일 부산에서 열린 행사에는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대성 스님, 부산불교연합회 수석 부회장 영제 스님, 혜총 스님을 비롯 공병수 신도회장, 류진수 부산불교방송 사장, 김광삼 국제신문 사장 등이 참석해 당선자들을 축하하며 바른 정치를 당부했다.

한편 창원 성주사에서 열린 행사는 박완수 창원시장, 황철곤 마산시장을 비롯 마산, 창원, 진해의 당선자들이 참석했으며 원정 스님의 봉행사, 마창불교연합회원로 철화 스님의 격려사, 도시정 발전기원 축원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정치인들을 초청한 스님들은 공통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늘 명심한다면 최고의 정치를 펼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맑고 깨끗한 정치로 민심을 보듬고 국민들이 근심없이 살 수 있도록 보살펴 나가는 정치를 펴라"고 당부했다.

천미희 기자

해군3함대 해운사 개원법회



6월15일 부산 남구 용호동 신 작전기지로 이전한 해군3함대는 작전기지 내에 해운사(주지법사 정직한)법당을 준공하고 6월 22일 개원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법당 개원이전 100여명의 불자 장병들은 생활관 옥상에 가법당을 만들어 놓고 법회를 봉행해왔다.

200여 평 부지에 대웅전을 비롯해 종무소, 수양관 2동의 요사채를 갖춘 해운사는 2003년 기공해 지난 4월 22일 점안법회를 봉행했었다.

해운사는 매주 일요일 오전10시와 목요일 오후 6시 정기법회를 열 예정이지만 불자들의 후원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현실이어서 군 포교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해줄 단체나 모임의 도움이 절실하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일면 스님은 이날 법어에서 "부처님의 성전을 모시는 공덕은 아주 큰 것이지만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전하는 것은 더 큰 공덕을 짓는 것"이라며 "여기서 멈추지 말고 늘 배우고 발원하는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51)679-4682

이은아 기자

혜총 스님 등 9명 경승 위촉

부산진경찰서는 6월 23일 부산진경찰서 교육관에서 감로사 혜총 스님, 삼광사 갈웅 스님 등 총 9명의 관내 스님에게 경승 위촉장을 수여하고 경승추대식을 가졌다.

감로사 주지 혜총 스님이 경승실장으로, 삼광사 교무 갈웅 스님, 선암사 주지 원범 스님, 금선사 유초 스님, 광명사 무아 스님, 원각사 태연 스님, 선봉사 도봉스님, 황제사 성문 스님, 보광원 인환 스님이 경승으로 위촉됐다.

천미희 기자

호국불교효예종 법진스님 외
여러종단 스님들께서 추천한 인기 상품!!

大賞 www.shmall.net
2006 베스트브랜드 인기상품!

달마의 氣

외출과 여행이 잦아지는 노출의 계절 여름!
그만큼 갖가지 나쁜 기운과 마주칠 기회가 많아집니다.
이제 달마의 기로 자칫 닥쳐올지 모를 나쁜 기운을 미리 예방하세요!



예부터 병귀(病鬼)와 사귀(邪鬼)를 물리치는 힘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 달마!
수맥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달마의 기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걸이와 귀고리, 핸드폰 고리를 몸에 지니는 순간 행운이 찾아옵니다.

名家인터내셔날



고객상담전화 1588-3278

• 제조원 : 名家인터내셔날
• 판매원 : (주)S.H상사

수험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선물!
행운충전

대리점 및 총판모집 1588-3278

무점포, 소자본으로 고소득 사업하실 분을 모습니다.

고객여러분의 성원에 감사하는 뜻으로 달마의 氣 14K를
구입하시는 모든분들께 백팔달마그림 1점을 드립니다.



귀고리 핸드폰줄 목걸이(목걸이줄은 별매)

(주)S.H상사 - 서울시 양천구 목5동 907-14 벽산미라지타워 410호

나주 객사서 홀대받던 석탑

사찰로 간다

옛 나주군청 앞에 있던 보물 '북문외 삼층석탑' 9월에 심향사로 이운

관공서가 관리하던 보물급 석탑이 지역 사찰로 이운된다.

나주 심향사 주지 원광 스님은 "옛 나주군청 앞에 있던 '북문외 삼층석탑(보물 제50호)'을 심향사 경내로 옮겨 관리키로 관계당국과 합의했다"며 "장마가 끝나면 보수 및 이전작업에 들어가 빠르면 9월경 탑 이운법회를 봉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년전부터 석탑 반환운동을 펼쳐온 원광 스님은 "저자거리에서 홀대받던 성보문화재를 사찰로 이운하기는 드문 일"이라며 "불교계의 바람인 성보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나주시청 김종순 문화재 팀장도 "나주 객사 금성관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석탑을 사찰로 이전키로 했다"며 "불탑이 제자리를 찾게 되어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이번에 심향사로 이운되는 북문외 삼층석탑은 일제가 문화재 약탈을 위해 1915년 나주 군청 안으로 옮겨 놓은 것으로, 풍화가 심하지만 단정한 품위를 잃지 않고 각 부의 비례가 아름다워 1963년 보물로 지정됐다.

현재 심향사에 있는 삼층석탑도 일제에 의해 나주군청으로 옮겨졌던 것으로, 1976년 돌아왔다.

한편 심향사는 석탑이 돌아오면 나주시민과 함께하는 축제한마당으로 이운법회를 열 예정이다. 글 · 사진=이준엽 기자



일제가 문화재를 약탈하는 과정에서 옛 나주군청 안으로 옮겨진 보물 제50호 북문외 삼층석탑이 9월 제자리 나주 심향사로 이운된다.

법주사 주변 들고양이들의 운명은?

충북 보은 법주사 일대 들고양이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금강유역환경청이 6월 20일 속리산 국립공원 일대 들고양이를 포획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들고양이들이 다람쥐나 토끼, 꿩 등의 야생동물을 잡아먹고 사찰과 식당 주변 음식물 쓰레기를 파헤쳐 주민들의 골칫거리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물보호 단체는 '무차별 포획은 불교의 자비 정신에 어긋나며 효과적인 해결책도 되지 못한다'며 포획을 저지하고 나섰다.

들고양이 포획에 관한 기사가 보도된 후 법주사 홈페이지(www.beopjusa.or.kr) 자유게시판에는 '법주사가 앞장서 고양이 포획을 저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한국고양이보호협회 회원들은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고양이를 포획 후 학계 실험용으로 제공하거나 안락사시킨다는 계획은 반생명적인 처사"라며 "포획 후 불임수술을 하고 방사하는 방식을 통해 고양이 개체 수 증가를 막고, 정기적으로 먹이를 제공해 쓰레기봉투를 파헤치는 피해를 막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금강환경청 포획 계획

> "야생동물 잡아먹고 쓰레기 파헤쳐 '골치'"

동물보호단체 저지운동

> "안락사 '반생명적' 불임수술후 방사해야"

이에 대해 법주사측은 "포획 계획을 제시한 금강환경청이 동물보호단체가 제시하는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 생명을 존중하는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고양이보호협회는 지난 3월 가야산 국립공원 일대의 고양이 포획 계획이 발표됐을 때도 해인사측에 "불임 시술 후 고양이 사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금강환경청은 "동물보호단체의 대안에는 공감하지만 개체수가 많아 일일이 불임수술을 하는데는 어려움이 따른다"며 "민 · 관 · 학계 관련자 8명으로 이뤄진 '고양이 포획협의회'를 구성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니르바나 불교사진 공모
광주 덕림사, 9월 10일부터 접수

광주 덕림사(주지 무이)는 제1회 니르바나 불교사진전을 마련하고 불교문화와 전통문화, 불교건축, 유형무형문화재와 관련된 사진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 점수가 인정되는 전국 불교사진전으로 출품작은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접수받는다. 심사는 10월 15일, 시상금 총액은 500만원이다. (062)362-2091 이준엽 기자

생명평화탁발 전북순례 회향
7월 8일 전북도청 앞 광장서

지난 3월 새만금 바닷길로부터 시작된 생명평화탁발순례단의 전북지역 순례가 4개월여의 장정을 마무리한다.

생명평화탁발순례단(단장 도법)은 전주지역을 끝으로 7월 8일 전북농업인회관 강당과 전북도청앞 광장에서 전북순례 회향행사 '전북생명평화 문화한마당'을 개최한다.

농업인회관에서 열리는 제1마당은 전북지역 순례에 대한 평가와 함께 풀어야할 숙제 모으기 등 순례를 마감하는 행사로, 전북도청 광장에서 열리는 제2마당은 생명평화를 향한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행사로 진행된다. 또 어린이 · 농민 · 종교인 · 문학인 등 순례단과 지역민은 함께 100배를 하며 생명평화를 서원한다.

한편 생명평화탁발순례단은 전북순례에 이어 7월 10일부터 22일까지 대전지역을 순례한다. 순례 중에는 강연회와 대화모임, 위령재 봉행 등을 진행하는 한편, 충남지역 순례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티베트 만다라 관정작법 시연
광주 향림사, 칠링 린포체 초청

광주 향림사(주지 혜향)는 오는 8월 31일 경내 불교회관에서 칼라챠크라 만다라 친견 티베트 성라마 칠링 린포체 초청 대법회를 봉행한다.

향림사 신도회와 한티베트문화교류협의회가 후원하는 이번 법회는 티베트 스님들의 만다라 관정작법이 시연된다. 이준엽 기자

지리산 공동체마을 체험마당
8월 2~5일 남원 실상사 등서

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8월 2일부터 5일까지 남원 실상사와 인드라망지리산교육원, 지리산 등지에서 '2006 청년여름마당-산내야 뭐하니'를 연다.

'나 그리고 공동체' '공동체야 뭐하니' '지리산 암자를 걸으며 느끼는 생명과 평화'를 소주제로 열리는 청년여름마당에서는 도법 스님과의 대화, 자아명상, 천연염색 체험, 발우공양, 춤세라피, 마음나누기, 마을 거닐기, 별빛 감상, 암자순례 등 3박4일 동안 공동체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www.indramang.org 박봉영 기자

광주불교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광주 혜룡사 장병 위문 공연 펼쳐

혜우 스님, 담양 공수부대서 … 지역 연예인 총출동

매년 군부대와 교도소, 독거노인 등 소외된 이들을 찾아 자비행을 펼치는 광주 혜룡사 주지 혜우 스님(미타종 종정)의 '나눔 수행'이 계속되고 있다.

혜우 스님은 지난 6월 29일 담양 공수부대를 찾아 장병위문공연을 펼쳤다. 금년으로 4회째 맞는 담양 부대 위문공연에는 한국연예인협회 광주 전남지회도 함께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연예인이 총출동했다.

이날 혜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장병들이 제역할을 다할 때 나라도 편안해진다"며 "군생활을 하는동안 힘들고 어려울때도 있지만 오늘처럼 좋은 마음으로 이겨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연에 앞서 라성호 여단장은 매년 위문공연을 펼쳐온 혜우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편 혜우 스님은 지난 5월 부처님오신날에도 담양 군부대 장병들에게 떡 1000명분을 전달하고 위문했다. 또한 스님은 연등 보시금을 모아 광주 동부경찰서 관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5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준엽 기자



광주 혜룡사와 연예인협회 광주전남지회는 6월 29일 담양 공수부대를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공연을 펼쳤다. 글 · 사진/담양=이준엽 기자

'새농촌 새농협 운동' 펼친다

전남농협불자회 창립



전남농협불자회(회장 강윤구)가 창립됐다.

광주 · 전남지역 농협중앙회 소속 불자 30여명은 6월 24일 광주 향림사 불교회관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부처님과 함께하는 새 농촌, 새 농협운동'을 전개키로 다짐했다(사진).

광주사암연 회장 혜향 스님은 법어에서 "전남 농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쌀이 개방되어야하는 현실에서 농촌에 힘이 되는 농협 불자회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창립법회에 앞서 열린 총회에서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 강윤구 광주공판장은 "전국 농협 불자회로는 마지막으로 광주 · 전남지역 불자회가 창립됐다"며 "정기법회, 산사체험, 기초교리 강좌 등으로 신심을 높이고 실천하는 불자가 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전남농협불자회는 중앙회뿐 아니라 전남지역 200여 농협 불자들도 함께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 이준엽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호남지사 :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화제의 신간 발간〉
- 천의선도 태종선사 김영생



천의선도는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 출간
- 책값 50만원 / 157페이지 삽입

건강을 원하든지 행복을 원하거든 천문을 열어라!!
몸이 아파 몸부림 치는 분, 몸을 편히 해주고 마음이 아파 몸부림 치는 분 마음을 편히 해주는 천하제일의 민중 의술. 기적의 천의선도를 전수시켜 드립니다.

몸 디스크, 허리디스크, 위하수, 갑상선, 생리통, 요실금, 전립선 이상자 등 통증부위에 생명의 에너지를 주입시켜주면 즉석에서 시원해지며 전립선이 좋아진 분은 정력은 물론 조루증까지 없어지며 요실금이 좋아진 여자는 천하제일의 몸으로 변신되니 남편 바람날 염려가 없는 신화 같은 기적의 치료법을 공개했다. 맥박 경락의 이름도 모르는 사람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천의선도를 전수받고 몇 시간 실습 강의만 듣고 나면 천하제일의 명의가 될 수 있다. 정신분열증, 전간(간질병)도 정상으로 회복된다.

전 세계 의료인에게 이 책을 권유한다
이 책은 영문판, 일어판, 한문판으로 출간해서 전 인류 건강을 위하여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을 전수시키려 한다.
현대 의학계에서 포기한 암환자, 재생불능성 빈혈환자를 정상으로 회복시킨 체험 사례와 약 제조법을 공개했다.

※ 전 가족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선단제조법과 은 용해법을 공개했다.
※ 선단은 상기되는 열을 하단전에 모아주고 막힌 곳은 뚫어주고 몸속의 독성을 중화시켜 체외로 배출시켜주며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니 여자가 복용하면 순환제요, 남자가 복용하면 팔십 노인도 이십대로 회춘된다.
※ 은 용해수는 몸속의 세균 바이러스를 질식시켜주며 축농증, 알레르기 비염이 1개월 안에 정상으로 회복되고 아토피성 소양증, 무릎 관절염, 손마디 관절염이 3,4개월 내에 정상으로 회복된다.
※ 사상의학의 팔상 분류법과 체질에 이로운 식품, 해로운 식품, 성격, 적성, 체질따라 보사법을 수록해 놓았다.

이만하면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이라 하지 않겠는가?
※ 천하제일의 명의가 되는 과정
① 천문을 열고 하늘의 서기(생명의 에너지)가 당신 몸에 충만할 때 자연의 신비에 감탄하는 순간 빙의된 조상신이 떠나게 되니 몸이 거뜬해지고 집안이 편안해지며 하는 일이 서서히 잘풀린다.
② 환신을 받아 인당이 열려야 당신의 마음따라 생명의 에너지가 목적지에 발산한다.
③ 실습강의 1시간 듣고 나면 당신손으로 디스크 환자를 즉석에서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명의가 된다.

나는 정부당국에 묻고 싶다
현대의학계에서 포기한 환자를 민중의술인이 회복시켰다면 상을 줄 것인가? 벌을 줄것인가? 의료법은 국민건강을 위한 법인가? 의료인을 위한 법인가? 국민건강을 위한 법이라면 민중의술인에게 상은 주지 않더라도 활동 규제를 풀어 줄 수 있는 법적 대안을 마련해 주시라는 호소를 합니다. 이 호소를 묵과한다면 분면 국민을 위한 정부는 아닙니다. 나는 첨단과학의 의술앞에 공개 검증받고 싶습니다.

천의선도 대체의학 연구원 원장 김영생

■ 본원
● 주소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89-1
● 전화 : 041)741-4600 / 011-9803-4600
■ 서울 수련원
●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 5동 483-39 삼용빌딩 403호
● 전화 : 02)2216-6278 / 011-9803-4600 / 010-3129-6278
■ 부산 수련원
● 주소 :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베르빌오피스텔 1821호
● 전화 : 051)803-5953 / 011-9803-4600

※ 계좌번호 : 하나은행 382-810082-33207 김영생

세계 여성불자 연대 확인

제9회 사카디타대회 참관기

– 이화 불교여성개발원 사무국장


<반야심경>을 봉독하는 한국 비구니스님들과 여성불자들.

말레이시아 푸총시 수성림(修成林)에서 열린 제9차 세계여성불자대회(9th Sakyadhita)는 '세계 다문화공동체 내 여성불자들의 모임(Buddhist Women in a Global Multicultural Community)' 이란 주제로 6월 17일 개회식에 이어 4박 5일간의 본행사와 2박 3일의 사찰순례로 진행됐다.

이번 대회에는 25개국에서 외국인 184명(비구니:127, 비구:2, 재가불자:55), 말레이시아인 346명(비구니:34, 재가불자:312) 등 총 530명이 참가했다. 한국은 50명이 참가했다(비구니:26, 재가불자:24).

대회는 아침명상, 오전 발표, 그룹토론, 오후 발표, 워크숍, 저녁예불, 문화공연 등으로 이어졌다. '부처님의 딸들' 이라는 뜻의 사카디타(Sakyadhita)는 1987년 인도의 보드가야에서 결성돼 격년제로 열린다.

■ 학술대회

샤론 수(재미교포, 미국 시애틀대 교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9개 부문으로 나뉘어 47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샤론 수는 "서양문화권에서는 참선만을 불교전통으로 한정한다. 참선으로 축소 · 상품화된 불교로 전락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교의 사회적 참여나 정의 수행이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관심을 끈 것은 잠파 체드론(티베트 승려)의 논문 '비구니 율장과 여성 구족계 : 비구니 법맥의 전수' 이다. 논문을 통해 "달라이라마의 2005년 티베트불교 비구니계 복원 기금 후원, 2006년 서양비구니위원회의 비구니 법맥 복원 연구 요청, 티베트 정부의 비구니 연구 종결 요구 등 비구니 법맥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런 일들에 대한 결과는 2007년 7월 함부르크에서 열릴 비구니율장 및 수계법맥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정희 불교여성개발원 자문위원은 '불교, 무속, 한국역사 속에서의 여성' 주제 발표에서 "1600년 동안 생명철학으로서의 불교와 불교를 받아들인 무속은 공존이 가능했다"며 "특히 굿은 가부장적 억압에서 살아남으려는 여성들의 영혼의 소리이며 이야기"라고 한국 불교가 관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로 토속신앙을 수용해온 과정을 설명했다.

본각 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은 제8차 한국대회가 각국의 다른 불교전통과 문화를 이해하는 신뢰의 장이었음을 전제하고, 불교여성개발원의 주요활동과 전국신도회장에 처음으로 여성불자가 만장일치로 추대된 사실, 전국비구니회의 국제불교를 향한 활동 등을 소개했다.

이향순 교수(미국 조지아대)는 '영화 속의 불교 이해' 에서 김기덕 감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이 불교적인 것을 담고 있지만, 그 내용은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혜선 스님(한마음선원 · 선학 박사)은 '불법을 노래로 : 음악을 통한 수행' 이라는 논문을 통해 '선의 가르침에 대한 노래' 라는 선법가는 한마음선원의 설립자인 대행 스님이 창안한 것으로, 선수행의 한 형태이면서 대사회적 의사소통의 매체, 사회적인 차원에서 자비행의 방편이 되고 있다"고 선법가를 소개했다.

각국의 전통예불의식으로 진행된 폐회식에서는 감사패가 증정됐다. 모든 중생이 평화롭게 조화롭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촛불공양 의식을 끝으로 다음 대회지인 몽골에서 만남을 약속한 채 아쉬운 작별을 고했다.

■ 사찰순례

개최국인 말레이시아의 불교도는 전체종교인구중 17% 정도이다.

본 대회 기간 중 방문한 스리랑카 사찰인 부디스트 마하비하라에는 한국에도 잘 알려진 스리 담마난다 스님이 주석한다. 얼마 전 뇌졸중으로 쓰러져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고 나타난 스님은 인상 깊은 메시지를 전했다.

25개국 530명 참가… 명상 · 토론 등 진행
말레이시아 사찰의 대민봉사 모습에 감동


6월 17일 개회식.


분과 토론에 나선 세계 각국 참가자들.

이번 대회의 실질적인 실무를 총괄한 부추진위원장 루파 와티가 이사찰의 자원봉사여성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대회의 전반적인 준비도 마하비하라에서 이루어졌다.

본격적인 사찰 순례는 불교사찰이 많은 이포, 페낭, 멜라카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말레이시아의 불교는 재가불자들이 활발하게 사찰운영에 참여한 어린이 포교와 교육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다.

대민봉사에 적극적인 말레이시아 사찰은 지역주민과의 의사소통 · 교류에 중점을 두고 불교가 지역주민들의 삶에 어떠한 도움을 줄까를 고민한다. 마지막으로 사찰이 불교와 사찰 홍보에 적극적이어서 부처님 말씀과 사찰 소개 영문 소책자를 무료로 배포했다.

■ 참관후기

처음 말레이시아에 도착했을 때 40도를 웃도는 날씨와 강당에 매트를 깔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야했기에 난감함을 느꼈다. 그러나 이런 불편함은 하루가 지나자 놀랍게도 적응이 됐다. 이는 여성불자라는 연대감에서 느껴지는 편안함이 아니었을까.

특히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한국교민들이 운영하는 포교당 반야원 신도들이 김치와 밑반찬을 챙겨주며 해준 격려와 자원봉사자 김샛별 학생의 봉사, 통역을 맡아준 박찬응 · 진우기 · 이향순 선생의 노고는 잊을 수 없는 고마움이다. 사찰순례 중 박찬응 교수(미국 오하이오주립대)의 판소리를 시작으로 한 즉석 음악회를 통해 태국 매치(여승)들을 위해 1055달러가 모금되는 이벤트도 있었다.

스리 담마난다 스님의 말씀으로 글을 마친다.

"여성불자들이여, 일단 방문을 열고 눈을 감고 참선하라. 그리고 방문을 활짝 열고 나와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보아라!"

사진제공=불교여성개발원

더 많은 사진 보기 buddhanews.com



도선사-금강사 아름다운 인연



도선사 부조실 현성 스님이 6월 25일 호국 금강사에서 열린 천도재에서 영가법어를 하고 있다.

23년전 사찰건립 물심양면 돕고
6 · 25 전몰장병 천도재 매년 후원

군법당에서 봉행되는 6 · 25 전몰장병 천도재를 23년간 후원한 사찰이 있어 화제다.

조계종 군종교구(주지 일면)가 주최하고 5군단 호국 금강사(주지법사 김갑영)가 주관하는 제23회 6 · 25 전몰장병 및 희생영령 합동 위령 천도대재가 서울 삼각산 도선사의 후원으로 6월 25일 금강사 대웅보전에서 봉행됐다.

도선사가 호국 금강사와 인연을 맺은 것은 1984년 당시 군단장이었던 정동호 장군이 호국 금강사 설립을 발원했고 도선사가 사찰 건립을 위해 물심양면 도움을 주면서부터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도선사 부조실 현성 스님은 호국 금강사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신도들과 함께 매년 6 · 25만 되면 항상 호국 금강사를 찾아 전몰장병 천도재에 동참하고 정기적인 후원을 하고 있다.

이성출 군단장은 추모사에서 "선배 전우들의 호국수호 정신이 오늘날 우리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원동력"이라며 "호국 영령들의 값진 희생의 뜻을 되새겨 다시는 이땅에서 동족상잔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천도재의 의미를 설명했다.

현성 스님은 "호국 금강사 설립에서부터 지금까지 매년 천도재를 후원하며 선조들의 호국 불교의 정신을 잇고 있다"며 "특히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않고 희상당한 모든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추모하는 것은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일이므로 매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글 · 사진/포천=김두식 기자

9여단 호국 구광사 낙성

11사단 9여단 호국 구광사가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을 증명법사로 6월 24일 낙성 및 점안 법회를 갖고 호국 도량으로 거듭났다.

9여단에는 원래 호국사라는 조그마한 법당이 있었으나 이곳에서 군종병으로 근무했던 지상 스님과 장병 불자들이 서원을 세워 법당을 허물고 새로 신축을 하게 됐다. 법당 이름도 호국사에서 김병관 1군 사령관과 군법사들이 뜻을 모아 호국 구광사로 명명했다.


호국 구광사 표지석을 제막하는 모습.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 · 불교단체 포함)' 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계를 갖춤으로써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동참하나

▷**결연** :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군법회 위문** : 소외된 군법회를 위문.
▷**군법당 건립 후원** : 낡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정기적 물품 전달** : 군법당, 군불자에 후원품 전달.
▷**법사 지원** :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동참 및 문의** : 조계종 군종교구 (02)797-7266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후원 계좌안내** : 006-25-0023-989(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477401-01-092896 (국민은행, 예금주 군종특별교구)

신설 군법당 부처님 무료로 모셔드립니다
불모 허길량씨 후원 석가모니불상(재료:銅) 문의:02-2004-8291

만 인 동 참 ARS : 060-700-0108 당신의 후원이 군불교를 살립니다

http://ad.buddhapia.com

불교 최초 실시간 온라인광고 사이트
애드부다피아!!

인터넷세상, 이제 불교계도 모든 광고와 정보를 인터넷으로 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해야 하는 사찰관련 홍보나 행사, 법회안내, 그리고 급하게 구하는 구인구직자리....
아직도 신문이 나오는 날짜만 기다리며 광고를 하십니까?

이제 애드부다피아를 통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광고의 본질적인 효과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빠른 속도로 실시간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간지인 불교계의 신문에 광고를 하려면 최소 1주일에서 많게는 2주 이상이나 광고접수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홍보기간이 중요한 법회나, 행사 등과 관련한 광고의 경우에는 원하는만큼의 광고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애드부다피아는 실시간으로 바로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급박하거나 홍보기간이 중요한 광고에서 최대효과를 약속합니다.

광고 신청도 빠르고 편리합니다!
일일이 전화나 팩스로 광고를 신청해야 하고 또 광고문안이 나오면 다시 확인, 수정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애드부다피아는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또 바로 온라인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부다피아, 붓다뉴스가 함께 합니다.
국내 최대의 불교포털사이트-부다피아, 국내 최대의 불교 인터넷 뉴스 -붓다뉴스와 함께하는 부다피아는 이미 불교계에선 국내 최대의 방문수를 자랑합니다. 애드부다피아는 이러한 부다피아, 붓다뉴스와 상호연계하여 광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최다노출을 극대화할 수 있어 가장 높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광고와 함께 풍부한 정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정된 공간으로 인하여 많은 정보를 보여줄 수 없었던 지면광고와는 다르게 애드부다피아에서는 표현하고 싶은 광고의 모든 컨텐츠를 담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물론, 보다 역동적인 동영상 서비스로도 광고를 할 수 있으며 언제라도 수정, 보완이 가능한 편리한 광고 시스템입니다.



[광고접수 문의] http://ad.buddhapia.com / admaster@buddhapia.com 전화 : 02)2004-8213~7, 02)732-1522(직) / 팩스 : 02)737-0696

대구불교방송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부처님 자비 하나님 사랑 만났습니데이~

경북 예천 불교-천주교인 한마음 큰잔치


예천지역 스님과 신부, 수녀, 불자와 천주교 신도들은 지역 화합을 위해 함께 체육대회를 연다. 스님과 수녀들이 피구경기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게임을 앞두고 대기하고 있는 불자-천주교인.


공을 피하다 엉덩방아를 찧은 수녀님.



경기를 지켜보던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게임에 나섰다.


흥겨운 장단과 춤사위로 분위기를 띄우는 풍물패.

6월 25일 경북 예천군 예천초등학교 실내체육관은 웃음과 화합의 바다였다. 독일 월드컵 16강 진출이 안타깝게 좌절된 전날의 찜찜한 기분이 말끔하게 걷힌 날이었다.

정오가 되자 비구 비구니 스님과 신부 수녀님 그리고 불자들과 천주교 신도 300명이 체육관을 가득 메웠다.

제4회 불교 · 천주교인 한마음 큰잔치가 벌어진 것이다. 지역 불자들과 천주교인들의 화합을 다지고 함께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예천 불교 정법회(회장 남시우)와 예천 천주교회 사목회(회장 장국희)가 매년 주최해 오는 행사다.

지난해에는 열리지 못해 아쉬움이 컸는데 올해 다시 열려 더욱 기쁜 자리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난해 새롭게 결성된 예천불교청년회(회장 최순식)가 불교 측 주최로 나서 불자들에겐 또 다른 의미가 있다.

불교계에선 예천불교사암연합회장 청안 스님을 비롯한 지역사찰 스님과 불자 150여명이 참석했고, 천주교계에선 예천성당 정희욱(대건 안드리아) 신부님을 비롯한 수녀님과 사목회원 150여명이 참가했다.

엉덩방아 찧어가며 투혼

두 종교인들이 만난 것은 정오.

'금강산도 식후경'이고 '금강경도 식후독'이라고 했든가? 먼저, 예천 성당에서 준비한 맛있는 국수 한그릇에 참가자들이 마음과 마음을 풀어놓으며 하나가 됐다. 재작년 행사 때는 불교계가 음식을 준비했으니 이번에는 천주교측에서 음식을 준비했다. 불교계는 대신 홍보와 기획 진행을 맡았다.

오후 1시, 드디어 '빅매치'가 시작됐다. 개회식에 이어 먼저 벌어진 경기는 배구.

"불교, 불교 파이팅!!!"

"천주교, 천주교 파이팅!!!"

경기가 시작되자 몸을 부딪치며 함께 웃고 소리지르는 가운데 한마음큰잔치의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비구니스님과 수녀님이 함께 맞잡은 손은 뜨거웠고, 하나로 녹아드는 웃음은 시원했다.

남자 5명, 여자 4명이 한 팀을 이뤄 겨룬 배구는 천주교팀이 앞섰다. 그러나 족구는 연방사 일봉 스님의 맹활약으로 불교팀이 이겼다. 비구니스님과 수녀님 각각 2명씩이 포함된 가운데 진행된 피구는 수녀님이 엉덩방아까지 찧어가며 투혼을 불살랐지만, 몇 차례나 공을 낚아챈 명봉사 희광 스님과 월명사 나현 스님을 당해내진 못했다. 매 경기마다 출전하는 스님과 신부님, 수녀님들의 빛나는 투혼은 웃음과 화합의 촉매역할을 하기에 충분했다.

응원전도 대단했다. 신나는 함성소리가 그칠 새 없이 울려 퍼졌고, 아쉬운 탄식도 흘러 나왔다. 정희욱 신부는 경기 사이사이 풍물패와 함께 특유의 코믹 춤사위를 선보이며 분위기를 리드했다.

이에 질세라. 예천사암연합회 부회장 도문 스님도 경기마다 사력을 다해 동참하고, 응원했다.

" 할매 할배 다 모이소!"

어르신들을 위한 배려의 마음도 돋보였다. 실내체육관 앞 강단 위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특석이 마련돼 있었고, 100여명의 어르신들이 편히 경기를 관람했다. 또, 각 팀별 20명의 어르신들이 30여 미터를 달려가 밧줄에 매달린 뻥튀기 과자를 먹고 돌아오는 릴레이 경기에도 참가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불교, 천주교 할매 할배 다 모이소!"

"천주교 할배는 나왔는데 불교 할배는 없니껴? "

두 종교 성직자 · 신도 300여명 모여 체육대회
경기 사이사이 풍물패 코믹 춤사위 분위기 업~


예천지역민들과 함께 한마음이 되어 줄다리기를 하는 스님들의 표정이 밝다.

사회자의 구수한 멘트에 이끌려 체육관 한가운데로 모인 예천 어르신들의 릴레이는 시골마을잔치의 진풍경을 드러내며 인기를 끌었다. 수줍은 듯 손으로 입을 가리고 못한다며 손사래를 치던 할매의 달음박질은 일품이다. '내 체면에 뛸 수 있냐'는 듯 할배들의 점잖은 걸음걸이 릴레이는 보는 이들이 배꼽을 잡게 했다. 뻥튀기 과자를 따 먹는 모습도 각양각색이다. 밧줄을 꼭 잡고 먹는 할매, 손으로 냉큼 따서 먹는 반칙왕 할매도 있다.

"하나 둘 셋 넷…스물일곱"

7명의 선수가 함께 뛰는 줄넘기. 불교팀은 뛸 때마다 스물을 넘기는데 천주교팀은 열을 넘기가 어렵다.

"절에 모여 줄넘기만 한 모양일세"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농담에 웃음바다가 됐다.

뭐니뭐니해도 체육대회의 꽃은 줄다리기. 불교팀은 사암연합회 부회장 도문 스님과 용화사 천호스님, 정법회 남시우 회장이 맨 앞에 나섰고, 천주교팀은 정희욱 신부님과 수녀님이 앞에 나섰다. 징소리와 함께 밧줄이 팽팽히 당겨졌다. 시작하자마자 천주교팀으로 밧줄이 쑥 당겨지는가 싶었는데 불교팀이 마지막 괴력을 발휘했다. 불교팀 승.

"절에 모여 줄넘기만 한 모양일세. 껄껄"

이렇게 운동경기로 한 호흡을 하던 경기가 모두 끝나고 장기자랑과 행운권 추첨이 이어졌다.

"부처님과 하나님께 영광을."

짧은 인사를 하고 도일 스님이 뜨거워진 열기를 식히려는 듯 기타를 들고 무대에 나섰다. 그러나 열기는 더해만 간다. 스님에 이어 신부님이 노래 할 차례다. '일송정 푸른 솔'을 부르는 순간 오빠 부대의 환호가 체육관을 가득 채웠다.

"천주교신자들에게는 예수찬미, 불자들에게는 아미타불."

예천지역의 '명가수' 일봉 스님이 노래할 때는 스님과 신부님 수녀님이 재가신자들과 함께 나가 덩실 덩실 어깨춤으로 어울렸다. 성직자의 위의도 잠시 내려놓은 채 모두 하나가 됐다.

예천불교사암연합회장 청안 스님은 "자신의 신앙에 집착한 나머지 종교간 반목을 가져오는 슬픔이 벌어지는 이때 하루의 체육대회를 통해 모두 화합된 모습으로 함께 할 수 있었다"며 기뻐했고, 정희욱 신부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만남이었고, 부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움틔우는 종교인이 하나 되는 자리였다"고 만족한 미소를 보였다.

상품 한아름 받아가니 흥이 난다

예천불교청년회 최순식 회장은 "사랑과 자비라는 아름다운 정신을 지키며 두 종교인들이 진실로 열린 마음으로 신앙의 본질을 찾아 좀 더 참다운 삶을 영위하는 밑그림을 그린 날이었다"고 말했다.

비록 반나절 짧은 시간이었지만 예천의 불교 천주교인들은 마음가득 부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가되는 즐거움과 행복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추억이다. 게다가 행운권 추첨을 통해 선풍기, 자전거, 이불, 모시속옷, 양파, 스님이 기증한 반야심경 액자 등 이날 행사를 위해 불교 천주교 측에서 십시일반 기증받은 푸짐한 상품도 한 아름씩 받아가니 흥에 흥이 더해진다.

글 · 사진/예천=배지선 기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열침의 효능 은행석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 의료용구 개인용 온열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전자기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전 인증서 : HH07236-5004A호
● 삼성화재 배상보험가입
● 특허청 실용실안출원
● 전자파 장애실험필
가격 245.000원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원적외선 "침"의 효능/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북한3대 특산품의 금강약돌이 주성분인 최고의 기능성 건강 치료기 은행석 온열복대는 34개의 금강약돌 볼이 70~80℃이상의 고열이 발생 화상 없이 뱃속 깊숙이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침투하여 원적외선"침"을 맞는 효능으로 쑥뜸보다 간편하며 효과적인 복대방식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복대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만 있어도 장속의 노폐물 배출. 하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통, 냉대하등을 자연 치유력 하며 당뇨 및 성기능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우수한 의료기기 입니다.
날씨가 더울수록 배(오장육부)는 차가워 집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인증 은행석 온열복대의 효능
※ 오랫동안 참선기도 하시는 분 ※ 허약한 氣회복
※ 생리통 허리통증 완화 ※ 아랫배가 냉하신 분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산후조리, 수술후 요양중인 분에게 적극권장
※ 의자에 앉아 장시간 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수험생의 디스크 허리교정
원적외선 "침"의 효능/가격은 최저 효능은 최고
오장 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고열의 원적외선 "침"이 뱃속 깊숙이 침투 뜨겁게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는 신비한 제품으로 허리, 발바닥온열 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안전하고 편리한 다용도의 은행석 온열복대는 꾸준히 사용하시면 건강도 지키며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고 장수합니다.
암을 예방하는 WBH 치료법을 응용한 온열복대
미국, 독일, 일본등에서 처음 시도되었던 FIRWBH(원적외선 전신온열)이 최근 한국 암재활 센터에서도 소개되고 있다. 환자의 전신을 42℃까지 가온시켜 1시간동안 유지하는 과정중에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여 치료하기도 하며 약물요법과 병합으로 암치료 효과를 높여주는 치료방법이다.
은행석 온열복대는 80℃의 고열이 발산 원적외선이 뱃속 깊숙히 침투하여 췌장까지 42℃의 열을 가온시는 의료기입니다.
문의전화 : 닥터금강 (02)3210-3178,9 www.dk21.net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불교인재개발원은 설립대회를 앞둔 6월 20일 '대승기신론과 CEO 철학'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열었다.

"바로 보고 바로 알아야 CEO"

불교인재개발원 '대승기신론과 CEO 철학' 포럼서 허달 씨 강조

경제적 이익을 발생시켜 돈을 벌어야하는 기업이 '무소유'로 상징되는 불교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나아가 절대적인 정신의식 '일심(一心)'의 환원이 곧 깨달음이라고 설파한 <대승기신론>이 CEO의 경영철학에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개발원이 설립대회를 앞두고 개최한 정책포럼에서 '대승기신론과 CEO철학'을 발표한 허달(63) 한국화인케미칼 상근고문은 "CEO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반드시 알아야한다"며 "부처님은 시대를 불문하고 가장 훌륭한 리더의 면모를 갖췄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부처님의 리더십 벤치마킹

"<대승기신론>에서 말하는 신(信)은 맹목적 믿음(belief)이 아니라, 무엇이든 철저히 따진 후에 얻는 확신(conviction) 또는 신념(confidence)을 뜻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CEO들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 근거는 무엇인가. 허달 한국화인케미칼 상근고문은 "경영자의 철학 속에는 경영의 목적을 가능하게 하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데, 그 '무엇'은 기업의 모든 이해당사자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윈-윈(win-win)의 관계를 이루어나갈 수 있게 한다"며 "그 '무엇'은 CEO의 리더십이라 할 수 있으며, <대승기신론>에서 제시한 신(信)과 상통한다"고 밝혔다.

윈-윈 되게 하는 지도자 리더십은 대승기신론의 信
"구도자나 CEO 모두 바로보기(正見)가 생의 나침반"

리더십을 강연의 화두로 끌어낸 허달 고문은 대승기신론과 CEO 또는 리더의 연관성을 '바로 보기(正見)'에서 찾았다.

<대승기신론>이 구도자에게 정견(正見)을 세워줌으로써 불생불멸, 진여를 향해 생멸세계를 건너도록 인도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대승기신론이 구도자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듯 CEO의 리더십도 경영의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는 나침반과 같다"는 것이다. 따라서 "CEO는 '자신-인간관계-상호의존성의 시너지'로 이어지는 인간관계원칙을 바로 보고, 알고, 실행하기 위해 리더십을 함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달 고문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저술한 리더십의 권위자 스티븐 코비 박사의 사례를 부처님의 리더십을 가장 가깝게 벤치마킹한 사례로 꼽았다.

◇win-win 마인드

<대승기신론>에서는 생로병사의 근원적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승의 믿음으로 신앙과 신심을 들었다. 신앙은 불보살과 선지식에 대한 믿음이고, 신심은 자기안에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진여불성(眞如佛性)을 믿는 것이다. 괴로움의 자각으로부터 출발한 믿음이 바른 견해를 갖추었을 때 신앙과 신심을 일으키게 되고, 비로소 수행이 시작된다고 보았다.


▮허달

1966년 SK화학사업부문(당시 대한석유공사)에 입사해 32년간 근속했다. 1998년에는 SK아카데미에서 기업문화와 리더십 · 변화관리 과정을 강의했으며, 2002년 다시 경영일선으로 돌아왔다. 미국 컨설팅회사인 Chem Systems 한국대표와 한국화인케미칼 대표이사 사장(2003~2006)을 역임했다. 서울 불이선원 원각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불교인재개발원 설립에 참여하고 있다.

허달 고문은 대승의 믿음을 일으키는 과정을 CEO들의 필수코스인 '7Habits' 리더십 프로그램과 연관시켰다.

"의존성의 단계를 '네 탓이오'로 점철된 이기심 가득한 중생계라 한다면, 독립성의 단계는 구성원 하나하나가 리더십을 연마하여 일정 수준의 주도성을 확립한 개인승리의 단계, 상호의존성의 단계는 구성원 모두가 윈-윈(win-win)의 마인드를 갖고 대인관계 리더십을 구현하여 그 성과와 시너지를 공유하는 자리이타의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CEO에게서 7H 가운데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한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삶이다'라는 확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허달 고문은 끊임없이 자신과 외부세계를 바로 보고 바로 아는 연습을 하는 것은 수행과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붇다의 경제학 (11)

그릇된 집착

우리는 황금만능주의를 비판한다. 돈을 벌기 위해 모든 윤리, 도덕을 팽개치는 세태를 한탄한다.

그러나 우리들은 사람들이 이렇게도 깊이 돈에 탐닉하고,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 깊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단지 더 좋은 집에 살기 위해, 더 좋은 옷을 입기 위해, 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라는 설명으로는 많이 부족하다.

언론에 구체적 통계치가 공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사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기아선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린 학생들이 돈이 없어 끼니를 제대로 해결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수많은 가정들이 가난으로 파괴되고 있다.

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물어보라. 돈이 왜 필요하냐고.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말할 것이다.

이번에는 부자에게 돈이 왜 필요하냐고 물어보라. 여러 가지 답을 말하겠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우리 인간은 죽지 않기를 원한다.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욕구이다.

일체가 무상(無常)하여 우리가 생로병사의 고통을 면할 수 없고, 무아(無我)이기 때문에 죽을 나도 없지만, 무명(無明)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의식을 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모든 행동의 근저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다.

그렇지만 이대로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죽음 앞에 무력하게 서 있을 수만은 없는 것 아닌가. 무엇인가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는가.

현명한 사람은 연기법과 사성제를 깨달아 죽음을 떠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 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밖에 있는 물질에서 해답을 구한다.

어리석은 우리는 죽지 않기 위하여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외적, 물질적 조건들이 나의 생존을 위해 유리하게 만들어지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나의 생존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돈을 버는 것이다. 돈으로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는 무한대의 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돈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세상의 돈을 다 가져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어리석게 돈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다.

재물 다 가져도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
일체무상 알때 우리의 경제 개념도 변해
불성 찾아 영원한 생명 얻는 노력해야

우리의 돈에 대한 욕심은 그 끝을 모른다.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도 없다. 죽는 그 순간까지 죽지 않기 위하여 돈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일체가 무상(無常)하여 무아(無我)이고, 그래서 일체가 고(苦)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경제활동, 특히 돈을 대하는 태도는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외적인 조건을 변화시켜 나의 삶을 연장시키려는 노력 대신에 자신 안의 불성을 찾아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는 노력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우리의 경제활동은 자신의 불성을 찾아 떠나는 여정의 여비를 마련하는 노력으로 전환될 것이며, 그러한 경제활동은 충분함을 아는 그래서 만족할 줄 아는 삶과 연결될 것이다.

돈에 대한 집착은 다름 아닌 바로 나에 대한 집착, 나의 삶에 대한 집착이다.

그러나 그 집착은 내가 진실로 원하는 것을 가져다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릇된 집착이다. 불성을 찾고 열반에 도달하고자 하는 치열한 노력만이 우리의 만족할 줄 아는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구병진(경영학 박사)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문화상품전문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732-1520

연당초 우산



가격: 장우산 18,500원
2단우산 17,650원

연당초 우산은 불교의 상징인 연꽃문양을 현대적 감각으로 되살린 실용제품입니다. 우산의 연꽃문양은 문화재전문위원인 청원 스님이 개발했습니다. 동판에 무늬를 새겨 원단에 찍어내는 나염우산이며, 재질은 실크원단을 사용하였습니다. 우산대와 손잡이는 단단한 원목을 사용해 매우 실용적입니다. 100개 이상 대량으로 주문할 경우 사찰명 또는 단체명을 무료로 새겨 드립니다.



세로 88cm 가로 58cm

소재화 수월관음도

가정의 재난과 고통과 액운을 소멸

세함에 감탄을 한다. 험한 세상 자손대대로 인녕과 번영을 지키는 불자가정의 수호신인 수월관음도는 조계종 종정상과 대통령상, 한국불화대전 대상을 수상한 불화의 명장이신 靜性 金義雄 화백께서 3년간 기도와 영험으로 그린 불화로 100% 천연코튼 한화지에 28도 한화와 베를린 왁시를 사용해 자자손손 후손에게 물려줘도 변색되지 않게 제작 했으며 최고급 2단 돌출표구로 거실 또는 사업장에 모시면 대단히 품위가 있는 세계가 찬탄한 영험의 불화다.

불자가정의 3대 가보중 첫번째인 수월관음도는 뒷면에 카필라 불공사의 보증서와 자자손손 후손에게 물려줄수있는 소장인판이 있다. 영험이 나타난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카필라 불공사에는 가보로 구입하는 분과 아들딸 자녀에게 한점씩 주기도 하고, 새집이사 선물로 구입하기도 하는 등 지난번 KBS 역사 스페셜 수월관음도 방영 후 전화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특급택배로 보내주고 있으며 점안불공을 마친 수월관음도를 받으면 육육재개하고, 정한수놓고, 삼배하면서 갖가지 소원기도 한다음 거실또는 사업장에 걸면 영험이 시작된다. (가격 195,000원)

■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http://club.cyworld.com/kapilla

불자가정의가보로 안녕과번영의수호신

무명의 어둠을 밝게 비춰주는 수월관음도는 세상 사는동안 모든 재난과 고통과 액운을 소멸하고 오는 생에 좋은과보와 무량대복을 주고자하는 자비로운 구제자의 영험을 보여주는 소재화다.

소재화인 수월관음도는 받아보는 순간 누구나 두번 감탄을 한다. 첫째는 처음 느끼는 영험에 감탄을 하고 둘째는 섬

용어 해설

● 수월관음도 (水月觀音圖)
관세음보살 부처님의 모습이 그윽한 연못위에 비치는 달처럼 무명의 어둠에 있는 중생들에게 자비로운 구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불화다.

● 소재화 (消災畵)
불교에서 소재화란 모든재난과 고통 액운등을 소멸하고 예방한다는 불화 그림을 말한다.

평생 부자지갑

옴마니반메훔 평생福 지갑

존경하는분께 사업 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 부자의 선물!

놀라운 재물과 재운을 얻고 문제는 팔길상이 해결!



남성용중지갑 (검정,밤색)
여성용롱나노 장지갑(적색, 진보라색)

넣고 지갑내부에는 건강장수의 팔길상"반장"을 넣었으며, 풍세남북의 돈을 모으고 가지고 있는 돈이 헛되이 나가지않는 팔길상"보병"도 넣였다.

옴마니 반메훔지갑을 이성이 지닐때 가장이 번영하고 건강하며 금전적 어려움이 해결되어 항상 풍요롭게하고 음양의 조화로 부부관계가 돌랍게 회복되는 비방의 영험도 나타나게 했다.

"카필라"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탄생하시고 왕세자를 하신 고대국가 이름이며 전화로 신청할때에 지갑사용하실분의 성별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새벽 특별 축원불공을 해드린다.

고급케이스에 입어 선물로 품격이 있으며 여성용장지갑 95,000원 남성용중지갑65,000원 전화로 신청하면 보내준다.

■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http://club.cyworld.com/kapilla

점안식과 축원불공 마쳐 지니는 순간부터 영험의 신통력!

옴마니 반메훔, 육자대명왕진언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다림 신중에 계실 때 가난으로 헐벗고 고통속에 있는 중생과 병고로 시름하고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불광의 비방으로 옴마니반메훔 육자대명 왕진언을 설하셨다

그후 가난한 중생은 평생부자로 공덕을 짓고 살았으며 병든자는 밝기 어려울정도로 건강을 회복하였다. 넘경에 입각해 법구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카필라 불광사에서 탤리 입어나라는 뜻에서 700일의 축원기도와 영험으로 제작된 옴마니반메훔 평생 복지갑은 영험이 나타나게 점안식 까지 마쳐 출시 30일만에 영험을 받은 불자들로부터 입소문을 통해 구입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자녀들에게 하나씩 갈라고 몇 개씩 구입하기도한다.

최고급 천연가죽에 은나노처리를 한 옴마니반메훔 평생 복지갑은 일반지갑과는 비교될 수없게 제작했으며 지갑앞면에는 음양의 조화로 만사가 형통되는"육자대명 왕진언"을

점안식과 축원불공 용어해설

점안식은 부처님의 불상, 진영, 법구등에 큰스님을 모셔 부처님의 영혼이 나타나게 하는 불교의식이며 축원불공은 부처님 법구가 들어있는 상품등을 사용하는 분의 소원과 소원을 이루게 하는 불교 의식이다.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2004-8213~6, 02) 732-1522
FAX 02) 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방편비법전수

침술한약	급소를 활용하라 ※ 치료, 처방, 진단에 통달할 분
사주역학	핵심 및 통변의 달인이 되라 ※ 배워도 배워도 답답하신분
영가빙의	전생을 보고 귀신을 부려라 ※ 천도방법과 치유능력을 원할분

※ 만성병 상담 및 출장교육가능함
011-1737-2882

사주주역강의
사주통달하게 찝어주는 책임지도
명리를 정확하게 풀어야만! 정말 사주쟁이
역학 연구원 금강원
H·P011-9769-8868

경남 최고의 염불

천도재	예수재	점안식	바라춤	나비춤	태평소

수행과 보시로 집전대행
밀 양 055)391-3274
강정사 011-869-8560

척추 허리,어깨,목,무릎
짝다리,탈골(만성고질통증),
체형교정사주,작명,풍수지리
빙의 (신들림) 출장가능
활법,기공최면,전생,
급방 천도 **전문 해결사**
02)835-2399
011-817-3387

역학개인지도
명리,성명,택일,풍수
쉽게 풀어보는 명리첩경
著者 반야선원 혜공 합장
02)421-8494
017-606-6628
(전화 상담도 함)

회심곡.천도재.49재.바라.태평소
학인스님 행자모집
범음범패 교육도량
인간문화재 9호 이수자
마산 밤밭고개 세원암
016-428-6665
055)222-9486 천우 합장

사찰의 각 행사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 회심곡, 호적
행사문의
010-4870-8359
범음범패 연수원장 덕산 합장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49재 회향	바라무	점안식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눈 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노환으로 작은글씨 안보이시는 분 눈흐림, 눈건조, 눈부심, 침침함, 눈빼빼함, 눈곱, 충혈, 시력강화, 렌즈착용 하신분 섭취하고, 반응 없을시 100% 환불
구입문의 (02)2631-2205,1305

팔자를 알아야 성공한다
명리 6개월 무료강의
정락스님 직강
032)662-5701
010-3448-6612

범음범패 의식 해드립니다

점안식	천도재 49재	수륙재	예수재	바라나비춤	사물	각종의식

학 인 행 자 모 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어렵게 사찰불사 창건 하시는 스님께 안내
후불목탱, 신중목탱, 칠성목탱을 스님 사정이 어려워 아직 준비가 안되신 스님은 답사하시어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반 값도 안되는 가격에 인연 바람
목탱 평수는 대작임
010-3166-8483

통도 바라춤, 작법무(나비춤)
(살풀이, 승무, 지전춤 외 모든 한국무용)
각 사찰 행사에 정성으로 장엄해 드립니다
도림 불교 무용 예술원 부산지부
원장 연지심 합장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643-83 정원빌딩 內
051)515-7865
019-502-8868
통도 바라춤, 작법무 수강생 모집 中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신기한 - 악침요법
지압 뼈 교정법
개인지도 수강생 모집
스님 직접 강의함
정력부족, 당뇨병, 간질환, 위장병, 견비통, 상기병, 만성피로, 두통 등 만성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출장강의함
반야약침연구학회
010-4712-4916

자연환경 · 수련지도법이 탁월한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홈페이지 : www.zenfast.com
◆안내 : 055)834-1115
016-849-3858

기도와 회향 보시와 불공은 중요합니다
가정방문 상담 및 기도
상담환영
꿈바위불교교육원
018-789-5008

천도재 점안식
1인스님 15만원
2인스님 25만원
3인스님 35만원
저렴한 보시금으로 해드립니다
부산경남지역만됨
010-7747-5222

男행자님 모십니다
스님이 되고자 하는분으로 45세 이하면 좋겠습니다
조계종스님이 직접 교리 염불 습의를 지도 교육합니다
홈페이지: www.kidobal.com
011-584-3535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행자모십니다
(50-60대)
011-483-5639

내집처럼 신심있게 자기기도 하면서 화주보살 하실분 모십니다
▷나이 40~55세
그리고 선달마 배우면서 스님 시봉하실 보살님 모십니다
▷나이 20~40세. 전남 화순
010-4604-9255

부전스님 모십니다
(비구니 스님)
▷울산지역
052)243-3881

공양주보살님모십니다
활동력있는 사무장 구함
(운전가능자)
▷강원도 양양
법비오는곳 동해사
033)672-2900

출가사문 비구 도일스님께서 강화도 민가 토굴에서 수행정진 중 무릎과 허리를 응급수술 받았습니다. 2차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비가 부족합니다. 도와주실 불자분 연락주십시오
불자 관호 합장
010-9532-0334

공양주보살님 사무직 여직원 구합니다
(경기 평택)
031)682-3169

공양주보살님 구합니다
041)673-3222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50~65세)
부부도 가능
011-270-2675
031)335-2576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 구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찰
도량이 매우 좋음(산중기도처)
052)211-9048

50대 전 후반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보시 80만원 용돈은 별도
▷부산 사하구 괴정동
삼익아파트앞 실상사
051)293-4569

사무실 여직원 구함 PC가능자
(숙식가능)
▷경북 청도군
011-378-2221

가족같이 지낼 공양주 모십니다
▷50~60대
010-4574-2117

화주보살 인연을 찾습니다. 충청도 산촌 암자에서 50세 전후의 신심있는 화주보살 인연을 찾습니다. 남은 인생을 부처님과 스님 시봉 하면서 함께 지내실 보살님은 연락 바랍니다.
011-486-1275

서울 근교 조용한 암자에서 수행하실 스님, 보살, 행자 모십니다
011-306-3504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남양주
(40~60세)
031) 571-5424
016-307-8878

- 참신한 부전스님 (비구)모십니다
- 불심이 돈독한 남.여 재가불자님 청정한 기도도량에서 용맹정진할 수 있도록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영천 은해사 뒤 거조암 뒤)
011-9371-8080

행자 모집
도자기
관심있는 행자님
(행자교육외 각종의식교육)
010-6330-3340

氣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氣치료 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전세계에서 레이키(Reiki, 靈氣) 밖에는 없습니다. 지난 10년동안 많은스님 거사님 보살님들이 배웠습니다.
- 동서양식 레이키 : 개인교육 70만원, 단체교육 50만원 교육기간: 2~3일
※교육1개월 후 무료 추가 보충교육있음
-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www.reiki.co.kr(한글검색어 : 레이키)

전화:02)720-5719, 720-5682 핸드폰:010-8392-2557

자동차 폐차 (긴급속보 압류불문)
과태료 + 개인 + 법인세금 체납 +고장방치된차
고인된 차소유자 법인/ 개인 + 부도 / 고인된차소유자 +
행방불문 + 골치아픈 자동차를 폐차 말소를 못하고 계십니까
(화물트럭+ 승합차+ 버스가능) (파산신청때) 우선 / 급폐차환영
(합법적으로 풀어드립니다) 최고가매입 / 부품판매 (전국타지역가능)
자동차 24시간 무료견인출장 (국가유공자협동사업장)
(주)대흥산업 폐차 02)521-7000, 02)3471~4444~5
011-470-3118, Fax 02)3471-4446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 사암 등록 환영합니다
- 종무원 개설 원하시는 사찰 환영합니다
- 스님이 되시고자 하는 분 적극 환영합니다

경북 칠곡군 지천면 황학리 448번지 황룡사
행정실 054)972-4737
문 의 010-7302-0077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 사주, 작명, 궁합, 택일 - 기초부터 5개월
- 대상 : 누구나 가능 - 주4회, 1일 1시간씩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 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부산시청(경찰청) 뒷편 삼화당 앞

28숙 특별지도
- 풍수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1:1로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리며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02)374-9886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누구나, 재식, 염불을 쉽게 배울수있는 각단불공책
상단불공 · 신장불공 · 지장불공 · 산신불공법
용왕불공 · 조상천도 · 칠성불공 · 불명짓는법
책마다 순서대로 불공을 쉽게 할수있는 각각단권으로 맞춤형식 제작판매함



불공을 배우고자 하는분, 초보스님, 법사, 철학사, 보살님 기도하는 불자는 절대필요한 불공책 (역학.염불.배울학인모집)
대구시 중구 달성동 284-34 (농협) 743016-51-022866(정은정)
종단사찰등록 · 국제역술인협회 가입 환영 ☎ 053)561-4440

출 가 학 교 모 집
- 대상 : 대학생 및 일반인, 45세 미만, 미혼인 남자
- 일시 : 7월 19일(수) ~ 8월 8일(화) - 21일간
- 대구큰절, 감포선방 동시 교육
- 교육비 전액 무료 - 선착순 : 20명
- 문의 : 053)474-8228. 011-9852-0075(총무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조상영가천도

시부모 영가 | 친정부모 영가 | 태아 영가 | 각종질병 사고로 인한 | 사별한 남편부인 | 조부모 형제자매 일가친척

체계있게 경전을 독송한 후 천도합니다. 가족에게는 삼재팔난 업장소멸하여 소원성취 됩니다.
대불정능엄신주, 우리말천수경, 지장경, 영가천도 책을 열심히 독송기도 하십시오, 필요하신분은?
체계있게 개인적으로 효과적인 독송기도방법 지도

철야기도 가족과 함께
대구팔공산 갓바위 기도 가는 분
약사여래경을 열심히 독송하십시오. 소원성취가 더 큼
대학입시 사법, 행정고시 합격기도 책임지도
가정에서 전국포교활동 하고 싶은 분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학 해 드리는 방법

경전독송기도특강 (3개월과정) 매주 화요일
- 기도와 회향
- 보시와 불공방법

①우리말 천수경 ②문수보살예찬문 ③보현행원품 ④관세음보살보문품 ⑤지장경 ⑥금강경 ⑦아미타경 ⑧약사여래경 ⑨능엄신주 ⑩신년법어 ⑪불탄법어(성철큰스님) ⑫영가천도 ⑬기 타

- 지방분 환영 - 전국 포교활동 하실 분 - 스님동참환영

★가정방문 상담과 기도해 드림
- 전국만행 - 맨발등산 하실 분 - 택시운전기사불자회
■ 단계별 능력에 맞춰 체계있게 개인별 지도
⊙ 노사갈등없는 회사운영 특강
⊙ 사찰운영 및 신도들을 위한 특강 ⊙ 신행단체 특강
⊙ 기도불공 한 후 노숙자에게 떡공양 하실분 환영

치매예방

조상영가천도, 각종 기도 불공, 생일불공
- 술, 변비로 고통받는 분, 불면증, 우울증, 비만, 스트레스, 성격변화, 디스크, 가족갈등
- 군부대 법당 - 경찰서 법당 - 교도소 - 병원법당 법보시 하실분 문의 상담

- 노후에 건강하게 오래살고 회향을 잘하고 복짓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며 밝은 사회 만들기

꿈바위불교교육원 018-789-5008
서울 광진구 중곡4동 79-9
부산 635-7008 대구 986-0338
마산 245-2662 안성 010-9242-0359

사주운세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
명리학[사주첩경통달](이석영)
명리학 질문 10초 내 답변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부부갈등, 혼사지연, 학업성적부진, 가출, 부모와 자식간의 갈등, 빙의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굿이나 부적 등 부담되는 일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전화 상담 경력 10년

02)826-5067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 2004-8213~6 / 02)732-1522 (直)
· 전송 : 02) 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사천 ● 법당 : 20평 ● 요사 : 80평 ● 부지 : 650평 ● 가액 : 3억5천
● 위치 : 경북 ● 법당 : 15평 ● 요사 : 30평 ● 부지 : 130평 ● 가액 : 1억3천 (즉시법회,도심속산사)
● 위치 : 부산 ● 법당 : 18평 ● 요사 : 25평 ● 부지 : 195평 ● 가액 : 4억9천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미래공인중개소) 02)998-1994 011)713-5634

사찰안내
1.서울국유지무허가사찰多
2.서대문포교당45-월110
3.봉천동포교당40평-월85
4.강원사찰물많음-5억5천
5.강남GB 500평부지-14억
6.운영필요한사찰구함
•기도스님공양주신속연결
불교정보센터
현대불사 02)555-0575

강원도 산수 좋은 곳 토굴 원하시는 분 연락바랍니다
017-420-2200

포교원안내
● 위치: 동김해 아파트 상가 밀집 최요지
● 평수 : 4층 45평
● 시설 : 집기완벽. 주차A급
● 즉시법회가능
● 가액:보증금2천만원/월50만원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 명리,대체의학 최적합
055)332-6738
010-6840-8545

사찰터안내
● 서울 왕십리 뉴타운지역 역세권 대로변
● 사찰 (포교원) 건립하실분 구함
● 대지 51평 15억원 향후 투자 전망 좋음 중개인 사절
010-2330-3418 주직접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 부지 : 천평 ● 법당 : 목조33평 ● 요사 : 55평 ● 가액 : 9억
● 위치 : 서울 ● 부지 : 국유지240평 ● 법당 : 목조 40평 ● 요사 : 30평 ● 가액 : 7억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양도 운영하실 분 상담환영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토 굴 안 내
● 위치 : 지리산 자락 하동 악양
● 가옥 신축 황토 기와집 33평, 부지 672평
● 가액:2억2천
● 특징 : 집 위 대숲, 집안 연못과 잔디밭
016-367-2112

포교선원 안내
● 위치: 부산 사하구
● 5층건물 시내 최고 조건
● 건평: 약 200평
● 가액: 6억 8천만원 (가격 조정可)
051)293-4569
011-889-1559

암 자 안 내
● 위치: 경남 밀양 얼음골 주위
● 임야 4500평 법당, 요사채, 산신각
● 가액: 4억5천만원
● 유명관광지 입구
010-4876-5535
010-4699-9387

사찰 최고 적지(서울)
● 위치: 종로구 평창동
● 평수 181평, 건평 170평
● 3층건물 엘레베이터 有 정자, 주차시설 가능
※현재까지 양로원으로 사용하였으나 확장이전 관계로 안내함
011-441-1966
02)3216-0572

위치	부지	가액
• 서울	80평	4억
• 경남	1000평	3억2천
• 양평	약 2천평	13억
• 경기	약 2천평	18억
• 서울국립공원내	약 6백평	5억
• 부산구포	50평 3층 도심포교 최고임	3억2천

한 국 불 사 (한국 최고의 사찰 컨설팅)
연락처 : 02)6674-3535 / H.P 010-3154-3535
※ 전국 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상담 환영합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구미시 소재
● 부지: 100평(종교용지)
● 법당: 70평(3층)산신각: 70평 (2층)
● 종무소 : 70평 (1층) 공양간 30평(지하)
● 가액 : 4억5천만원
● 특징 : 도심인근 상가 밀집지역에 위치한 도심 사찰임
● 위치: 김해시 ● 부지 : 약 3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2동 50평 ● 가액 : 3억원 ● 특징 : 주지스님이 신병 관계로 급히 양도 코저 함
좋은인연 됩시다 ※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8-689-0455/서울 018-536-4064

사찰안내
● 위치: 부산 강서구
● 대지 870평, 법당 25평, 용왕당 4평, 산신각 5평, 종각 3평, 요사채 방 7개, 주방시설 완비
● 주차시설 30대, 70년된 사찰 사용평수 2,000평
● 가액: 5억
010-4877-5900

사 찰 안 내
● 위치: 대구시 북구
● 대지 93평
● 건물 2채
● 법당 30평
● 가액: 2억
011-650-7729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강원도 속초. 상가시장밀집지역
● 건평 : 60평, 시설일체 완비
● 내부시설 : 전통 황토, 쏘폴 좌욕기 완비
● 가액 : 1천만원에 월40만원 (시설비 답사후 절충)
※ 환자치료하시는 스님, 철학하시는 스님 최적합 요지 불교대학 하시고 싶은 분도 아주 적합한 위치 꼭 필요하신 분 전화요망
011-790-480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인천 부평역 10분거리
● 평수: 35평, 4층건물중 3층
● 가액: 보증금1천만원 월25만원
● 시설비 2500만원
● 시설완비, 몸만오시면됨 즉시법회 가능
010-8676-6921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인천 계양 (상가 건물 2층)
● 총평 : 40평,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보증금 : 1천만원, 월60
(큰방,1개, 거실, 화장실 보일러) 10년전통
사찰,암자,포교당,운영, 각종행사 상담합니다
삼보불사 011-9769-8868

황금알땅 종교부지
● 5166평
● 최고명당, 화장터옆, 납골당터
● 민원없음 국유지, 몇백만평속 사유지, 한필지
● 형질변경 완료, 토목공사중

경기도 광주 사찰
● 대지 290평 총사용 400평
● 대웅전, 요사채 110평 새건물
● 투자하여 운영하실분 모십니다
011-9109-3660/011-9228-2345

포교원(급)안내
● 위치: 부산해운대구 재송동 최고 요지
● 약 50평, 사무실, 법당, 공양간, 주지실
● 전세 3000만원 월 20만원
● 집기 비품 3500만원 몸만 오시면 됨
019-293-9369

포교당(급)안내
● 위치: 부산 금정구 남산동
● 평수 50평, 신시설완비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8-543-0901

포교당 선원 안내
● 위치 : 청주 시내
● 평수 : 40평, 2층, 법당, 방2개, 욕실
● 가액 : 300백만원 월40만원(전세가능)
시설비 답사후절충
011-9393-4965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밀양시 초동면
● 대지 : 235평
● 법당 20평, 요사 18평
● 현대식건물 법당 동향, 요사채 남향 (요사채 가전제품 완비) 언제나 오셔서 법회 가능
● 가액: 1억 6천 5백만원
011-879-7551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대구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 사거리
● 평수 : 50평(3층 건물중 3층). 옥상 50평 사용 가능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사찰안내
● 위치 : 강원도 최고의 관광지 기도처
● 법당, 요사채 집기일체양도
● 가액 : 14억(절충가능)
● 기타 : 꼭 필요하시분만 연락바람
010-6248-7345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서초구 최고의 위치
● 평수 : 50평, 방 2칸
● 시설: 최상의 시설 음향, 냉난방완비 삼존불 신중 산신 조왕 탱화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100만원 시설비 4000만원
011-9269-8445

사찰안내
● 위치: 전남 화순군
● 연화 도수 형국, 최고의 명당터
● 법당을 중심으로 양쪽 계곡, 큰호수있음 1200평. 조립식 임법당, 요사채, 토목공사 완료 삼존불, 후불, 지장, 신중탱화 무료보시
● 가액:1억4천만원(가격절충가)
010-9405-9288

사찰안내
● 위치: 진주시 문산
● 산세수려한 곳
● 법당1, 방3개
● 전세, 매매 가능함
055)761-8998
011-870-6493

토굴 안내
● 위치: 경북 군위 으흥
● 평수 : 전 320평,건평 40평
● 흙 소담집 벽 60cm이상 황토방 시설 수행 공부터로 적합
● 가액 : 3천 8백원 전세가능
011-9585-4908
054)383-8553

최고의 포교당 안내
● 위치: 부산시 동구 범1동 진시장 앞
● 평수 20여평방1,법당,공양간 큰욕실 겸 화장실(실내)
● 약사여래불 소불 100불 봉안, 삼존불 모셔있음
● 가액 : 보증금 200만원 월 27만원
시설비1300만원(시설비포함)
018-293-7075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진주 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532평, 법당: 25평, 요사채: 55평
천불전: 38평, 고시원: 45평
주지실: 10평. 주차시설 완비
건물 일체 심야보일러 온수
● 건물: 5억3천만원 총공사비 10억 소요
010-9889-3188

사찰(급)안내
● 위치: 부산시 상업지역
● 1층 요사채 2층 법당
● 가액 : 답사 후 절충
010-7777-8575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마산시
● 대지: 600평
● 고건물 대웅전(25평)
● 요사채 약40평
● 가액: 4억 (절충可) (전세도 가능함)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요망
011-530-1808

사찰터.전원주택지
● 위치: 경남 함양군 휴천면 법화사 옆
● 평수: 임야,전 9814평
● 수목 70년생 소나무숲
● 가액: 상담 후 결정
010-9460-1256

사 찰 안 내
● 위치:영천.건천 IC에서 20분
● 종교부지 350평, 임야(뒷산)
● 대웅전 10평, 요사채 30평 산신각, 용왕당
● 가액: 답사 후 절충
필요하신분 만 연락 바랍니다
016-831-3022

도심속의포교원
● 위치: 부산 중심가
● 평수: 60평
● 가액: 5700만원 (시설비 포함)
010-8678-5442
010-9250-2358

토 굴 안 내
● 위치: 속리산 국립공원 칠보산
● 평수:488평
● 목 구조 황토방 20평
● 가액: 1억6천만원
011-491-7138
043-834-7138

사찰터(급)안내
● 위치: 충북 제천시 청풍호 주변
● 부지 2필지 708평. 현재 하우스 전기전화 계곡 자연수 흐르는 기도처
● 위치: 충북 괴산 지방문화재
● 부지 1필지 233평 ● 가액: 상담 후 결정
011-742-5925
043)644-1666

포교원(급)안내
● 위치: 경북 구미시 원평동
● 법당 2층 건물 2층(90평)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300만원(절충)
010-8646-4899

사찰 안내
● 위치: 충남 아산시 (아산 호서대학교 부근) 천안에서 20분 온양에서 20분
● 가액: 1억
010-2000-5809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대구 지하철 상인역 부근
● 평수: 75평 2층건물
● 옥상사용가능
● 시설: 최상급(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1900만원
● 대형주차장 있음
011-450-5574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시내
● 대지 : 230평
● 법당 : 30평(기와) 요사채, 방 6 개
● 가액 : 7억 사찰 다량 보유
명주불사
010-9798-1091

사찰 및 사찰부지 안내
● 평수 : 1000 ~ 3 만평 (100% 평지)
● 가격 : 평당 25 만원 (가격 절충)
● 위치 : 서생 간절곶 바다전망 환상적 국내에서 가장 먼저 해뜨는 곳
※부산시내 사찰 및 암자, 토굴, 포교당 다수 확보
사찰전문 부산 연산 부동산
011-560-8522
051) 860-6661

사찰 안내
● 위치 : 밀양 시내 근교
● 대지 : 900평
● 건물 : 120평
● 가액 : 3억 5천만원
011-511-7705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부산 사하구 장림
● 건물: 4층 건물 2층 28평
● 가액 :보증금 5백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 1300만원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010-2694-0621

포 교 원 안 내
(인수 또는 같이 운영하실 분)
● 위치: 서울 동작구 총신대 4거리, 7호선 이수역
● 3층건물 2층
● 45평, 삼존불, 후불, 산중탱화 방 2개 겸 주방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 상담 후 결정
010-8246-1472

토 굴 안 내
● 위치 : 진주시 배봉면 월아리
● 평수 : 178평
● 건물 2동 평당 싯가 80만원
● 가액 : 9000만원
011-662-9242
055) 745-10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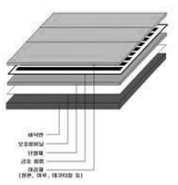
포교당 안내
● 위치: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 평수 : 37평 3층 건물중 3층(옥상 사용)
● 특징 : 상가, 아파트 지역 (교통편리), 포교지로 최적지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 월 10만원
시설비 : 답사후절충 (집기일체)
019-656-2766

배관과 보일러가 필요 없는
원적외선 필름난방 시스템



"월 5,000원으로 난방비 걱정 끝"

금호필름의 특징
■ 한겨울 난방비가 전기열선타입의 30%, 기름보일러 대비 70%이상 절감됩니다.
■ 간편하고 빠른 시공으로, 당일 시공이 가능합니다.
■ 당일 시공하고 당일사용이 가능합니다.
■ 두께가 얇고 경량이어서 건물의 하중에 영향이 없습니다.
■ 보일러실이 필요 없으므로 공간절약이 되고, 관리 유지가 편리합니다.
■ 기존 전기판넬의 단점을 100% 보완하였습니다.
■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므로 환경친화적인 제품입니다.
■ 제품의 수명이 반 영구적입니다.
■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보다는 건강에 좋은 원적외선이 다량방출됩니다.
■ 원적외선 복사열로 인하여 방안 가득 훈기가 탁월합니다.
■ 철저한 개별 난방 시스템으로, 필요한 부분만 제어가 가능합니다.
■ 혹한에도 동파걱정이 없습니다.
■ 필요할 때 잠깐 잠깐 사용이 가능합니다.



"원적외선 복사열 필름은 바닥만 따뜻한 일부 전기제품 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난방용 필름… 금호에너텍에서 설치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금호 에너텍 KUMHO Enertech co. 상담/문의 031)422-0467

좋은 因緣을 찾습니다
● 위치: 경남 고성 시내에서 10분거리 (녹차 100평 10년 수명) 백두대간 남해바다에 맞닿은 300만평 숲속
● 내용: 종교부지 300평 (법당 30, 요사채 30평 기타 건평 8년) 그 외 1,000여평 봉황이 알을 품은 정남향 명당) (자연경관 흐름따라 황토, 태평산 적송으로 지음, 조경 잘됨) (산책로, 1급 지하 샘물, 산수, 병풍같은 뒷산과 앞산거리 4km
● 바램: 禪院 및 기도처, 수양 요양처로 최적 (고도 250m 뒷산 450m, 앞산 100~600m)
● 가액 : 5억 (상황 따라 절충 가능)
055)674-2202
010-2245-4862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부근 원주시 국선 전철역 부근 개통 예정지 앞 의료단지 상업단지 부근
● 평수: 209평, 법당: 20평, 요사채: 20평 삼존불, 돌탑부처님 (관세음보살, 약사불, 미륵불)
● 가액: 2억1천만원
033)766-0057
011-471-1996

사찰 안내
● 위치: 포천 송우리 (의정부 근교)
● 대지 350평 하천부지 200평, 1층 요사채 50평 2층 법당 34평(목재), 산신당10평, 위패당 및 납골당 85평
● 가액:16억 5천만원
031)543-6526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경남 마산시 최중심가
● 평수 : 40평, 방 3칸
● 관음, 후불, 신중, 산신, 조왕탱화 법당, 주지실, 상담실, 주방, 욕실, 화장실 2개, 베란다, 창고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
● 시설 최상 / 상담 후 절충가
● 즉시법회가능 스님 법사 보살 모두 가능함
010-5623-2389

토굴(급)안내
● 위치 : 충북 단양 접성
● 대지: 100평. 건평 : 20평
● 조립식주택, 건축2년. 주변 자연석 많음 작은창고1, 조경, 도로접, 전기수도, 수세식
● 토지 700평. 저렴하게 구입가능(관리지역)
● 해발약500m 금수산옆. 마항산 중턱, 앞이 확트임, 조용한 곳. 조용히 공부하실 분 최적합
● 가액 : 합 4,200만원
010-6460-1316

불교 등록문화재 겨우 1건

등록문화재 교계 현주소

문화재청은 근 · 현대 건조된 조형물들을 영구히 기록 · 보존하기 위해 '2006 등록문화재 기록화 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종단과 스님들의 마인드 부족 때문일까? 불교관련 등록문화재는 단 1건 밖에 들어가 있지 않다. 반면 기독교 관련 등록문화재는 전체 등록문화재 267건 중 100여건이 훨씬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등록문화재 기록화 사업' 은 근대건축문화재에 대한 학술자료 제공과 유사시 수리 • 복원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인쇄물과 전자기록물(CD, DB) 등을 이용해 이에 대한 자료를 영구히 기록 · 보존하는 작업으로 문화재청의 기간 사업 중 하나다.

특히 이 사업은 대상 문화재가 소재한 지역 대학교가 함께 참여해 당해 문화재 강좌가 열림으로써 학생들에게 문화재에 대한 교육효과도 고취시킬 수 있다. 불교계의 등록문화재 현주소를 살펴본다.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군산 동국사 대웅전은 일본 에도시대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국내 유일의 일본식 사찰로 현재 등록문화재 64호로 지정돼 있다.

총 267건 중 기독교 관련 100건 넘어

'서양양식' 이란 편견과 무관심 '원인'

 # 불교계, 등록조건 갖춘 곳 50여곳

현재 등록문화재는 269건이 등록돼 있으며 그중 불교계 등록문화재는 군산 동국사 대웅전(제64호)이 유일하다.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이 사찰은 일본 에도시대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현존 유일의 일본식 사찰이다.

개화기 이후 또는 한국전쟁이 끝난 뒤 '불사 붐' 에 따라서 사찰과 포교당이 많이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불교계가 등록문화재를 등록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원인은 간단하다. 근대문화유산은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이 아닌 '서양 문명 양식' 이라는 스님들의 편견과 불교 문화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재 등록 현황에 콤플렉스를 가진 기독교계의 선점노력 등이 빚어낸 결과로 분석된다.

현재 목조 건축물이 대부분인 사찰이나 포교당 등만 보더라도 해충과 습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 보존 · 관리가 시급한 상황도 간과할 수 없다.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등록문화재 신청에 나서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등록문화재 소유자에 대해 문화재청은 보존 · 관리 보조금 지급과 세금감면, 각종 인센티브 등을 부여해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고 있지만 불교계는 여전히 무관심하다.

그렇다면 등록문화재로 등록할만한 불교 문화재는 얼마나 될까.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사가 나와 있지 않지만 관계자들은 약 50여곳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이분희 주임은 "1920년대를 거점으로 세워진 도심포교당인 △용주사 수원포교당 △통도사 창녕포교당 △해인사 거창포교당 △건봉사 고성포교당 △금산사 전주포교당 등이 등록문화재로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이들 포교당은 근대의 큰스님들의 다양한 일화나 한국불교의 수행전통, 불교 건축미 등 등록의 필요 충분조건을 갖췄다" 고 설명했다.

특히 1935년 창건된 거창포교당은 근대 한국 불교의 선풍을 진작시킨 성철 · 혜암 · 일타 스님 등이 주석했던 도량으로 등록문화재로 지정할만한 건물.

이밖에도 일제강점기인 1900년대에 창건된 내장사 대웅전이나 은해사의 영천포교당 등도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뛰어나다.

정부, 보조금 지급 등 혜택 부여

종단 행정지침 마련 등록유도를

 # 중요성과 가치 인식 시급

요건을 갖춘 다수의 불교계 건조물을 등록문화재화 하기 위한 대책은 뭘까.

우선 스님들의 마인드 전환이 필요하다. 또 관련 문화재 현황 파악이 선행돼야 하고 종단차원이 행정지침도 있어야 한다.

즉, 등록문화재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는 불교계 전체의 마인드 변화와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원광대 건축학과 박상현 교수는 "전통문화에 익숙한 불교가 근대 건축물과 문화에 상대적으로 배타적인 의식이 강해 등록문화재를 소위 '현대 건축 조형물' 정도로 폄하하는 것이 문제"라며 "종단과 사찰들이 연계해 근대(1950년대) 이전 건조된 사찰이나 포교당, 불교 조형물 등에 대한 정보공유 네트워크를 만들어 등록문화재 등록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 등록문화재 사업이란?

등록문화재사업은 근 · 현대시기에 형성된 건조물 · 시설물 · 생활문화자산 · 산업 · 과학 · 역사유적 등을 보존 및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문화재청의 기간사업이다.

등록문화재의 등록 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 · 제작 · 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경과한 것으로 역사 · 문화 · 예술 · 사회 · 경제 · 종교 ·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 · 현대 형성된 비지정 문화유산 중 보존 · 활용 특별조치 필요한 문화재

하지만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 후 50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신청도 지정문화재에 비해 간단하다.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소유자 · 관리자 또는 당해문화재의 소재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등록취지 △문화재의 사진 · 도면 · 위치도 △문화재의 종별 명칭 · 연혁 등을 첨부한 문화재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문화재청장에게 당해 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이상의 일련의 절차에 대해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또는 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 3인 이상에게 당해 문화재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준해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55>

월드컵

'2006 독일 월드컵' 에서 한국이 16강 진출에 실패했다. 6월 17일 열린 대 스위스 전에서 한국은 알프스 고개를 넘지 못함으로써 아쉽게 G조 3위에 그쳤다.

하지만 붉은 악마를 비롯한 4천 8백만 국민들은 '16강 진출 실패' 란 순간적인 실망감을 극복하고 열심히 싸워준 대표팀 선수들에게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내 줌으로써 한층 성숙한 국민성을 보여줬다.

전반전을 놓치고 후반전부터 응원을 하는 경우 또는 TV를 켜고 응원을 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과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경기의 내용이나 승부에 영향을 미칠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영향이 없을 듯도하다. 독일에서 일어나는 일이 나의 조그만 행동에

하지만 이처럼 작은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더 오묘한 현상도 많다. 우주의 어떤 별에서도 지구에서와 같은 나비효과를 발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나의 조그만 행동, 예를 들어서 자동차 시동을 아무 생각 없이 켜는 것, 나무를 베어버리는 것이 지구의 이산화탄소에 의한 온난화에 큰 악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환경론자의 이론적 배경이 되기도 한다. 한때 사회적 이슈였던 천성산 터널 문제가 '단순한 경제 논리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 는 쪽의 주장에도 위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복잡하게 얽혀져 맞물려 돌아가는 현대인들의 삶. 이 속에서 나 자신이 초라하고 보잘 것 없다고 느껴질 때, 나비

나비의 날개짓이 허리케인 만든다는데 '열렬한 응원' 이 경기에 영향 주지 않을까

영향을 받을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TV를 켜고 한국선수들을 응원한다면 미세하겠지만 경기운용에 영향을 미칠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조금은 엉뚱한 상상은 '나비효과' 를 연상케 한다.

나비효과는 '북경에 있는 나비의 날개 짓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뉴욕에서는 허리케인이 만들어진다' 는 이론이다. 나비 효과는 기상변화와 같이 풍속, 기압, 기온 등에 의해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 아주 조그마한 국소적인 요인이 큰 결과의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컴퓨터 모의실험에 의해서 알아낸 효과다.

이러한 나비효과는 <금강경>에도 잘 나타나 있다. 광대무변한 우주와 비교했을 때 지구라는 별은 항하사의 모래 알보다 작다.

효과를 일상에 접목시켜 봄은 어떨까.

이런 나비 효과는 이천 오백년 전, 인류에게 빛을 주신 부처님의 인연법의 한 가지 모습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 아침 예불 시간마다 불자들이 외우는 아름다운 챈팅(예불).

즉 '시방삼세 제망찰해' 의 제망찰해야 말로, 삼라만상의 '원인과 결과' 인 인연법의 참모습이 아닐까 싶다.

시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인연법에 의해서 연결된 우주의 모습이 마치 제석천 궁전을 덮은 그물의 바다와 같다' 고나 할까.

나비의 움직임이 뉴욕의 기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이, 나의 선한 생각과 자비로운 마음은 우리가 사는 지구별을 극락정토로 만드는 하나하나의 '나비효과' 임을 명심하자.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 문병성

최고 정신 지도자 고급 과정

참선공지도자 **神 임상최면사** **神 치유명상가**

깨달음(도통)과 神通(신통) · 醫通(의통) · 신병(빙의 · 해리) 기적의 치유법 · 마음조정법 고급 과정모집

● **환혼동(幻魂動) :** 조상 영가와 일체객귀신이 魂을 바꾸어 각종 신병(神病)과 실패와 이혼 불상사가 일어난다. 아뢰야식(영혼如來藏)에서 불생불멸의 신 비법 전수. 무량한 功德 비법 전수.

● **神임상최면 :** 질병치유를 목적으로 영혼에 의지하여 전생체험, 전생치유법, 내생체험, 내생치유법, 신령의 세계체험, 빙의.해리치유법. 암질환치유법, 조상영가천도비법 등 기적의 치유법 전수.

● **참선공(參禪空) :** 영혼과 육신이 神人合一하여 무한한 대우주의 힘이 골수와 근육 신경, 세포조직에 들어가 머리부터 손 발 끝까지 강력한 진동으로 스스로 각종 질병을 치유 정화하며 내공 외공을 소유한다.

● **神치유명상 :** 관법에 의지하여 영혼의식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고통(불치병)을 벗어나 건강한 육체와 신령한 영혼을 소유한다. 특별한 자비의 손 치유법 개공 및 전수.



現卍 신선암 주지
現神 임상최면 협회장
現참 선공 협회장
現神 치유명상 협회장

◆ **참선공의식 사례**

① 48세 여성이 이렇다할 이유 없이 2년 동안 목이 180°돌아가서 한의원,병원,기공,굿,각종 기도를 하였으나 돌 아 오지 않았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 영혼의식에 의해 단10분만에 정상으로 돌아왔다.
② 60세 중진 스님은 젊어서부터 230mmHg의 악성 고혈압 환자였다. 참선공의식 10분 만에 정상 혈압으로 돌아와서 현재는 건강하게 포교 활동을 하신다.
③ 28세 미모의 여성이 원인 모를 이유로 7살부터 오른 쪽 다리가 통증이 심하여 20년 동안 걷지 못하였다. 그러나 간단히 참선공의식후 건강하게 통증 없이 잘 걸어갔다
④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중2때부터 전혀 물도 못 마시고 얼굴에 여드름 피부각질이 만성화 되어 병원 등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깨끗하게 피부각질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윤기 있는 얼굴로 바뀌었다.
⑤ 50세 중진 스님은 영가가 빙의 되어 눈에 뱀이 보이고 귀에서는 소녀의 말이 들리고 양다리와 양손이 항상 불안하게 떨리면서 불안하였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증세가 완쾌되었다.

지도자고급과정
● 입제일 : 2006. 7. 6 (목요일) 14:00 - 18:00 (10회 과정) (선착순 예약 10명)

전 수 비 200만원

입 금 계 좌
조흥은행 995-04-648955
예금주 : 이영하

조상 천도 해탈 비법	빙의 · 해리 치유 비법
자비손 치유 비법	전생 치유 비법
음성 내공 비법	내생 치유 비법
신선 도인 비법	칠차원 도인 비법

◆ **우울증, 신경불안증, 정신병, 공포증, 기관지 천식,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각종 피부병, 불임증, 불면증, 말더듬, 알콜중독, 무통분만 치유 비법**

卍 신선암 참선공협회. 神치유명상협회

● 전화 : 02)383-1319 / 011-379-1319
● 주소 : 서울 은평구 녹번동 55-9 (녹번역 1번)

일 주 문



생명 · 윤리관 특강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은 7월 12일 오후 7시 보현불교대학에서 '불교의 생명 · 윤리관'을 주제로 강연한다. (042)624-6555



'유심 문인들의 모임' 초대 회장에

실천불교승가회 공동의장 효림 스님은 6월 24일 계간 문예지 <유심> 신인상을 통해 등단한 문인들의 모임인 '유심 문인들의 모임' 초대 회장에 선출됐다.



'화엄경 보현행원품' 강의

홍익소아과 이종린 원장은 7월 6일 서울 대원불교대학 지하강의실에서 '화엄경 보현행원품 및 보현행원 수행법'을 강의한다. (02)2659-8790



'홀리스틱 요가프로그램' 개설

서울불교대학원대학 황윤식 총장은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교내에 '교사와 아동을 위한 홀리스틱 요가프로그램'을 개설한다.

어린이 포교의 '마당발' 이성훈씨 급성백혈병



불교계 최초의 1급 청소년 지도사이며 20여년간 어린이 포교에 헌신해 온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 이성훈 연구위원(사진)이 급성 골수성백혈병으로 투병중이어서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고려대 안산병원에서 항암치료중인 이성훈 연구위원은 현재 1차 치료 중 폐출혈이 생겨 중환자실에 입원중이다. 부인인 이미애씨는 "3차례의 항암치료가 남았는데 출혈이 많아 헌혈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성훈 위원은 최근 박사논문을 쓰는데 전념하면서 이벤트 활동도 중단해 병원비도 부족한 상황이다.

문의 : 011-9026-4468, 계좌번호 농협 1088-12-014311(예금주 이미애)

김원우 기자

"본래마음 지켜야 행복한 삶"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경찰대서 특강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6월 29일 용인에 있는 국립 경찰대학교(학장 송연동 · 치안정감) 강당에서 경찰대 학생과 교육생 500여명을 대상으로 법문했다. 이날 법문은 사회저명인사 초청특강 형식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경찰대 3 · 4학년 생도들과 치안정책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총경들이 참석해 약 1시간 동안 지관 스님으로부터 불교가 추구하는 행복의 참된 의미를 경청했다. 1979년 경찰대가 생긴 이래 스님이 재학생들을 위한 특강 자리에 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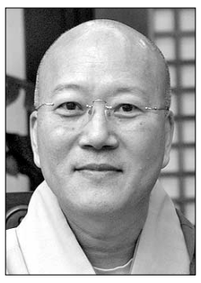
지관 스님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식에서 사특한 마음을 누르고 다스릴줄 알아야 한다"며 "종교인, 경찰, 의사, 교수 모두 인간이기에 실수하지 않고 살기 어렵지만 자신의 본래 마음자리를 지키겠다(守我本心)는 의지를 갖고 탐욕에 이끌리지 않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법문을 경청한 경관들은 "스님의 강의가 다소 생소하지만, 불교의 교리가 생각보다 깊고 오묘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불교를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조용수 기자

"한국불교 대표하는 권위있는 상으로"

불교언론문화상 대표에 위촉 수불 스님



"불교언론문화상이 사회와 불교를 대표하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사진)은 6월 28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으로부터 불교언론문화상 대표 위촉장을 받고, 이 상을 사회와 불교를 대표하는 최고의 상으로 키워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불교언론문화상은 1993년 시작된 '보리방송문화상'이 지난해 조계종과 공동주최 형식으로 변화하면서 이름을 바꾼 것. 지난 10여 년간 수불 스님은 이 상이 유지되도록 재정적 후원과 방향성 제시 등에 큰 역할을 해왔다.

"불교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야 한다는 생각에 부끄럽지만 소임을 맡게 됐다"는 수불 스님은 "불교언론문화상이 불교를 널리 알리고 사람을 키우는 사회적 공기(公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수 기자



"불교관계법 제 · 개정 예산 확보에 주력"

국회정각회 새 회장 이해봉 의원

"자연공원법과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등 불교 관련 법률의 제 · 개정과 불교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일에 주력하겠습니다."

6월 30일 조계사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국회 정각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이해봉 의원(한나라당 · 사진)은 불자 의원들의 '제자리 찾기'를 강조했다. 이 회장은 그래서 "정치에는 여야가 있지만 정각회에서는 여야를 초월해 불교 관련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불심은 있으나 교리공부와 수행이 부족하다"고 밝힌 이 회장은 "여러 대덕 스님들의 말씀대로 국회의원들이 함께 모여 신행활동을 펼치는 것에도 신경을 쓰겠다"며 사찰성지순례 등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유철주 기자

"부처님이 좋아 월드컵 안 보고 한국 왔어요"

매년 방한해 신심다지는 독일불자 투밀씨 가족

"한국은 마음의 고향입니다. 이곳에서 불자를 만나면 저절로 마음자리가 열리는 것 같아요."

독일에서 월드컵이 한창인 가운데 지난 6월 20일 한국을 찾은 독일불자 가족이 있다. 홀가 투밀(43)씨와 부인 키스틴(40), 아들 요나스(6). 투밀씨 가족은 4년 전부터 해마다 한번씩 한국을 찾는다. 홀가씨는 "진리를 찾아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은 곳이 없었다"며 "불교를 만나면서 인생에 큰 전환점을 맞았다"고 소개했다.

알콜 중독으로 힘든 시절을 보내던 홀가씨는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지원장 혜진)에 걸린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입니다'라는 현수막을 보고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솟구쳤다고 한다. 불교와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됐고, 법당에서 자원봉사하며 '마음보기' 공부를 했다.

홀가씨는 "마음찾는 공부를 통해 독일인 특유의 이성적 판단과 합리적 사고로 사물을 보던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며 "물질과 정신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체험하면서 술에 대한 미련이 끊어졌다"고 말했다.

부인 키스틴씨도 "한국에서 불자들과 만나는 일주일은 독일에서 1년을 지내는 에너지원이 된다"며 "'마음'을 보도록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스승과 도반에게 감사한다"고 인사했다.

이준엽 기자



하국을 찾은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장 혜진 스님과 투밀씨 가족.

해인동문장학회 현판식 및 이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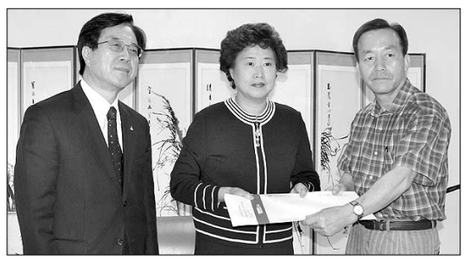
해인승가대학 총동문회(회장 일면)는 6월 30일 서울 수송동 두산위브 파빌리온 1319호에서 재단법인 해인동문장학회 현판식과 이사회를 개최했다. 해인동문장학회 이사장 일면 스님은 "해인승가대학 재학생뿐 아니라 여러 학인스님 10여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륜종, 전몰장병 위령재 및 영산재



(재)한국불교법륜종은 6월 23일 충남 보령 개화예술공원에서 한국전쟁 전몰장병 위령 및 영산재를 봉행했다. 법회는 사부대중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종정 정각 스님의 법어와 총무원장 고산 스님의 추모사, 이시우 보령시장의 추도사로 진행됐다. 2부에서는 보명 스님을 법주로 영산재가 시연됐다.

시경심인당 금강회, 위덕대에 대학발전기금 전달



진각종 시경심인당(주교 경당) 신도회인 금강회(회장 이학순)가 진각종립대학인 위덕대에 대학발전기금 4870만원을 전달했다. 사진 왼쪽이 이학순 금강회 회장, 가운데는 위덕대 한재숙 총장. 이학순 회장은 "'은혜나누기 운동'으로 조성된 기금의 가장 좋은 회향처는 교육불사"라고 말했다.

부산불교거사림회 창립 34주년 기념법회



부산불교거사림회(회장 배호암)는 6월 27일 통도사 부산포교당 3층 법당에서 창립34주년 정기총회 및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서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은 "부처님 법은 읽고 쓰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는 데 있다"고 법문했다. 이날 배호암 회장의 유임이 결정됐다.

대원불교대 제2차 총동문회 발족



대원불교대학 대학원(학장 허경구)은 6월 24~25일 서울 불교방송 3층 다보원 법당에서 2006학년도 하계스쿨링 및 제2차 총동문회(회장 박재근) 발족식을 거행했다. 2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송석구 前 동국대 총장의 특강에 이어 총동문회 임원 위촉장 수여식 등이 진행됐다. (02)707-1072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8월 5일개강

2006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29기생을 모집함

1년 교과목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최봉수(동국대교수) · 주명철(동국대교수) · 최종석(금강대교수) · 박 종(동산불교대교수) · 김상현(동국대교수) · 묘주스님(동국대교수) · 차차석(동국대교수) · 김상영(승가대교수) · 정병조(동국대교수)
2년 교과목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불교학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암도스님(전 포교원장) · 박 종(동산불교대교수) · 정엄스님(승가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 김형준교수 · 김호귀(동국대교수) · 최종석(금강대교수) · 윤열수(문화재전문위원)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활안스님(금강선원총재)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불교학과(200명) (정규반 · 주간반 · 통신반) (100명) (50명) (50명) · 불교다도학과(30명) · 불교미술학과 (30명) · 불교한문학과 (50명) · 불교장례문화학과(3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불교학과] 2006년 6월 15일~ 2006년 7월 31일 입학금 20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다도학과)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미술학과)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한문학과)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장례문화학과)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

4. 입 학 일 시 불교학과 : 2006년 8월 5일 (토) 오후 5시 개강(동산불교회관)

5. 원서교부처 불교한문학과 · 불교다도학과 · 불교미술학과 · 불교장례문화학과 : 2006년 9월 5, 6, 7일 개강

본대학 사무국 Tel. 02) 732-1206~8 Fax. 732-1207 (우) 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net

· 서울 : 보련각 (조계사앞) 02)733-0333 · 부산 : 부다가야서점 051) 865-4383 · 대구 : 삼영불교서림 053) 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 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 232-7542 · 제주 : 예전 수보리 쉼터 064) 743-4184

※ 특전사항 :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상기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 한문학과)

DONGSAN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 산 불 교 대 학

- 불교 여름 대 설법회 -

불교(佛敎)란 무엇인가?

(What is The Buddha Teaching?)

한국에 불교가 들어온 지 어언 1700여년의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이렇게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갖고도 정법불교, 생활불교로 자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날 IT산업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컴퓨터 시대, 과학 시대의 최첨단의 생활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불교도들은 불교를 공부하면서도 불교의 진면목을 물으면 머뭇거립니다. 우리들 중생의 갖가지 고(苦)를 가장 적절히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은 Buddha의 가르침(佛敎)에서 찾을 수 있으며 부처님은 이를 위해 우리들 앞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붓다의 가르침을 통하여 오늘을 사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 현존하는 한국불교의 대포교사님들에게 불교에 대하여 여름 대설법을 들으시라


무진장큰스님


활안큰스님


박완일 교수

- 불교 여름 대 설법회 -

일 시	설 법 주 제	법 사	장 소
2006. 7. 1(토) 오후 6시	불교란 무엇인가? ① (불교의 생활화)	박완일 교수 (전 전국신도회장)	서 울 동 산 불교회관
7. 8(토) 오후 6시	불교란 무엇인가? ② (불교의 생활화)	〃	
7.15(토) 오후 6시	불교란 무엇인가? (불교의 정토화)	무진장 큰스님 (전 포교원장)	
7.22(토) 오후 6시	불교란 무엇인가? ① (불교의 대중화)	활안 큰스님 (금강선원 총재)	
7.29(토) 오후 6시	불교란 무엇인가? ② (불교의 대중화)	〃	

DONGSAN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반야회 · 동산불교대학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 732-1206~8



불자 세상보기

김 홍 근
성천문화재단 연구실장

'선진'의 잣대 기부문화

모든 일은 사람이 한다. 그리고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그 사람의 마음이 한다. 좋은 말로 '주식투자가'라고 부르지만, 사정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선 악명 높은 '투기자본가'로 알려진 미국의 워런 버핏이 총 재산의 85%인 370억 달러(36조원)를 자선기금으로 내놓는다는 소식은 우리를 놀라게 한다. 75세의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이 하루아침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로 변신했기 때문이다.

그 돈은 유네스코 1년 예산의 61배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며, 웬만한 나라의 한해 국내 총생산에 해당되는 규모다. 기부금으로는 지금까지 사상 최대 규모다. 과연 이런 일을 가능케 한 그의 속마음은 무엇일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욕심이다. 이번 깜짝 발표 전까지는, 세계 2위 갑부인 워런 버핏 역시 그의 욕심에 충실한 삶을 살아온 것으로 보였다. 전설적인 주식투자의 달인으로, 1956년 단돈 100달러로 투자를 시작해 50년 동안 440억 달러의 재산을 모은 그가 아닌가? 그는 잘 아는 기업에만 투자한다는 철저한 원칙주의자다. 그렇게 고집 세고 욕심 많은 사람이 어떻게 거의 전 재산을 사회에 내놓게 된 것일까?

그를 움직인 것은, 한 사람에 대한 감동 때문이라고 한다. 비록 그보다 24살 아래지만, 오랫동안 우정을 나눠온 빌 게이츠의 철학과 행동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마침내 마음이 움직인 것이다. IT 왕국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회장이자 세계 1위 갑부인 빌게이츠는 오래 전 '세계의 불평등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설립하고, 주로 제3세계의 보건과 교육 분야에 힘써 왔다.

이들 부부는 앞으로도 남은 500억 달러 재산 중 가족 몫으로 1000만 달러만 남기고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특히 게이츠 회장은 2년 뒤인 2008년 7월에 그가 창립하여 이끌어온 회사에서 손을 떼고, 여생을 재단 사업에만 주력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소식을 들은 버핏은 자선사업가로서의 게이츠 부부의 열정과 헌신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버핏이 부인과 자녀 등 가족의 이름으로 된 재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게이츠 재단에 기부하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이라는 판단을 내린 일이다. 기왕 자선사업을 위해 돈을 내놓는다면, 그 돈을 보다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바로 게이츠야말로 거액을 믿고 맡길 사람이라는 신뢰가 결정적으로 버핏의 결심을 굳혔다. 버핏은 돈을 제대로 쓰는 것이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마침내 그 어려운 일을 해낸 것이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다른 억만장자들도 기부를 준비하고 있다는 외신이 들어온다. 애플컴퓨터의 CEO인 스티브 잡스와 바이아콤 회장인 섬너 레드스톤도 버핏의 자선행위에 자극 받아 많은 재산을 자선단체에 위탁하리라고 한다. 미국에서 기업가의 기부금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해 33조 달러를 넘어섰다.

사람의 마음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천하의 구두쇠들이 만년에 자비의 보살로 변신하니 말이다. 하지만 이 대목에 인간의 청정한 본심에 대한 긍정이 숨겨져 있지 않을까?

문제는 시궁창 속에서 살면서도, 끝내 그 연꽃을 피워내느냐 아니면 쭉정이로 스러지느냐 하는 것이다. 젊었을 때는 피도 눈물도 없이 악착같이 돈을 긁어모으는 사람이 이런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참 흐뭇한 일이다.

보살행은 전염성이 강하다. 버핏의 선행 소식을 들은 홍콩의 액션 영화배우 성룡도 수천억 재산의 반을 자선기금으로 내놓겠다고 미리 공개한 유언장에서 밝혔다. 아름다운 기부문화의 강력한 자극이 이 땅에서도 꽃피기를 바란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올해초부터 현대불교와 조계종 군종교구가 공동으로 벌여온 '군포교합시다' 캠페인은 참으로 시의적절하다. 불교계와 불자들의 의식을 전환시켜야 하고 또 그러한 힘을 지닌 언론매체와 종단의 책임있는 지도자들이 그 합당한 역할을 찾은 것이라고 본다.

지난 6개월 동안 군과 사찰 등을 결연시키고, 각종 군 위문행사를 통해 상당한 성과를 이룩했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전환을 모색한다하니 이 운동이 모든 불자들에게 하루빨리 파급되었으면 하는 조급한 마음까지 들 정도이다.

개인 불자들이나 사찰들이 뜻은 있어도 적절한 연결점을 찾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면, 이번 캠페인은 미래를 향한 불심을 군포교의 현장에 연결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성과들이 알려져 더더욱 뜨거운 불심의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우리 열악한 군포교의 현장 구석구석까지 불심의 손길이 뻗치게 될 것이다.

군포교 합시다

우선은 차분하게 군 포교의 현실을 알리고, 그를 통해 불자들의 의식전환을 이룩하게 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아직 타종교에 비해 군포교 지원의 중요성에 눈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불교 기업인들에게도 여러 경로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군법당의 전통사찰 양식에 대한 군의 호응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을 주목하여 불교문화의 친숙성을 포교에 접목시키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확산시켜야 한다.

현대불교의 '군포교합시다'는 캠페인이 이러한 특성화되고 다양화되는 포교의 한 모델이 됐다.

불교의 미래불자들에 대한 포교가 타 종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고 환경과 지원이 열악하다는 점에 대하여 양식 있는 불자라면 모두 큰 우려를 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미래불자 양성의 황금어장이라 할 수 있는 군 포교의 현장은 그 정도가 더더욱 심한 것이 우리 불교계의 현실이다.

계속 이러한 격차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미래의 불교가 어찌될 것인지 걱정이다. 그러하기에 군포교와 같은 전략적 성격을 가진 곳에 대한 포교는 종단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불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한다.

■성태용(건국대 철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페어플레이

활을 쏘아 과녁을 잘 맞히는 사람은 그 만큼 노력한 것이니 누구라도 잊지 않고 노력하면 과녁을 잘 맞힐 수 있다
〈불반니항경〉

전 국민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월드컵 열기가 한국팀의 조별예선 탈락으로 순식간에 사그라졌다. 4년간 선수들이 쏟은 땀과 열정, 그리고 국민들의 성원에도 불구하고 한국팀은 16강에 들지 못했다. 국민들은 시청 앞 광장을 '접수'한 채 밤새며 응원하던 '일탈'을 중단하고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했으나 허탈함은 여전해 보인다.

허탈함의 이유가 한국팀이 16강에 들지 못했다는 실망감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4년간 흘린 선수들의 땀방울이 안쓰럽기는 하지만 스포츠 게임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늘 있는 일이고, 패배와 승리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는 것쯤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

국민들이 실망스러워하는 더 큰 이유는 한국팀이 석연찮은 판정으로 패했다고 믿기 때문이다. 모 방송국이 스위스전 중계 말미에서 "축구는 오늘 죽었다"는 자막을 띄워 오심에 대한 불만을 직접 드러내 큰 호응을 받은 사실만 봐도 국민정서가 어떤 것인지 가히 짐작된다.

사람들이 스포츠 게임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까닭은 거기에 명확한 규칙이 있고, 경기장 안에서만큼은 그 규칙이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공정함이야말로 스포츠의 매력이다.

우리에게 '월드컵'은 끝났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큰 경기장이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직장과 사회, 국가라는 또 다른 경기장에서 우리들은 관중이 아닌 선수로서 뛰고 있다. 월드컵보다 더 큰 우리의 경기장이 노력하고 페어플레이 한 자가 승리할 수 있는 곳이 되도록 힘써야 할 때다.

■박익순(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e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2004-8243
(담당: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사찰내 탁아실 더 많아져야

지난 현대불교신문(584호) '아기 데리고 갈 절 어디?' 기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불교계의 1사찰 1보육시설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불교도 이제는 하루 빨리 산중불교의 전통만을 고수하는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

이웃종교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도입된 것을 불교만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법당도 좌식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입식으로 전환하는 등 신세대를 위한 신식 건물이 많아져야 한다.

탁아실을 갖추는 것이 대단한 투자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작은 것이지만 신도의 입장에서 신도를 위한 사찰 운영이 포교의 기본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열반적정(붓다뉴스)

불성있는 모든 것 존귀해

요즘 지방 국도를 달리다 보면 거의 매일 도로위에 방치된 동물들의 사체를 볼 수 있다. 2004년 하반기 지리산 인근 도로에서 차에 치여 죽은 야생동물 수는 총 1402마리로 하루 평균 7.6마리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다.

흔히 로드킬(Rord Kill)라 부르는 도로위의 동물살상은 이제 밀렵꾼에 의한 무분별한 사냥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불교계에서는 이렇게 죽은 동물들의 영혼을 천도하는 의식을 강릉 현덕사서 매년 열고 있다.

올해도 현덕사는 사람들이 이기심과 편리함을 충족하기 위해 죽어간 수많은 동식물과 전국 각지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는 동물들, 병원과 연구기관에서 실험용으로 생명을 잃고 있는 동물들, 그리고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파괴 때문에 생명을 잃은 동식물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7월 8일 동식물영혼천도재를 봉행한다.

무심코 지나치는 보잘 것 없는 생명이지만 이들도 분명 불성을 지닌 존재다. 이런 행사를 통해 뭇중생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가 되길 바란다. 현종(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붓다뉴스(www.buddhanews.com) 독자여론 조사

조계종은 4년마다 홍역을 치른다. 바로 총무원장 선거 때문이다. 불교계의 수장이라는 위상 때문인지 잡음도 많고 탈도 많다. 매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 총무원장 선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곤 한다.
최근 조계종은 총무원장 선출 방식을 바꾸기 위한 여론 수렴에 나섰다. 종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과 전화 우편을 이용한 대대적인 여론조사를 진행중이다.
이런 가운데 붓다뉴스(www.buddhanews.com)도 6월 14일부터 27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독자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들은 일정승랍 이상의 모든 비구·비구니 스님들이 참여하는 직선제를 선호했으며, 현행제도의 유지는 아무도 찬성하지 않았다. 다음은 여론조사 결과.

조계종이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무원장을 어떻게 선출하면 좋을까요?

現 선거인단 규모를 확대한 간선제	2명(4%)
종회의원 등에 의한 추대제	4명(7%)
일정 승랍 이상의 모든 비구스님이 참여하는 직선제	5명(9%)
일정 승랍 이상의 모든 비구·비구니스님이 참여하는 직선제	44명(80%)
현행 제도 유지	0명(0%)

'현대'만평 심 민 섭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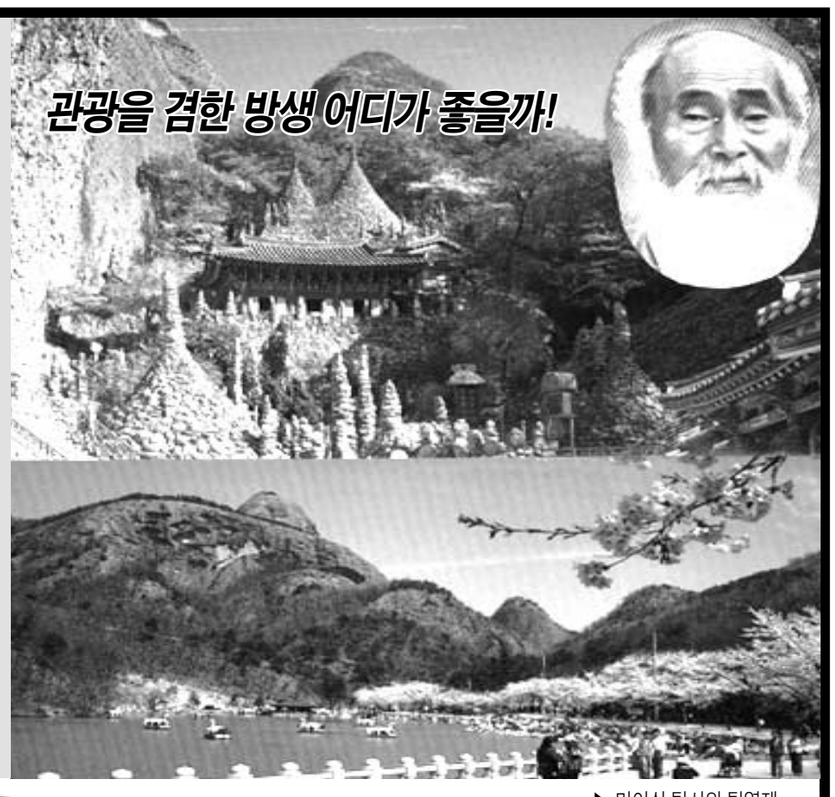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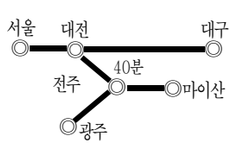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031)334-9490, 334-9519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 마이산 탑사와 탑영제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탑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진안 마이산 탑사
063)433-2900,0303
432-0652,0072

세계침술봉사協(WASA)

'한국-티베트 풀뿌리운동' 계승


가덴장세 승가대학 부속병원에서 침술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마을 사람들


'와사' 이홍재 회장과 네팔인 '와사' 회원(왼쪽 두번째 여성)이 상담을 해주고 있다


가덴장세 승가대학 부속병원 앞에서 대학병원 관계자 와 '와사' 회원들이 기념촬영한 모습

한국 불자들이 풀뿌리처럼 연계해서 티베트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류를 갖자는 목적으로 개인과 개인, 단체와 단체, 개인과 단체간에 다양한 인연을 맺는 한국-티베트 풀뿌리운동.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보인 것은 티베트 최고의 승가대학인 가덴장세놀링 대학 후원의 경우 풀뿌리운동에 동참한 한국 불자에게 그 장학금을 받은 티베트 학인의 인적사항이 담긴 확인서가 전달됐다.

이처럼 풀뿌리운동은 티베트 사찰, 단체, 교육기관과 유대관계 또는 자매결연을 희망하는 국내 개인, 사찰, 단체 등에게 연결고리를 제공해 온 것이다. 지난 2005년 초 한국- 티베트 간의 실질적인 불교문화교류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며 현대불교신문사가 앞장서 출발한 풀뿌리운동이 7월부터 세계침술봉사협회(WASA-World Acupuncture Service Association, 이하 와사) 주최로 펼쳐나간다.

'와사'가 풀뿌리 운동을 계승하기로 결정한 직접적인 이유는 풀뿌리 운동과 와사의 결합으로 양쪽 모두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와사'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 티베트 가덴장세 승가대학 부속병원에서 침술봉사활동을 벌이며 그 가능성을 타진했다.

'와사'의 이홍재 회장은 "30년 간 한국 · 인도 · 네팔 · 스리랑카 · 터키 등지에서 침술봉사활동을 펼쳐 온 경험을 세계인들과 함께 나누면서 한국불교를 알리고, 또 불교의 무주상보시의 정신을 심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와사'의 풀뿌리 운동 기본 방향은 후원사업뿐만 아니라 침술교육과 봉사활동 등으로 영역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와사'는 우선 가덴장세 승가대학에 의대설립운영을 통한 '의술라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한편, 다른 불교단체에도 의대설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프로젝트는 침술을 배워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티베트 스님 30명을 우선 선발해 가덴장세 승가대

티베트에 의대 설립 · 침술교육

인도 · 북중미 · 세계 기구로 활동 영역 넓힐 계획

학 의대에서 1년 간 침술을 가르친 뒤, 이 교육과정을 이수한 스님들이 교수인력이 돼서 다른 지역에서 침술을 가르치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 번 배운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도록 함으로써 침술봉사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계획이다.

그리고 이들을 티베트뿐만 아니라 인도 · 네팔 · 부탄 · 몽골 등 티베트 스님과 티베트 난민이 있는 곳에 배치해 봉사활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전 세계로 영역을 확대해 나갈 생각이다.

미국 LA에 한의대를 설립해 중남미 쪽으로 봉사활동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미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와사'는 이미 이곳에 침술을 가르치는 '아메리칸 배달 유니버시티'를 세웠으며, 올 여름학기부터 개강할 예정이다. 그리고 개강과 함께 멕시코를 중심으로 한 중남미 지역에서 침술봉사활동을 전개한다. '와사'는 이 같은 활동을 토대로 미국정부에 '와사'를 봉사단체로 등록하는 한편, 유엔(UN)이나 세계보건기구(WHO)에 가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에 진행돼 오던 풀뿌리 운동 가운데 티베트 사찰, 단체 교육기관과의 유대관계 및 자매결연 등의 사업은 그대로 계속된다. 자매결연한 단체들 간에는 상호방문 및 학인 교환학생 제도 등을 통해 양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풀뿌리 운동에 참여하는 일반 불자들에게는 다람살라를 방문해 사찰순례와 함께 티베트 스님들의 수행모습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와사'의 이홍재 회장이 가덴장세 승가대학의 비구스님에게 침술치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와사

▶ '와사(WASA)'는 어떤 단체?

'와사(WASA)'는 1998년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UP)주에 NGO로 등록한 명실상부한 국제 봉사단체. 실천을 통한 무주상보시를 모토로 창립돼 국내에서 침술봉사활동을 벌여온 '불가침구학회'가 그 모체다.

1982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조계사 옆 원당빌딩에 자리를 잡은 불가침구학회는 1년 과정의 전통침술 강좌를 마련해 현재까지 120기 1500명의 회원을 양성했으며, '자비의 손 법당'을 개설해 하루 100명 이상의 환자들을 돌보았다.

'실천과 보시' 모토로 창립 불가침구학회가 모체 1992년 국제봉사 시작

이렇게 봉사활동에 주력해 온 불가침구학회는 1992년 인도 명상단체 아난다마가가 운영하는 고아원을 지원하기 위해 '나를 태워 빛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단체를 구성, 국제봉사활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1993년 처음으로 인도를 방문한 불가침구학회는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무료침술봉사를 벌이기 위해 아난다나가르 의과대학에 침술과정을 개설, 인도인 활동가를 양성했다. 그리고 1995년 인도 바라나시의 사르나트, 캘커타, 뉴델리, 란치 등에 무료침술봉사센터를 개설하고 인도인 활동가들을 이곳에 분산 배치해 봉사활동을 벌여왔다.

범문화 상호 교류 프로젝트

▶ '한국-티베트 풀뿌리 운동'은?

'한국-티베트 풀뿌리 운동(Grassroots Movement)'은 한국과 티베트 간의 학술 · 의학 · 예술 · 종교 분야 등 범문화적인 상호 교류 프로젝트.

2005년 초부터 티베트와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해 온 본사는 2005년 7월 달라이 라마 동북아사무소(일본 신주쿠 소재) 한국지부가 서울 청운동 본사 연수원에 설치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풀뿌리 운동을 전개해왔다.

이 운동의 특징은 한국 불자들이 풀뿌리처럼 연계해서 티베트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류를 하자는 목적으로 개인과 개인, 단체와 단체,

> 지난해 7월 만다라 전시회 시작으로 티베트 스님 후원 1인 1구좌 갖기 운동 전개

개인과 단체 간에 다양한 인연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풀뿌리 운동의 첫 시작을 알린 것은 문화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모래 만다라 전시회. 2005년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과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강남 봉은사에서 열린 모래 만다라 전시회와 티베트 규토사원 특별예불의식 시연회는 많은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성공리에 행사를 마쳤다.

그리고 이 행사를 통해 티베트 스님들을 후원하는 '1인 1구좌 갖기' 운동을 벌여 티베트 최고의 승가대학인 가덴장세놀링대학(Gaden Jangtse Norling College)과 비구니 교육기관인 잠양 쵸링(Jamyang Choling Institute), 티베트의 대표적 사원인 규토사원(Gyuto Monastery)을 후원했다.

▶ '인연맺기 운동' 동참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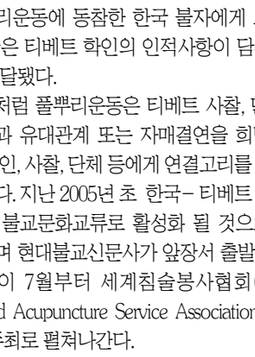
1구좌는 1개월에 3만원. 이 1구좌로 티베트 스님 한 명의 한 달간 숙식 및 학비가 해결된다. 1개월 또는 1년(10개월 기준, 30만원) 단위로 보시가 가능하며 일정 금액에 한해 별도의 개인보시도 가능하다.

후원자가 되면 본인이 후원하는 스님의 졸업식, 학위수여식 등에 초대된다. 인도 다람살라 티베트 망명정부 방문 시 후원 스님과 함께 스님이 머물고 있는 해당사찰을 둘러볼 수 있다.

동참 후원문의 : 인성준 사무국장 (010)3176-0772

알기쉬운 佛教 儀式

新刊 通用佛教儀範 案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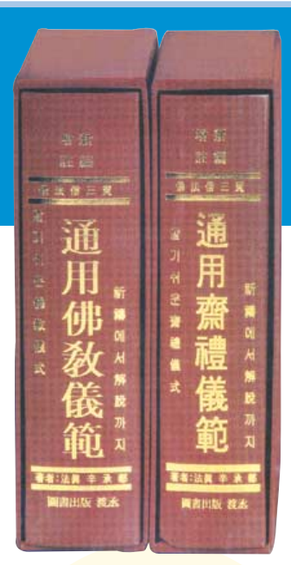
귀의삼보하옵고
불교란 어떤종교인가? 깨달음의 종교이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업과에 의한 윤회를 믿고 보살행을 실천하여 성불하기를 염원하는 종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봉하는 불제자로서 의식법전의 순서의 어려움이 많아 수행하는데 우왕좌왕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모든 불교의식집을 참고로 하여 의식을 간편하게 편집하여습니다.
의식이란 보는 이에 따라 甲論乙駁이 있겠으나 수행 초심자가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 이 의식집을 펴면 딴 페이지를 찾지 아니하고 모든 의식을 집전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습니다.

▶총 1099페이지 법보가 ₩45,000

▣ 통용불교의범 특징

불보살 모든 불공의식은 불공의식 대로 편집되었으며 제목만 찾으면 모든 불공을 모실 수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인 것입니다.

제1장 송 주 편 | 제2장 예 경 편 | 제3장 전각예경편 | 제4장 불 공 편
제5장 모든법회 | 제6장 방 생 | 제7장 제불보살복장단의식 | 제불보살 파불의식
제8장 점 안 편 | 제9장 이 운 편 | 제10장 수 계 편 | 제11장 고 사 편




編 · 著者 法眞 辛承都

대한민국 불교 교단에 계시는 모든 스님들께 소승 법진이 합장하고 고개 숙여 인사를 올립니다. 소승이 2년동안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2권의 불교의식집을 출간하여 모시오니 사용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알기쉬운 齋禮 儀範

新刊 通用齋禮儀範 案內





천지지간 만물지중에 유인이 최귀하고 유 만물지중에 유인이 最上最貴하니 사람이 있으면 예(禮)가 있고 예(禮)가 있으면 의식(儀式)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교의 1700년 역사속에 祖師님께 집필하신 의식집이야 말로 참으로 고귀하고 완벽한 의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문으로 된 의식집을 가지고는 어느 것을 먼저하고 어느 것을 뒤에 하는지 순서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때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합니다.
또한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빠르게 변해가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제례의식을 현실에 맞도록 모든 불교의식집을 토대로하여 초보자라 하더라도 집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총 1180페이지 법보가 ₩45,000

제1장 시 식 편 | 제2장 장 의 편 | 제3장 다 비 편 | 매 장 埋 葬
제4장 四十九齋 입재(入齋) 삼우재(三虞齋) 초재(初齋) 이재(二齋) 삼재(三齋) 사재(四齋) 오재(五齋) 육재(六齋) 칠재(七齋)
제5장 재 공 편 상주권공 삼정례 천수다라니 지장청 영산대재 괘불이운 건회소 영산작법 영산각배 운수상단 운수중단 배송(拜送) 예수십왕생칠재(預修十王生七齋)
제6장 기 제 사 | 제7장 靈魂結婚埴

■ 주문처 : 호국불교효예종 총무원 출판부 ■ 발행처 : 도서출판 도 승 ■ 편 · 저자 : 법왕불교대학장 신 법진 합장

☎ 02) 963-0607, H.P:017-361-1131 ☎ 043) 264-3008, H.P:011-9607-2199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2동 421-3번지 ■ 국민은행 : 027701 - 04 - 060958 ■ 우체국 : 013409-01-001220 예금주 : 호국불교효예종 총무원

현대불교 buddhanews.com
서기 2006년 7월 5일 수요일 (주간) 제 585 호



경기도 과천시 문화재 자료인 용운암 마애승상을 처음 발견해 시에 신고한 이기주씨(왼쪽)와 현재 지킴이 활동을 하는 이순자씨는 서로에게 큰힘이 되는 둘도 없는 도반이다.

과천 마애승상 지킴이 이기주 · 이순자 씨

뿌리없이 줄기와 잎 있을 수 있나요?

향기 도반의

"이 용운암 마애승상은 부처님의 얼굴을 새겨 놓은 대부분의 마애상과는 달리 활짝 웃고 있는 다섯 스님의 얼굴이 조각되어 있는 점이 특이합니다. 폭 9~14cm, 길이 10~15cm 크기인 각 스님들의 머리는 삭발한 형상이며, 얼굴에는 눈썹과 코, 미소띤 입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75년 당시에는 무너진 움막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문화재 보호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보고도 한동안 그냥 지나쳤는데 85년에 동국대에서 찾아와 조사하고 탁본을 하더니 조각 기법으로 보아 고려시대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6월 26일 오전 11시.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 뒤편에 있는 폐사된 백운사(구 용운암)옆 마애승상(과천 향토유적 제 4호) 지킴이 이순자씨(50)와 75년 마애승상을 처음 발견한 이기주씨(81)가 과천 문화재 지킴이들에게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문화답사에는 특별히 과천문화재지킴이 전성제 회장(67), 김광미 총무(48), 조영미(66), 조상철(65)씨, 과천자원봉사센터 직원 정현수씨가 참여했다.

과천문화재지킴이 회원들이 오전 10시 아침회의를 마친뒤 서둘러 길을 나선것은 이순자씨가 그동안 과천시에 끊임없이 요청해 최근 3개나 설치된 마애승상 가는길 표지판을 보기위해서다. 또 이순자씨가 그토록 공을 들이는 향토문화재를 보고싶다는 의견도 분분했기 때문이다.

"어머 여기에 금강문 소림굴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가느다란 눈, 오똑한 코, 반쯤 벌려 웃고 있는 입이 모두 비슷하네요"

"참 신기하네요. 얼굴을 보니 동자승처럼 보여요"

"과천에 이런 특이한 마애상이 있다는 것은 큰 자랑입니다"

과천 문화재지킴이 회원들은 이순자씨와 이기주씨의 안내를 차례로 듣고난 뒤 마애상을 세밀하게 뜯어보며 한마디씩 거든다.

마애승상이 86년 과천시 문화재 자료로 등록되는데 혁혁한 공로가 있는 이기주씨(국가유공자회 과천지회 회장). 이기주씨는 최근 과천 문원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재교육에 전념하고 있다.

"길도 없이 수풀로 가려진 마애승상 가는 길이 말끔히 정리된 것을 보니 이순자씨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무너진 돌무더기에 가려진 마애승상 부근도 아주 말끔하게 정비됐네요"

이기주씨는 마애승상 발견당시 용운사에 다니며 새벽기도를 하고 서예를 배웠다. 어느날 우연히 산속 바위틈에서 마애승상을 발견해 85년 과천시에 문화재 등록을 요청했다. 이후 마애승상은 동국대 사학과 조사단의 답사후 86년 과천시 문화재 자료로 등록됐다.

이기주씨는 "스님상이 특이해 우연찮게 얘기하고 보니 동국대에서 와서 조사하고 탁본까지 한 것을 보았다"며 "그 인연이 지금 문화재 지킴이 활동을 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기주씨의 바톤을 이어받아 2004년부터 현재까지 마애승상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는 이순자씨. 이순자씨의 열성적인 활동은 지난해 문화재청 문화재킴이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언젠가 절에 갔는데 대웅전 대적광전 보광전 관음전 비로자나전등 전각의 이름이 모두 다른 것을 발견했어요. 이것이 궁금해 문화재 공부를 시작했지요"

이순자씨는 이후 사찰문화학교에 입학해 불교문화와 역사를 공부했다. 이후 과천시 역사유적의 심장부가 관악산에 있는 신라고찰 연주암과 연주대임을 알게됐다고 말했다.

그래서 연주대를 설명하고 싶지만 관악산 꼭대기에 있으니 답사객을 안내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이순자씨는 마애승상에서 직선거리로 전방 400~500m에 위치한 보광사에서 중학생들을 상대로 사찰의 구조와 불교문화를 설명하는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순자씨는 학생들에게 항상 '뿌리'를 강조한다. 바로 '나뭇가지' 이론이다.

"여러분은 나무에 피어있는 꽃입니다. 부모님은 그 꽃과 연결된 나뭇가지이고, 조부모님은 부모님과 연결된 줄기이지요. 이 원리를 모르면 내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결국 꽃을 피우기가 힘들지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신의 뿌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조상들을 기억하고 되돌아보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보통 문화재 해설에서 벗어나면 싫어할 것 같아 주저하지만 이순자씨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꼭 학생들에게 얘기한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오히려 좋아한다. '또 절이냐'고 말하는 학생들도 이순자씨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의 절의 소중함을 새삼 인식한다.

"이순자 선생의 공로가 참 대단해요. 무슨 활동비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말도 쉬지 않고 봉사하는 것을 보면 참 놀라워요." (이기주씨)

"아니예요. 많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이기주선생님은 청소년들에게 문화재 교육을 하는데 한번도 빠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우리문화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큰지 느껴질 정도예요." (이순자씨)

서로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는 이기주씨와 이순자씨는 과천 문화재지킴이 봉사회원들과 함께 문화재 홍보프로그램 만들기, 답사활동 전개, 문화재 지킴이, 문화재 해설사로 눈 코 뜰 새 없는 분주한 나날을 함께하는 도반이다.

또 다른지역 문화답사 자료나 문화재청 교육내용을 서로 공유하기도 한다.

이기주씨와 이순자씨는 "폐사지의 기왓장 조각 하나도 버릴수 없는 소중한 문화재이자 역사의 흔적"이라며 "지역문화를 알리고 지키는 일에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있었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과천/글= 김원우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마애승상 지킴이 봉사활동 선후배 관계
이기주씨가 발견, 문화재 등록 일등공신
2004년부터 이순자씨가 맡아 주변 관리
지역문화 알리기에 푹 빠진 다정한 도반



梵魚寺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범어사 설선대법회 법문세트
문 없는 문을 열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10대 선사의
간화선 수행에 대한 상세한 법문을 만나보세요.



범어사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주최한
'범어사 설선대법회'의 열분의
법주스님들의 법문

■ 카세트테이프 10개 1세트

※ 설선대법회 CD, Video도 있습니다.
(각10,000원)

■ 30,000원 (무료배송)

체계적인
불교공부를
원하는분들께
최고의 법보시
(도반선물로 최상의 선택)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
법문세트

이 법문 세트는 광주 동구불교협의회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주최한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의
열분의 법주(미산 정무 현봉 혜거 자광 지운 재연 호진 도법 철우)
스님들이 2005년 10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광주광역시동구KT정보센터대강당에서 설법한 것입니다.

■ 카세트테이프 10개 1세트 30,000원 (무료배송) 낱개 3천원



■ 판매처 : 여시아문 www.yosiamun.com 02)737-0695, 02)2004-8219, 8220 [입금계좌 : 국민은행 023-25-0007-617 / 농 협 053-01-265785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69> 소소매(蘇小妹)

<관음예문>은 1748년(영조24년) 간행된 <범음집(梵音集)>에 실려 있다.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그녀가 지었다고 전해오는 것 자체가 그녀의 신심과 아름다운 마음씨를 대변해준다고 하겠다. <관음예문>속에서 수행자의 모습도 동시에 읽어낼 수 있다.

지나간 겁동안 쌓고 지은 죄/ 홀연히 한 생각에 없어지이다/ 블꽃이 마른 풀을 태워버리듯/하나도 남김없이 없어지이다

소소매의 선시 실력을 엿볼 수 있는 일화가 있다. 소동파와 황산곡(黃山谷)이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놀고 있었다. 산곡 황정견은 황룡조심(黃龍祖心)선사의 법을 이은 시인거사인지라 법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일가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소소매가 등장했다.



둘 다 아연 긴장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심심하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서 사람 떠보기를 좋아한 까닭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가 밝은 달을 잠시 바라보더니 이윽고 시를 읊기 시작했다.

산들바람에 가녀린 버들(輕風□細柳)
으스름 달빛에 매화(淡月□梅花).

그러고나서 두 사람을 보고 알듯 모를듯한 미소를 지으며 한 수 가르침을 청했다. 네모 안에 어울리는 글자를 넣어달라는 거였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실력테스터용 시험문제에 가깝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먼저 황정견이 '무(舞)'와 '은(隱)'을 이용해 답안을 작성했다.

산들바람에 가녀린 버들이 춤추고(舞)
어스름 달빛에 매화가 숨었네(隱).

하지만 돌아온 소소매의 평은 "너무 통속적이다"는 것이었다. 점수를 제대로 받지 못한 그 광경을 보고서 오빠인 동파가 몇 번 잔머리를 굴린 끝에 '요(搖)'와 '영(映)'을 넣었다.

산들바람에 흔들리는(搖) 가녀린 버들
으스름 달빛에 비치는(映) 매화.

누이동생은 이를 보고는 더 혹평을 했다. "매우 실질적이군요. 이전 사람들이 상투적으로 많이 쓴 글자라 새로운 맛도 없고…."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보고 입맛을 다실 뿐이다. 또 당했군. 그럼 네가 한번 해 봐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자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부(扶)'와 '실(失)'을 넣었다

산들바람은 가녀린 버들가지를 붙들고(輕風扶細柳)

으스름 달빛은 매화를 사라지게 하네(淡月失梅花).

두 사람 모두 "절묘하다" 면서 찬탄을 금치 못했다. 소소매가 보탠 두 글자는 보통사람의 눈에도 소동파와 황정견의 안목보다도 문학적으로, 선적(禪的)으로 한 수 위였다. '부(扶)'자를 사용한 것은 형체도 없고 그림자도 없는 바람의 모습을 드러내게 만들었고 '실(失)'자를 이용하여 담담한 달빛과 매화를 하나로 만들어 버린 솜씨를 보였다. 영락없이 드러내면서 숨기는 현은(現隱)의 중도법문이 된 것이다.

오빠 동파와 불법에 일가견 있는 시인 황산곡
소소매와 시 읊기 겨루다 "절묘하다" 찬탄

소소매를 생각하니 난설헌(蘭雪軒) 허씨(許氏)가 떠오른다. 작은오빠 허봉은 어린 난설헌에게 글을 가르쳤고 출가이후에는 붓도 선물하고 두보(杜甫)의 시집도 보내주곤 했다. 소설 <홍길동>의 저자인 동생 허균은 '자기보다 누나가 더 글을 잘 쓴다' 고 한 바 있다.

그는 누나가 요절한 후 남아있는 시들을 명나라 시인 주지번(朱之蕃)에게 보냈다.

중국에서 난설헌 시집이 간행되었다. 1711년에는 분다이야지로(文台屋次朗)에 의해 일본에서도 시집이 나왔다. 이미 그때 아시아 문화권을 아우르는 대 시인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여자로 태어난 것, 조선에서 태어난 것, 그리고 현재의 서방 만난 것을 원망하며 한 생애를 스스로 마감했다. 주변사와 가족사가 받쳐주지 않으니 소소매처럼 여유있는 선시(禪詩)까지 남길 여력은 없었나 보다.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집중력 쑤~욱 높아졌네

참선수행 어른들만 하나요?

참선수행은 더 이상 어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전국 어느 사찰에서든 청소년들이 가부좌를 틀고 좌선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연령에 관계없이 참선수행이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조계종은 이런 흐름을 반영해 지난해 '간화선 청소년 프로그램' 전담팀을 구성하고 교안을 작성 중이며, 7월말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폭넓게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 참선수행.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가. 그리고 방학을 맞아 참선수행을 할만 한 곳은 어디일까.

●청소년들이 참선 배울 수 있는 곳

장소	프로그램(시간)	연락처
서울 금강선원	참선교실(매주 일요일 오전 9시)	(02)445-8484
서울 화계사	참선법회(매주 일요일 오후 1시)	(02)900-4326
서울 임제선원	참선법회(매월 첫째·넷째 일요일 오전)	(02)888-6397
서울 보리수선원	위빠사나 수행(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청소년 명상캠프(7/20~22, 8/17~19)	(02)517-2841
서울 길상사	여름 선수련회(7/23~26)	(02)3672-5945
부산 우곡선원	참선교실(매월 넷째 토요일 오전 10시) 부모와 함께하는 참선교실(7/29)	(051)740-6288
괴산 다보수련원	청소년 명상캠프(7/25~28)	(043)833-7789

 # 청소년에 부는 참선 '바람'

6월 25일 오전 9시 서울 개포동 금강선원. 40명의 청소년들이 반가부좌를 튼 채 수련실 바닥을 응시하고 있다.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이 사이사이를 다니면서 자세를 바로잡아준다. 매주 일요일 오전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요즘에는 참선을 시켜보겠다는 학부모들의 문의가 계속 늘고 있다.

부산 우곡선원에서는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오전 10시가 되면 70~80명의 청소년들이 참선수행을 하러 몰려든다.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참선수련은 선체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병행되면서 인기가 높다.

서울 봉천동 임제선원에서도 매월 첫째·넷째 일요일 오전에 부모와 청소년들이 함께 하는 참선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며, 서울 수유동 화계사도 매주 일요일 열리는 참선법회에 청소년들의 참가를 유도하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 보리수선원은 매주 일요일 오전 위빠사나 수행을 하는 청소년들로 붐빈다. 서울 길상사와 보리수선원 우곡선원 등은 방학 기간 동안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수련회를 갖는다.

 # 참선, 이래서 좋다

"솔직히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학교 공부에 도움이 돼서 너무 좋다. 집에서도 계속 하고 있다."

부산 우곡선원 참선교실에 참가한 주례여자중학교 김난우(15)양을 비롯해 대부분의 참가 학생들은 참선교실에 참가한 뒤 몸이 펴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 너무 좋다고 말한다.

1년 전부터 아이를 우곡선원 참선교실에 보내고 있는 김미라(38·부산 사하구)씨는 "폐쇄적이고 의사표현이 정확하지 않았던 아이가 참선교실을 다닌 뒤로는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말한다.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은 "청소년 참선은 깨달음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지구력과 집중력을 키우는 훈련으로 봐도 무방하다"며 "두세 달 꾸준히 참선을 한 아이들은 집중력이 높아지면서 암기력이 눈에 띄게 향상됐고, 아이들 스스로가 자신이 변하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 청소년 대상 '간화선 프로그램'

조계종 포교원이 마련 중에 있는 중고생 대상 '간화선 프로그램'의 중심 키워드는 '간화선을 느낌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론적 설명이 아닌, 체험하고 그 체험을 통해 갖는 느낌으로 간화선을 이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집중력과 지구력을 높이고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며 인성개발에도 주안점을 두게 된다.

인성 프로그램은 중도·정견·무아·공·사성제 등에 대한 접근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를 개념정리식이 아닌 예화와 체험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신문지에 구멍을 뚫고 몇 명의 아이들에게 얼굴을 넣게 하고 한 아이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신문지가 찢어지면서 전체를 망가뜨리게 한 뒤 연기법을 설명하거나, 하나의 물건을 완전히 해체시키면서 공(空)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인성교육을 겸한 불교 이해를 넓힌 다음에는 특정 주제를 놓고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집중력을 높이는 훈련을 거치게 되고, 이 과정이 끝나면 화두를 들고 간화선 실참을 하게 된다.

포교원은 이와 같은 중고생 대상 간화선 프로그램을 7월 25~28일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열리는 청소년 명상캠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그리고 올해 안으로 교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지구력·학습능력 향상 딱!
주말 프로그램 인기 높아
꾸준히 할 수 있게 격려를

 # 단기효과와 기대 금물

청소년 참선수련시 주의할 점은 단기간에 무엇인가 이뤄야 한다는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부산 우곡선원 정경남 법사는 "부모들이 단기효과를 기대하고 참선교실에 보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 "단시일 내에 어떤 결과를 얻으려 하지 말고 꾸준히 수련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집에서 할 때는 절에서 배운 대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최소 40분 정도 참선을 한 뒤 쉬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앉아있는 것이 힘들지 않게 되며 습관들이기가 쉽다. 모자나 목걸이 같은 액세서리는 삼가며, 너무 밝거나 어두운 곳은 피한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부산 우곡선원 '참선교실'에서 참선수련을 하고 있는 중고생들. 이들은 참선이 집중력과 지구력을 길러주면서 학습능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한다. 사진제공=우곡선원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Avatar 밝은길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 (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한다.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 문의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도솔암
전화번호 : (031)775-1285 지수 대진 합장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 해독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지면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옥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소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 록 원 (팔보효소)

실기 훈련을 위주로 하는
설법 연수생 모집

● 교육목표
각 개인별 특수성을 파악하여 설법의 실기 연수과정을 통한 능력배양, 자료를 재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 시킬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교육내용
1. 정체성 확립(가치관&성격)
2. 단전호흡의 이론과 실제
3. 설법의 개념 및 부처님의 5종 설법
4. 설법자료에 의한 연수
5. 음성언어와 몸짓언어의 실제
6. 원고 작성법(자료의 재구성)
7. 표현상 修辭 및 논리상의 修辭
8. 상담&대화의 이론 및 실제
9. 회의진행법, 토론 및 각종 사회진행 요령
10. 인사말, 축사, 격려사, 주례사 등 요약

◆ 특징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 모집 : 종합반 - 수시접수 5명이내
※ 맞춤식 개인지도 - 총 8회과정

◆ 문의 및 신청 ◆
TEL 02)747-1567 / H·P 011-248-1567

한국설법연수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3,5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은퇴후에도 후배 불자들의 신행을 돕는 '노장' 불자들이 있다. 서상태 법사(왼쪽 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는 퇴근시간 이후에도 후배들을 만나 신행상담을 한다. 안홍부씨(오른쪽 사진 가운데)는 감사원 불자들의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다.

은퇴 후 후배 돌보며 '이모작 신행'

▷후배들의 '지팡이' 되련다

경찰불교회의 백전노장 서상태(69) 법사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퇴직과 함께 불교대학과 불교대학원에서 5년간 불교교리와 불교의식을 공부하고 후배 경찰불자들과 만나고 있다.

37년간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지역에서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수행해오다 1998년 퇴직한 후 이제는 '후배들의 지팡이'를 자임하고 있는 것이다.

매월 한 차례씩 서울 강북경찰서(구 북부경찰서)와 중랑경찰서를 찾아 법문을 하는 서 법사는 전국 방방곡곡 후배들이 부르는 곳이라면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것'도 마다않는다.

서 법사는 6월 27일에도 절친한 도반인 김진홍(69) 법사와 함께 왕복 4시간 거리인 인천까지 다녀왔다. 바로 해양경찰청 불자회 창립법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서 법사는 "여기저기 다니다보면 육체적으로 힘들때가 많지만, 그래도 퇴직을 앞둔 후배들이 경찰포교에 동참하겠다는 말을 할때 힘이 난다"며 발걸음을 옮긴다.

▷신행상담은 내 몫!

감사원에 30여년간 재직하다 지난해 3월 퇴직한 안홍부(61)씨는 후배들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이하 공불련)와 감사원 불자회 창립을 주도하면서 공무원 불자들의 살아있는 '신화'로 불리는 안씨는 후배들의 직장 내 고민은 물론이고 신행방향을 정확히 짚어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

'중국통'으로 꼽히는 안씨는 공불련과 감사원 불자회가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중국성지순례를 위해 중국의 불교성지를 수차례 답사하기도 했다.

6월 27일 후배불자들을 만난 안씨는 "지방 출장이 많은 감사원의 업무 특성상 함께 모이는 것에 우선 신경을 써야 한다"며 "여름휴가 직전이 법회를 하기에 좋은 시간"이라고 후배들에게 충고했다. 안씨는 또 "여름에는 건강관리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며 후배들의 건강을 챙기기도 했다.

감사원 불자회 장병원 총무는 "법회에 법사스님을 섭외하는 것과 최근의 신행 흐름을 짚어주는 모습에서 대단한 내공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곤 한다"고 귀띔한다.

직장불교 'O3파워

'고령화'. 우리 사회의 특징을 반영하는 말 중의 하나다. 최근 들어 '저출산'과 함께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기도 하다.

고령화는 불교계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종교인구분포 현황을 봐도 그렇고 현재 드러나고 있는 불교인구의 특성을 보더라도 '불자들의 고령화'는 이미 상당히 진행됐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현직에서 은퇴했지만, 후배들의 신행생활을 돕고 있는 '고령' 불자들이 있어 화제다.

이들은 일터불심을 일으키는 야전사령관의 역할은 물론이고 후배들이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까지 보듬는 후원자 역할까지 해내며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고령' 불자의 후배 챙기기,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들여다본다.

불교교리 전문지식 쌓아 법사활동
"간화선 지도하겠다" 공부 열심
성지순례 준비·법당청소도 척척

▷법회 준비 도맡은 '법당 보살'

용산에 있는 서울철도차량관리단에서 법당을 관리하며 후배불자들의 신행을 돕고 있는 이일승(63)씨. 이씨는 다소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다. 현직에 있을 때부터 '법당 보살'을 자임하며 매일 새벽 6시면 어김없이 법당에 나와 청소와 정리를 도맡았던 이씨는 2001년 6월 퇴직 이후에도 법당 관리를 계속했다.

이런 이씨의 모습에 부처님도 감동했는지 차량관리단은 이씨를 다시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했고, 이씨는 하루하루 부처님 품에서 일과 신행을 계속하고 있다.

불자회의 초하루·보름 법회 준비와 마무리를 도맡아 하고 있는 이씨는 "불자회원들이 줄어들어 안타깝지만, 그래도 후배들이 편안하게 법회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나의 임무"라고 말한다.

▷기다려라, 후배들이여!

상업은행 불자회에서 활동하다 98년 퇴직한 황정석(62)씨는 '아름다운 회향'을 준비하고 있다. 퇴직 이후 국내외 성지를 돌아보며 심신을 충전한 황씨는 최근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진행하고 있는 '간화선 수행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고우 스님의 <육조단경> 강의를 듣고 있다. 평소 선(禪) 공부에 관심이 많았지만, 마땅한 기회가 없었던 차에 황씨는 "제대로 배워보자"는 생각에 각종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공부에 열심이다.

황씨가 이렇게 선(禪)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바로 후배들에게 자신이 공부했던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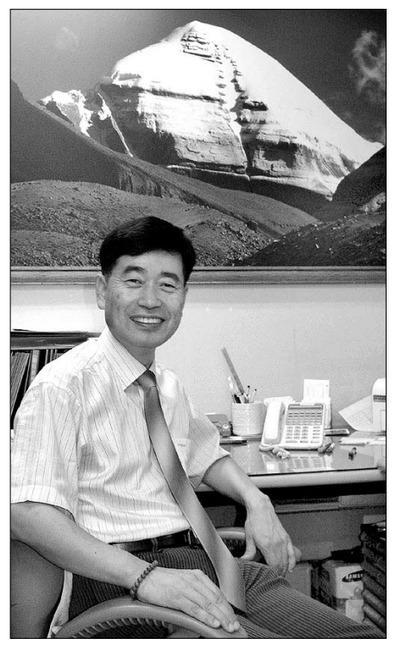
황씨는 "그래도 한국 전통 수행법은 '간화선'이 아니냐?"며 "나중에는 간화선 지도사 자격증을 따서 금융단 불자회 후배들과 만나고 싶다"는 '원력'을 숨기지 않는다.

글 · 사진=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일터가 도량입니다

불교성지가 일터인 '행운아'

실크로드여행사 **이상원** 사장



이상원 사장은 불교성지가 일터인 '행운아'다. 이 사장은 불자들에게 보다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쉼없이 공부하는 학구파이기도 하다.

불자라면 누구나 부처님과 대조사(大祖師)들의 흔적을 따라 구도 열정을 불태우고 싶은 생각을 한다. 그곳이 인도건 중국이건 네팔이건 상관없이 말이다.

이런 점에서 실크로드여행사 이상원(51 · 법홍) 사장은 일반 불자들의 부러움을 많이 사는 사람이다.

1989년 여행사를 개업한 이후 '성지'에만 300여 차례 이상 다녀왔다. 지금도 1년 365일중 200일 이상을 '성지'에서 보낸다.

"제가 아마 전생에 부처님이나 큰 스님들을 곁에서 모셨나 봐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행복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가기 전 들른 조계사에서 우연찮게 무진장 스님의 법문을 듣고 발심한 이 사장은 군대를 마치자마자 동국대 인도철학과에 입학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시작한 일도 여행사에서 불교성지여행을 담당하는 일이었다. 인연(因緣)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왕 시작한 일, 성지순례를 전문적으로 하는 여행사를 설립하게 됐고 지금에 이르고 있다.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時便正覺)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직도 저는 그때의 감동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부대중을 모시고 성지를 찾을 때 일어나는 환희심에 눈물을 흘린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장에게도 고민은 많다. 장기간 집을 비우다 보니 함께 사는 부모님과 아내, 두 아들에게 항상 미안하다.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아이들은 어느새 대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생이 돼 버렸다. 또 이 사장만큼이나 오랫동안 해외에 머물고 있는 직원들의 안전 문제도 항상 점검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은 모두 부처님의 가피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가족, 직원들과 함께 '부처님 밥값'을 해낼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야죠."

함께 성지순례를 했던 대중들이 찾아와 꾸준하게 정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할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는 이 사장은 최근 들어 직원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성지순례객들이 정확하고도 상세한 설명을 들어야 '제대로' 성지를 둘러봤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8명 전원이 참석하지는 못하더라도 직원들이 함께 대화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능한 많이 마련하려 노력한다.

"일이 잘 알될 때는 조계사 대웅전에 앉아 가만히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렇게 있다보면 저의 잘못을 하나 둘 알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 힘을 얻고 사무실에 오면 한결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사장은 오늘도 환한 얼굴로 불자들을 맞는다.

글 · 사진=유철주 기자

양지 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승무북, 모듬북, 장고, 징, 꽹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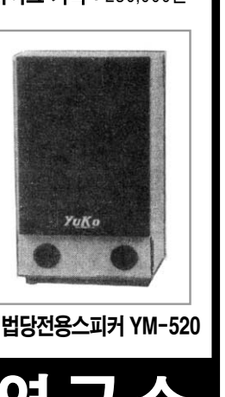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011-264-3439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사찰, 법당, 앰프 전문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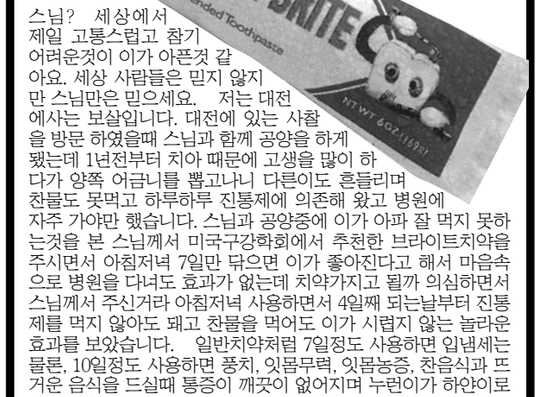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하계 특별수련안내
참나의 지복을 체험하는 여정
7, 8월 기간에 하계 순일프로그램 4단계 전과정 24박25일 코스를 2차에 걸쳐 진행 합니다.
◆ 1차 : 7월 8일 - 8월 1일
◆ 2차 : 8월 2일 - 8월 26일
교육내용
● 무의식에 저장된 죄의식, 분노의 감정들을 녹임
● 미세한 감정들과 몸이 정화되는 과정
● 대상과 하나되어 기쁨과 희열을 느끼는 과정
● 대상을 넘어 무심(삼매)에 드는 과정
프로그램지도
● 순일 선생 : 현, 순일수련원장
전, 정신세계원 '삼매교실' 강의
전, 미내사 금강경 강의
전, 부산 자광선원 금강경 강의
저서 : 1.삼매 2. 방어할 두려움 없는 자유
◦ 수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순일명상 홈페이지 http://www.soonil.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수련문의 및 신청은 순일명상 홈페이지 "수련문의 및 신청"이나 전화 031)771-9765 로 하시기 바랍니다.
순일명상

기적의 치약
스님과 불자님!
지긋지긋한 치아
美國브라이트로 7일만 닦으시면 고생 끝!
스님? 7일만 닦으시면 고생 않하십니다.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럽고 참기 어려운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저는 대전에서는 보살입니다. 대전에 있는 사찰을 방문 하였을때 스님과 함께 공양을 하게 됐는데 1년전부터 치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다가 양쪽 어금니를 뽑고나니 다른이도 흔들리며 찬물도 못먹고 하루하루 진통제에 의존해 왔고 병원에 자주 가야만 했습니다. 스님과 공양중에 이가 아파 잘 먹지 못하는것을 본 스님께서 미국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치약을 주시면서 아침저녁 7일만 닦으면 이가 좋아진다고 해서 마음속으로 병원을 다녀도 효과가 없는데 치약가지고 될까 의심하면서 스님께서 주신거라 아침저녁 사용하면서 4일째 되는날부터 진통제를 먹지 않아도 돼고 찬물을 먹어도 이가 시렵지 않는 놀라운 효과를 보았습니다. 일반치약처럼 7일정도 사용하면 입냄세는 물론, 10일정도 사용하면 풍치, 잇몸무력, 잇몸농증, 찬음식과 뜨거운 음식을 드실때 통증이 깨끗이 없어지며 누런이가 하얀이로 美白도 됩니다.

※ 五福중의 으뜸가는 치아를 보존하는데 기적의 약초 치약으로 충분합니다.
가격은 50,000원입니다.

수입판매원 금강닥터사
TEL : (02)2271-1441 농협:360-12-046446 최능우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28> 어리석은 마음으로 도를 닦는 것

보통 선가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마음'이란 '가야 할 목적지를 모르고 공부하는 마음'을 말한다. 서울에서 출발하여 부산으로 가려면 남쪽으로 향해야 하는데 어리석게 북쪽 길로 가고 있다는 뜻이다. <선가귀감> 28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迷心修道 但助無明

어리석은 마음으로 공부하는 것은 오로지 무명만 더 키울 뿐이다.

앞서 말했듯이 어리석은 마음이란 가야 할 목적지도 모르고 공부하는 마음이다. 여기서 목적지는 '깨달음'이 비유하고 공부는 '화두를 챙기는 것'에 비유해서 한 말이다. 그렇다면 깨달음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깨달음이란 중생의 시비 분별에서 벗어난 부처님의 지혜요, 이 지혜로 보는 부처님의 세상을 말한다.

<원각경>에서는 이 깨달음을 '원각(圓覺)'이라 하고, <화엄경>에서는 '법성(法性)'이라고 표현한다. 신라의 화엄종조로서 유명한 의상(義湘)스님은 <법성게(法性偈)>에서 '법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法性圓融無二相 諸法不動本來寂
無名無相絶一切 證智所知非餘境
법성은 원융하여 두 모습 없어
모든 법은 부동이고 본래가 적정
이름이나 모양 없어 모든 길 끊겨
깨쳐야만 알 수 있지 다른 길 없네.

선종에서 불법(佛法)이란 '바로 깨쳐야 하는 어떤 것'을 말한다. '모든 법의 근본성품[法性]'을 깨쳐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언어문자의 이해로써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법성은 모든 말과 형상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말로 표현할 수 없고 형상으로 그려낼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말과 형상에 의지하여 깨달음을 알 수 있겠는가? 법성이란 깨달음은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어서 알 수 있는 모든 길이 끊어졌기 때문에, '깨친 지혜[證智]' 곧 '부처님의 지혜'로써만 알 수 있지 다른 것으로써는 알 수 없다. 모든 부처님이나 조사스님들이 깨친 법성은 참으로 깊고 미묘하다.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사량 분별이 없어진 자리로서, 오직 깨쳐야만 알지 언어문자로써는 알 수가 없다. 그런데도 언어문자로써 사량 분별하여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다. 이것은 중생의 무명만 더 키울 뿐이다.

어리석은 마음은 무명만 키울 뿐
확실한 목적지 알고 화두 챙겨야

불교(佛敎)란 마음을 깨치는 데 근본이 있다는 것을 선종에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언어문자로 근본을 삼는 교가(敎家)의 으뜸인 화엄종에서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이같은 <법성게> 내용에서도 알 수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바른 깨달음을 이룰 수 있을까?

서산 스님은 말한다.

悟若未徹 修豈稱眞哉 悟修之義 如膏明相賴 目足相資.

부처님의 세상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서 하는 공부를 어찌 참 공부라고 할 수 있겠는가? 부처님의 세상을 확실히 알고 공부한다는 뜻은, 기름과 불이 서로 의지해야 밝은 불빛이 있고 눈과 발이 서로 도와야 먼 길을 걸어 갈 수 있는 것과 같다.

함허득통 스님도 <원각경> 보현보살장을 해설한 대목에서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기름과 불은 서로 의지하고 눈과 발은 서로 돕는다. 불이 기름을 얻지 못하면 밝은 불빛은 타오를 수 없고, 발이 눈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몇 발자국밖에 걸을 수가 없다. 불은 기름을 얻어서 더욱 밝아져야 그 불빛이 사라지지 않고, 발은 눈이 있음으로 더 먼 길을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원각[圓覺-깨달음, 부처님의 세상]을 알고 하는 수행은 불빛을 환하게 밝혀주는 기름과 같고, 수행을 하는 데 원각에 대한 이해는 먼 길을 가는 데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눈의 역할과 같다. 원각을 알고서도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 앎은 반드시 공허하고, 수행을 하면서도 원각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수행은 반드시 몇 걸음 나아가지를 못한다. 이 때문에 수행을 하고자 하면 모름지기 먼저 원각을 알아야 하고, 이미 원각을 알았다면 모름지기 수행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문수보살은 먼저 '맑고 깨끗한 원각'을 알게 하고, 보현보살은 이 깨달음에 의지하여 수행을 하게 하였다." 함허 스님은 게송으로 이 뜻을 다시 말한다.

正解已成須起行 普賢所以問其方
離幻拂到無所離 不可離者是眞常
원각의 뜻 알고 난 뒤 실천수행 해야 할새
이 때문에 보현보살 수행방편 물어보니
幻을 떨쳐 떨칠 幻이 남김없이 사라지면
幻 사라진 이 자리가 영원한 생명터라.

깨달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없이 무턱대고 공부하는 것은 동쪽으로 가야할 길을 서쪽으로 가는 것과 같아서, 깨달음과는 더욱 멀어지고 더 어리석어져 중생의 무명만 더 키워 나갈 뿐이다. 공부의 목적을 정확히 알고 난 뒤 방향을 잡아야 차근차근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가까워질 것이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 깨달음이란 확실한 목적지를 알고 난 뒤에 화두를 챙겨야 참다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cafe.buddhapia.com/community/wonsun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전도

"교회에서 전도활동을 많이 한다지." 흔히 전도(傳道)하면 타종교의 적극적인 선교활동을 떠올리게 됩니다. 국어사전을 펼쳐보아도 '주로 기독교에서 그 교지(敎旨)를 전해 신앙을 갖도록 인도하는 일'이라고 정리되어 있을 정도지요.

하지만 전도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룬 것과 함께 시작된 역사적인 것으로서 불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부처님의 '전도활동'은 베나레스에서 설법한 초전법륜에서 시작되죠. 초전법륜이란 최초로 법의 수레를 굴리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이 최초의 설법을 통해 방대한 불교사상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도는 '전법'이란 용어와 동의어로 쓰입니다. 부처님은 초전법륜을 통해 전도의 의지를 다지게 되죠.

<불본행집행경>에서는 "이제 모든 천인과 인간들 속에서 그들을 제도하라. 많은 사람의 이익과 안락 위해 가도록 하라…나도 가서 교화하겠다"고 전합니다. 불자 여러분! 불교용어를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것도 신행입니다. **김철우 기자**

행복동 사람들

부부의 인연

배종훈 (bjh4372@hanmail.net)



cafe.buddhapia.com/community/happy dong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103)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49강 야부의 노래, "물이 물길에 들었다"

절벽에서 손을 놓는 것이 장부

경봉 스님의 <금강경>을 듣고 나니, 야부의 노래를 그냥 지나칠 수 없다.

1. 金佛不度爐, 木佛不度火, 泥佛不度水. 三佛形儀總不眞, 眼中瞳子面前人. 若能信得家中寶, 啼鳥山花一樣春.

"금부처는 용광로를 견디지 못하고, 목불은 불길을 뚫지 못하며, 진흙으로 만든 부처는 물에 그만 뭉개지고 만다. 이 세 부처의 형상은 진짜가 아니다. 눈동자는 그저 눈앞의 사람을 마주볼 뿐. 진실로 집안의 보물을 얻고나니, 문득 우짖는 새 산꽃이 다들 봄을 노래하고 있더라."

– "눈동자는 눈 앞의 사람만 본다"가 무슨 말일까. 1) 신문을 읽든 뉴스를 보든, 남의 말에서, 또 학자들의 게임인 발제와 논평에서든, 사람들은 그 말의 꼬투리를 잡고 싶어한다. 그 전에 잘 듣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데 정말 어렵다. "경청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 성공한다." 2) 자기 수준만큼 세상을 본다. 세상에 대해서 말하는 시각, 남을 평가하는 언사는 곧 그 사람의 지적 수준과 자신의 가치를 그대로 보여준다. 흡사 거울과 같다. 무학대사의 만고 격언처럼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3) 위의 둘은 한담이고, 지금 야부의 노래는 인간의 눈이 밖을 향해 있다는 것, 그리하여 우리는 늘 밖을 향해 헉헉대고, 그리하여 내면적으로는 불안하고 빈곤하다는 실존적 사태 하나를 알려주고 있다.

돈교(頓敎)를 기억하라. 혜능과 야부가 한 목소리로 외친다. "너는 부자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보다 투자의 귀재라는 워랜 버핏보다 더 부자다. 진짜다."

<무문관>에는 청세의 구걸이 실려있다. "저, 청세는 외롭고 가난합니다. 스님께서 좀 베풀어주십시오."

조산이 딱하다는 듯이 말했다. "이보시오, 청세! 청원의 백가주를 석 잔이나 들이키고도 입술을 축이지 못했다 하시오."

2. 種瓜得瓜, 種果得果. 一佛二佛千萬佛, 各各眼橫兼鼻眞. 昔年親種善根來, 今日依前得渠力. 須菩提, 須菩提, 著衣喫飯尋常事, 何須特地卻生疑.

"오이를 심어 오이를 얻고, 과일을 심으면 과일을 얻는다. 한 부처 두 부처, 천만 부처를 보아하니, 하나같이 안횡(眼橫)에 비직(鼻眞)이라. 눈은 옆으로 찢어지고, 코는 아래로 뻗어있네. 예전에 심은 선근, 오늘에 그 힘을 얻었으니, 수보리여, 수보리여, 옷 걸치고 밥 먹는 이 일상사에, 다시 무슨 일을 기대하고 의심을 내는가."

– 보물은 자기 안에 있으나, 발견하기 전까지는 아직 자기것이 아니다. 6바라밀, 베풀고, 참고, 규율을 지키고, 정진 노력하고, 좌선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을 환상없이 바라보는 통찰력을 키우면, 모든 부처들이 얻은 그 열매를 너도 얻을 수 있다. 장담한다. "콩 심은데는 콩이 나게 되어있다." 그 보물이 기지개를 켤 때, 외부의 영향력을 줄어들고, 내면의 충만과 고요는 더욱 깊어간다. 하나 유의해야 할 것은 이 축복은 일상의 자연일 뿐, 괴력이나 마술같은 초자연적 힘이나 사람들을 지배하는 권능이 아니라는 점이다. 제발 신통에 목매달지 마라.

3. 圓同大虛, 無欠無餘. 法相非法相, 開拳復成掌. 浮雲散碧空, 萬里天一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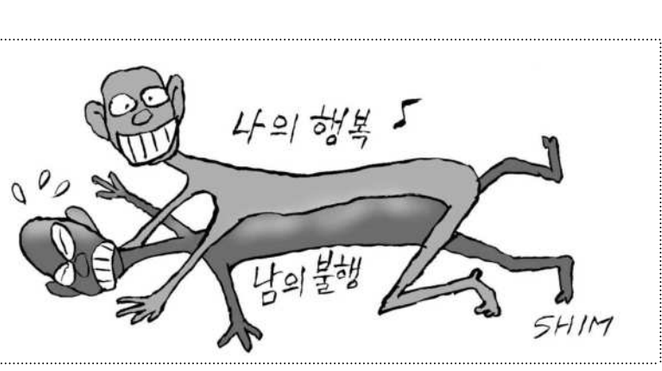
"세상은, 그리고 너도 완전하다.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다. 진리와 비진리 사이라, 주먹을 펴면 손바닥이다. 뜬 구름은 푸른 하늘로 흩어지고, 만리는 다만 한 하늘로 길게 걸려있다."

– 쇼핑하러갈 때는 공복에 가지말라는 아줌마들의 지혜가 있다. 배고플 때 운전대를 잡으면 조급해지고 난폭해진다. 누가 끼어들면 성질부터 낸다.

일시적 생리학적 결핍은 적절한 조처로 쉽게 해결된다. 문제는 심리적 결핍이다. 늘 허기져 있고, 불안한 사람이 있다. 탐욕과 공격성은 그 징후이고 결과이다.

불교의 바라밀은 이들을 치유하는 처방이다. '뜬 구름'은 벌떼처럼 머리속을 앵앵대며 오가는 상념들, 즉 심리적 분열과 결핍의 파편들을 상징한다. 바라밀의 수행실천과 더불어 의식이 통합되고, 그와 더불어 상념과 이미지들은 점점 희석되고 약화되다가 결국 흩어진다.

<금강경>은 이를 일왕래(一往來)에서 불래(不來)의 진행으로 설명한다. 어떤 사건의 흔적들은 찌꺼기로 남아 마음의 바탕을 물들이다가, 그 상념들은 결국 더 이상 훈습되거나 반복되지 않는 경지에 이른다.



"구름 걷힌 하늘이 온통 푸른 한 빛이다!" 마음에 결핍과 분열이 없을 때 세상은 당연히 완전하다! 그때 우리는 구분은 하지만 차별은 없다.

4. 金不博金, 水不洗水. 得樹攀枝未足奇, 懸崖撒手丈夫兒. 水寒夜冷魚難覓, 留得空船載月歸.

"금은 금을 주조하지 못하고, 물로는 물을 씻지 못한다. 나무에 올라 가지를 휘어잡는 것은 신기할 것이 없다. 아득한 절벽에서 손을 놓아버리는 것이 진정 장부이다. 물은 차고 밤은 추워 물고기 흔적이 없으니, 빈 배에 달빛을 실어 집으로 돌아올 뿐."

– 우리는 진리를 책을 통해, 이미지를 통해 접근하는데 익숙하다. 그 바탕에 나는 지금 비참한 중생이라는 생각이 있다. 나 중생은 이제 이런 저런 유위(有爲)의 방편을 쓰고, 한편 부처 등 외부의 힘에 의지해서 저 행복의 언덕으로 건너가리라는 점차(漸次)의 기대가 있다. 이 점교(漸敎)의 길을 야부는 "나무를 의지해서 가지를 휘어잡는다"로 비유했다. 그러나 진리는 지성의 구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해체를 통해서 만난다. 저 언덕은 여기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미 와 있다! 행복에 이르기 위해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왜냐. "너는 이미 다이아몬드 칠보(七寶)를 은하수만큼 가진 부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의존을 그치고, 절벽에서 그만 손을 놓아라. 나머지는 불성이 자연 길을 인도할 것이다. 이를 어느 시인은 "잊어버림으로써 기억한다"고 썼다.

때로 우리는 원래의 맥락과 의미를 놓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옛글들을 쓰기도 하는데, 그 둘 사이의 엇갈림과 충돌을 곱씹다가, 가끔 손뼉을 치거나 밥알을 튀기기도 한다.

5. 水到渠成. 終日忙忙, 那事無妨. 不求解脫, 不樂天堂. 但能一念歸無念, 高步毗盧頂上行.

"물이 드디어 물길에 들었다! 종일을 바쁘지만, 무슨 일이든 무슨 상관이랴. 해탈을 구하지도 않고, 천당을 기꺼워하지도 않으니…. 다만 일념을 무념으로 돌릴 수 있어, 비로봉 정상을 어깨 펴고 걷는다."

– "물이 드디어 물길에 들었다." 정신적 신체적 에너지들이 자연의 길을 따라 흐르게 되었다는 뜻이다. 슬프면 웃고 기쁘면 웃는다. 그의 마음은 무념(無念)이라, 비어있기에, 상황에 따라 자극에 따라 반응한다. 주자학이라면 이를 "소리개는 하늘에 날고, 물고기는 연못에서 뛴다!"고 표현하기를 즐겨 한다.

영어에 샤덴프로이데(Shadenfreude)라는 말이 있다. 기원은 독일어인데, 이 말은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인간 내부의 오래된 사악함을 지적한 말이다. 이렇게 오물로 덮여 있으면, 불성의 물은 제 길을 가지 못하고 시궁창처럼 썩고 만다. 이 비참한 삶을 종식시키고 싶지 않은가. 정화하자,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이 시궁창을 대청소해야 한다. 그러고 싶어한다면, 그럴 수 있다. 누구나….

■**한국학중앙연구원**

cafe.buddhapia.com/community/plan_14

자녀 교육 지침서 2권 동시 출간

우리 아이를 지혜롭게 키우려면?

인격을 존중하고 대화를 많이 하라

어찌해야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불성의 꽃을 피울 수 있을까? 부처님 가르침을 교육의 푯대로 삼는 김종서 박사(서울대 명예교수)가 자녀교육 길잡이서로 <반야의 지혜를 먹고 자라는 아이들>을 발간했다. 이 책은 1998년 발간된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의 개정증보판이다. 총 32편중 6편을 새로 실었다.

지난 30년 동안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불경을 독송하는 것으로 하루를 열었다는 김종서 박사. 김 박사는 "자아실현 중에서도 최고, 최상위에 있는 것이 종교적 자아실현"이라며 "개인의 능력 차를 인정하고 거기에 맞는 설법을 하신 부처님처럼 우리도 학생들의 개인차를 존중하여 각자의 개성을 꽃피우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박사는 "인간이란 어떤 기대의 제시를 받고 이를 확신하면 제시된 기대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알맞은 행동을 하게 된다"고 밝힌다.

이 책에는 자기 충족 예언의 구체적인 사례를 현실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즉 '일체중생 실유불성(一切衆生 悉有佛性)'이 그것. 김 박사는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는 불성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받아들이고 확신하면 그 사람은 부처님 말씀의 테두리에 알맞은 행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또 오늘날의 어른들에게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자녀 및 학생과의 대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유용한 지침들에 대한 설명도 있다.

김 박사는 "불경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해 채택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대화법"이라며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고, 자유스럽고 공감적 이해의 토대에서 대화하며, 격려하고 칭찬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물질과 쾌락 위주의 사회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한 주체성의 확립 방안 등도 제시되고 있다.

저자 스스로 평생토록 매달려 온 '반야의 지혜를 삶의 중심에 세우기 위한 실천적인 교육법'은 창의성을 기르도록 해주는 것. 왜냐하면 정보화 사회를 이끌어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창의성이 풍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교수는 창의성을 '반야사상의 속세적 출현'이라고 주장한다. 반야는 깨달음을 얻는 지혜이기 때문에 창의성과는 차원이 다르지만 창의적 특징은 반야를 얻기 위한 과정과 흡사하다고 설명한다.


김종서 박사

그렇다면 창의적 청소년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갖추어야 할까? 김 박사는 '탐구(참구)' '직관적 사고' '다양한 사고' '몰두' '를 꼽는다.

'족집게 칭찬'이 집중력 높여준다

학교 부적응아 에디슨, 입시 낙방생 아인슈타인, 학습 부진아 피카소는 지능이 높아서가 아니라 집중력이 있었기에 천재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천재는 99%의 집중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고도 한다.

잠깐이면 끝마칠 수 있는 숙제를 계속 붙들고 있고, 공부중에 멍하니 딴생각에 빠져 선생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책상 앞에 5분도 앉아 있지 못하고 엉덩이를 들썩이는 아이들은 모두 집중력이 부족한 아이들이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집중력은 어떻게 길러줄까?

아동 및 청소년의 집중력 문제 전문가인 이명경(한국집중력센터) 소장이 발간한 <집중력이 내 아이의 인생을 결정한다>에 수록된 독창적인 집중력 트레이닝 노하우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소장은 아이의 집중력을 올려주는 4가지 칭찬기술로 첫째 '족집게 칭찬'을 꼽는다. 아이를 칭찬할 때는 무엇을 어떻게 잘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알려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칭찬을 해주는 게 좋다는 것이다.

둘째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노력 여부에 관계없이 좋은 결과에 대해서만 칭찬하면 아이는 칭찬받기 쉬운 단순한 과제만 좋아하게 된다. 그래서 완벽하게 잘하지는 않았어도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면 그 점을 부각해서 칭찬해줘야 한다고 말한다.

세 번째는 '다양한 영역에서 골고루 칭찬하라'는 것이며, 네 번째는 환한 미소, 따뜻한 눈빛, 쓰다듬기, 뽀뽀, 안아주기, 다독거리기 등이 말로만 하는 칭찬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설명한다.

이 책은 주위가 산만한 아이, 성격이 공격적이거나 소심한 아이, 매사에 실수가 많고 덜렁거리는 아이 등 집중력문제로 고민해온 수많은 부모들의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시켜줄 것이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아이들에게는 집중력을 길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반야의 지혜를 먹고 자라는 아이들
김종서 지음 | 여시아문 | 9000원
집중력이 내 아이의 인생을 결정한다
이명경 지음 | 랜덤하우스중앙 | 9800원

네티즌 강추

마음의 여유 주는 시가 된 도덕경



한글 도덕경(한의사 정종미의 마음을 치유하는)
(주)제너지, 정종미 지음

얼마 전 '한글도덕경'을 받고 신선한 충격을 맛보았다.

우리 인류의 지혜를 담은 책의 하나로 항상 마음의 여유를 가져다주는 도덕경은 나도 즐겨 읽는 책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도덕경' 하면 항상 그려지는 나름대로의 이미지가 있다. 그러나 정종미 원장의 '한글도덕경'은 전혀 나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표지는 살아있는 노자의 제자를 자신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으며 본문에는 아예 한자 원문을 두지 않고 그림을 통하여도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부제로 정 원장이 새로이 이름붙인, 이른 바 '메디포임'이라는 독창적인 방식의 새로운 창작이었다.

성인들의 경서는 고착되고 화석화된 도그마가 아니라 이해하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 얼마든지 달리 이해되고 해설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메디포임'이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태어난 정 원장의 '한글도덕경'은 복잡하고 지친 현대인에게 풍성한 여유로움을 선사하는 신선한 청량제가 될 것이 틀림없다. (ronnypark, lifelog.blog.naver.com)

건강 · 나이 · 행복점수, 내가 만들어 간다



백세청년: 100세까지 청년의 몸과 마음으로 사는 법
도솔, 김형일 지음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가 어려운 만성퇴행성 질병을 앓고 있다. 수명은 늘었으나 몸은 늘 아픈 상태에서 고통스럽게 지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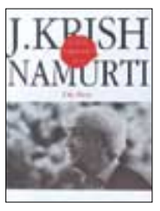
나는 지금 건강한가. 몇살까지 살 수 있을까. 내 행복점수는?

이 책은 한마디로 재미 있으면서도 질병에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명한다. 또 건강관리 방법에 중심을 두고 행복하게 오래도록 살 수 있는 비법을 알려준다.

암을 전문으로 진단하는 의사가 하는 임상실험을 거쳐서 장수에 대한 수많은 자료들을 모았다. 장수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어떤 생활습관이 좋은지, 암에 대한 처방법, 내가 받아야 할 검사 등등.. 다양한 측면에서 총체적으로 자신의 건강, 가족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법들을 알려준다. 상식적이면서도 상식의 허점을 말해주는 책이다. 중년이나 노년에 접어드는 어르신들, 자신의 건강 나이가 궁금한 젊은층이 읽어볼 만한 책으로 추천하고 싶다.

(dudol, yes24.com/Goods)

책속의 밑줄긋기



○… 인간은 어려움, 아픔, 고생, 근심, 외로움, 우울함, 슬픔, 쾌락을 헤치고 나아간다. 온 세상 모든 인간이 맡이다. 따라서 우리의 의식, 우리의 존재는 인류 전체이다. 이렇게 단순한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받아들이기 꺼려하는가. 그건 '나'가 우선인 개체성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대의 의식이 이 경이로운 지상에 살고 있는 다른 모든 인간들과 함께 나눠 가진 것이란 걸 안다면 삶의 방식 전체가 바뀔 것이다. 논쟁, 설득, 강요, 주의주장, 이런 것들은 모두 정말 불필요한 것들이다. 혼자 힘으로 이런 것을 깨달아야 하는 사람은 바로 그대 자신이기 때문이다.

우리, 우리들 각자, 인류의 나머지 전부, 인류인 우리가 아주 단순한 사실 하나를 알 수 있을까? 두려움의 원인이 생각과 시간이라는 걸 관찰하고 깨우쳐라. 그렇게 되면 그대는 어느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 그때 그대는 자유인이다.

–<두려움에 대하여> 본문 186~189쪽에서, 고요아침, 지두크리슈나무르티 지음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너에겐 나무, 나에겐 부처님
양동효 외 지음
조계종출판사 | 8000원

사춘기야? 부처님 말씀 들어볼래

교법사단이 발간한 청소년불서 시리즈 완결판
부처님 10대 제자·선지식 일화, 대장경서 뽑아


양동효


유동호


김남일

"불교는 제멋대로 이리저리 나아가는 생각들에게 '이것이 바른길'이라는 이정표를 제시할 뿐이다. 멈추지 않으면 혹 오래 걸릴지는 몰라도 누구나 그 궁극에 이를 수밖에 없다."

청소년 시기는 사람의 일생 가운데 가장 활기 있고 생명력이 넘치며, 동시에 새로운 미래를 향한 꿈에 부푼 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정신과 육체의 성장에 따른 진통과 어려움을 겪고, 그 과정에서 정신적인 방황과 불안에 휩싸이기도 한다. 이러한 때에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를 아는 것이다.

청소년으로서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원리와 행동 기준을 선지식들의 삶을 통해 제시해주는 책이 발간됐다.

<너에겐 나무, 나에겐 부처님>은 전국교법사단이 발간한 청소년불서 시리즈 제 6권, 시리즈의 완결판이다.

이 책은 1장 '너에겐 나무, 나에겐 부처님', 2장 '먼저 간 발걸음은 뒤따르는 자의 본보기가 되니', 3장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등 3장으로 구성돼 있다.

책의 내용은 인도와 중국의 부처님 10제자들과 선지식들의 일화를 대장경 속에서 가려 뽑아 현대적 감각으로 음미할 수 있도록 편찬했다.

또 학교의 수업현장에서 학생들과 얘기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다 하나의 소재로 한페이지를 넘지 않게 평어체로 정리해서 이해도 쉽다. 경전내용의 소개가 끝날 때마다 사회현상이나 일상생활과 연관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그래서 청소년 뿐아니라 불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나 일반인들에게도 불교의 가르침을 소개하는 안내서로서 역할을 충분하다.

이번 제6권 발간작업에는 김남일(동대부여중) 유동호(광동중) 양동효(의정부 광동고) 교법사가 참여했다.

그간 전국교법사단이 '청소년 포교 활성화 6개년 계획'을 세우고 발간한 청소년불서 시리즈는 총 6권이다.

2000년 처음 나온 제 1권 <서두를 때 서두르면 느릴 때는 아무리 느려도 좋다>와 2001년 아함부 경전 가운데서 가려 뽑은 2권 <벽 틈으로 바람 들어오듯 마음 틈으로 욕심 들어온다>는 시공사에서 출판하였다. 또 2002년에는 대장경 본연부 경전 가운데서 추린 3권 <물 뱀이 마시면 독, 소가 마시면 우유>를, 2005년에는 여러 대승경전에서 뽑은 4권 <빨리 가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가는 거야>와 중국과 한국 선지식 말씀을 모은 5권 <대자유인 선사>를 조계종출판사에서 발간했다.

이 시리즈를 기획한 유동호 법사는 "교법사단의 목적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시작한 청소년 입문서 발간작업을 시작한지 6년이나 됐다"며 "이 책을 통해 불교적 가치관을 형성케하고 현대사회에서의 삶의 지표를 제공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천수경' 원본 경전 따로 있었네

천수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경전 중의 하나다. 천수경은 모든 법회 때마다 의식에 앞서 독송되는 경전이기도 하거니와, 천수경속에 나오는 '신묘장구대다라니'는 불자들의 신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진언이기도 하다.

그러나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줄줄 외우는 불자들조차 천수경 원본경전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기도가 일반화된 지금, '신묘장구대다라니'의 공덕을 자상하게 설하고 있는 천수경의 원본 경전이 출간돼 관심을 모은다.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로 시작되는 천수경 원본 경전 <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다라니경>에는 관세음보살님이 천수경을 설한 인연과 함께, 진언인 '신묘장구대다라니'가 갖는 수많은 공덕과 공능이 하나하나 설해져 있다.

일체 중생에게 안락과 평안을 주시고자 관세음보살님이 설한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해 가지면 열다섯 가지 무서운 죽음을 결코 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열다섯 가지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세상사에서 부딪칠 수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병고를 극복할 수 있는 관세음보살여의주수진언 '옴 바아리 바다리 훔 바탁'을 비롯 40개의 수인과 진언이 들어 있다. 참회, 발원, 찬탄으로 이뤄진 천수경 원전은 '신묘장구대다라니'로 귀결되고 있다. 사바세계의 고통과 환난을 헤쳐나가는 암호와도 같은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제시해 놓은 것이다.



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다라니경
공파 스님 역해
맑은소리 맑은나라 | 5000원

'신묘장구대다라니'의 수많은 공덕 상세 설명

불경이 모두 그러하듯 아난존자에 의해 구술된 천수경 원본 경전에 의하면 관세음보살님이 이 다라니를 설하고 난 뒤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이렇게 당부한다. "너는 마땅히 깊은 믿음의 마음과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 다라니를 받아가지어서 중생세계에 널리 유포하여 절대로 끊어지지 않게 하라."

부처님의 간곡한 당부를 받들어 2550년 전, 최고의 고승들 앞에서 천수경을 낭랑하게 외워나가던 아난존자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천수경 원본 경전을 수지 독송한다면 천수경 독송의 즐거움은 배가될 것이다.

일본에서 천수경 원전을 처음 접한 공파 스님(부산 원효센터 주지)에 의해 한국에 소개한 천수경 원본 경전은 도서출판 '맑은소리맑은나라'가 펴냈다.

공파 스님은 "천수경 원본 경전을 읽음으로써 신묘장구대다라니에 담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심을 깊이 이해하게 된다면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수지독송하는 인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051)255-0263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관심' 기울여 본 세상살이

관심: 스치는 모든 것을 미소로 변화시키는 힘
성전 스님 지음 | 랜덤하우스중앙 | 9500원

불교방송 '행복한 미소'의 진행을 맡고 있는 성전 스님이 '관심'을 가지고 바라본 세상을 한권의 책으로 담았다.

이 책 <관심: 스치는 모든 것을 미소로 변화시키는 힘>은 손등을 스치는 바람에서, 하늘의 별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의 풍경에서 어떻게 행복을 느끼는지 가슴 뭉클하게 이야기한다.

성전 스님은 사람들이 소홀히 여기는 마음가짐이 참 행복의 원천임을 잔잔하게 설파한다. 마음의 풍족함이야말로 행복의 진정한 가치라고.

이 책의 구성은 총 5부, 66편. 이전 책에서는 선보이지 않았던 스님의 시들도 아름다운 풍경사진과 함께 아름다운 지면을 장식한다.



신심명·증도가
혜원 역해
동국역경원
8000원

격조높은 선문학 대표작

중국 선종의 제3조 경지승찬 스님(?~606)이 찬술한 <신심명>은 '선지(禪旨)의 대요'이다.

선불교가 체계를 갖추지 못한 시대에 선의 정신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신심명>은 석가모니의 일대설법을 비롯해 조사에 의해 검토된 선문답 1700공안 모두가 용해되어 있다.

또 현각 스님(665~713)의 <증도가>의 주 내용은 '공'이며, 실상을 개달으면 인(人)과 법(法)은 공하며 유를 버리고 공에 집착하는 것은 병이라고 말한다.

9세기 전반 격조높은 선문학은 사람들을 끌어 당기며 사색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선문학 작품중 <신심명>과 <증도가>는 최상위 자리에 있다.

대장경 주제별 분류

경전 목록집

명나라 학승이었던 진실 스님이 편찬한 <대장일람집>은 대장경에 포함된 여러 경들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정리해 만든 경전 목록집이다.

총 10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장일람집>은 대장경을 열독하면서 원하는 것을 찾기 어려운 학인들을 위해 발간한 책이다.

이 책은 전체 경전을 여덟 부문으로 나눈 뒤, 다시 총 60개 품으로 각각 분류하였다. 각 부문 밑에는 그 내용을 칠언시로 함축하여 설명하고 있고 매 품마다 다시 세분하여 제목을 붙여서 인용한 경전 이름을 싣고 있다. 문목총류는 또한 1181개의 칙(내용상 가장 작은 글의 단위)으로 되어있다.

제1권은 <석가보>와 <기세인본경>등을 인용하여 석가모니 부처님의 계보를 소개한 '선왕품'에서부터 <비바사론> <과현인과경> <석가보>등을 인용하여 부처님 수행시기를 설명한 '인지품'등이 수록됐다.

제2권 '선악문'은 사람들이 선악의 행위로 말미암아 축생 아귀 아수라 사람 혹은 지옥과 하늘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을 설하고 있다.

제3~4권에서는 계를 지키고 욕됨을 참아 부지런히 정진하여 불법의 깊은 지혜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과 설법에서 방편을 쓰는 방법과 불상을 만드는 공덕, 부모를 섬기는 방법등이 설명되어진다.

제5~6권은 참회하는 방법과 사람의 임종과 죽음, 인과응보에 대해 설하고 있으며, 하늘세상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반면 지옥에서는 고통을 받는다는 내용이 그려진다.

제7~8권에서는 도를 잘닦아야 하는 것을 말하고, 부처가 되면 몸이 자유자재하고 초인간적인 일도 할수 있다는 내용이다.

제9~10권은 부처님이 49년간 도를 닦아 마침내 공을 이루었다는 것과 중요 교리를 소개한다.

저자인 장순용씨는 고려대 대학원 철학과를 수료했으며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연수원과 태동고전연구소 지곡서당에서 공부했다. 현재 동국역경원에서 불교경전을 번역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대장일람집 1, 2
장순용 지음
동국역경원 | 각권 2만원

yosiamun.com 추천도서

· 오체투지	작가의집, 한경혜, 9000원
· 세상에서 참 행복한 사람	민족사, 나무불 스님, 6000원
·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장경각, 성철 스님, 4900원
· 틱낫한 스님의 아미타경	미토스, 티낫한 스님, 9800원
· 진흙소가 물위를 걸어간다	불광출판부, 무비 스님, 9000원

도서주문 (02)2004-8220

인생에 단 한 번 만날 수 있는 경전!



삶의 지침서 〈인생경〉이 오랜 침묵을 깨고 드디어 새롭 게 창간 탄생되다!

우리의 인생을 행복으로 인도하는 〈인생경〉!
〈인생경〉을 접하는 날로부터 인생이 달라진다!
〈인생경〉을 읽으면 운명이 바뀐다!
자녀들에게 사람답게 사는 길, 미래의 꿈을 심어주는
인생 지침서 〈인생경〉!
가정, 일터,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한 권씩
평생 지혜의 보감으로 대물림할 수 있는 책 〈인생경〉!

김기상 지음 / 704쪽 / 양장 / 4×6배판 변형 / 32,000원

- **동서고금 여러 성현들의 말씀 중 삶에 직결되는 말씀만 골라서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저자가 21년 동안 평범한 인생의 언어로 풀어쓴 인생의 경전!**
- **하루에 한 번 아무 곳이나 펴서 읽으면 남녀노소 누구나 특정 종교나 사상, 이념에 구애받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5,457구절의 주옥같은 명언, 명구!**
- **논술, 글쓰기 교육이 따로 필요 없다! 우리 겨레 고유의 베갯머리 교육, 무릎 위 교육 부활 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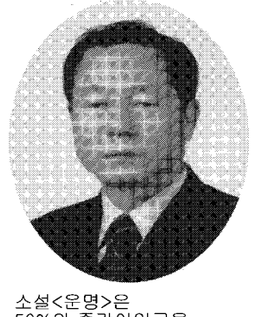
주문처 서울(본사) 02-373-8184, 010-2246-8184/종로 010-7143-8325/보문동 010-2241-3661/수색 010-5561-1071/남가좌 011-270-6356
서초 010-4232-8833/목동 010-2241-6151/동작 010-5500-6646/신림 016-781-5917/서울대 011-9711-1554/낙성대 011-9998-8832
안양 011-249-3499/인천 010-2415-7500/인천 019-362-2913/부천 010-6484-4944/부천(박세기) 011-736-4948/안산 011-9784-4432
대구 010-7323-9900/인덕원 011-227-2421/의왕 010-8008-2857/부산 010-8629-1839/울산 010-4200-5723
총판 및 대리점 모집 문의 02-373-8184/010-2246-8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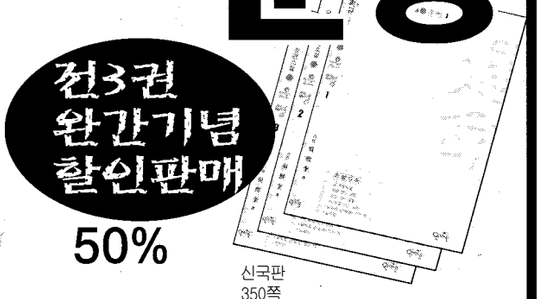
도서출판 백교 전화 02-373-8184 / 팩스 02-302-4818 baikkyo@dreamwiz.com / http://blog.naver.com/baikkyo

"운명"을 읽고 나면 대길운(大吉運) 성공이 보인다!!!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 오희규 실화소설

운명





신국판
350쪽
각권정가 10,000원

■주요수록내용■
궁합이야기
성기가 말을 안들어요
딸이 미쳐가고 있어요
의처증 이야기
바꿔 놓고 생각하기
실수의 흔적
처제와의 불륜
육체란 무엇인가?
입시이야기
성형수술이야기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세번 결혼한 검사님
잉태와 섹스의 비밀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 주세요
두번 태어난 보일러공의 행복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처녀의 사랑이야기
넘치는 정력을 주체할 수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 겸허히 인정하라
운명을 바꾸는 법

■책속 부록■
▶생일로 알수 있는 내 몸의 건강
▶꿈 해몽 비법 ▶띠로 보는 궁합
▶달로 보는 궁합 ▶시(時)로 보는 궁합
▶날짜로 손(살성) 보는 법 ▶삼재법

소설<운명>은
50%의 중간이익금을
독자에게 직접드리기위하여
서점을 통하지 않고
통신판매를 하고 있으며
책값은 책을 받으신 후
입금하시면 됩니다

전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1083, 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예금주:오희규)
농협 601175-52-016521

서울·마포구 아현3동 618-22
전 화 (02)365-8172
팩 스 (02)365-8173
홈페이지:www.indeenet.co.kr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청옥(망월)동374-2번지
전화: 062-266-6693

바라오페라단 제2회 정기공연

오페레타 '아미타불'

무대오른 아미타불 극락정토 이끄시네

7월 5~8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예술공연장


운문 스님


정부기 교수

탐진치(貪瞋癡) 삼독에 물들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뇌하던 한 왕이 있었다. 그는 백성들을 행복의 길로 이끌기 위해 스스로 험난한 길을 걷다가 결국 극락정토를 세운다.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정토를 세우게 된 동기와 과정이 한 편의 오페레타(operetta)로 불자들을 찾아온다.

(사)삼보불교음악협회가 주최하는 바라오페라단(단장 이정지) 제2회 정기공연 '아미타불'이 7월 5~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다.

운문 스님이 작사하고 정부기 교수(중앙대 작곡과)가 작곡한 오페레타 '아미타불'은 25명이 무대에 올라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준다. 소형 오페라를 뜻하는 오페레타는 희가극(喜歌劇) 또는 경가극(輕歌劇)이라 불린다. 노래뿐 아니라 일반 연극과 같은 대사와 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형태이다.

오페레타 '아미타불'은 고뇌하는 왕이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줄 발원을 하는 것에서부터 첫 번째 장을 시작한다. 염불송, 세존께 바치는 노래, 화답의 노래, 대금과 대아쟁 2중주로 채워지는 1장은 왕이 출가할 때까지의 모습을 담았다. 출가한 왕의 법명은 법장. 법장 스님의 수행은 두 번째 장에서 수행의 노래, 무명을 밝히고, 비구 중창 등으로 묘사된다.

치열한 수행 끝에 성불에 이른 법장 스님이 세 번째 장에서는 아미타 부처로 수기 받는다. 육바라밀 백팔염주 해탈의 노래 등이 대아쟁과 거문고 2중주와 더불어 무대를 꾸민다.

네 번째 장에서는 아미타 부처님이 관장하는 서방극락 정토를 묘사하고 찬양하는 노래들이 장엄하게 울려퍼진다.

아미타불(법장) 역은 성주암 연화합창단과 백련사 감로합창단 등을 지휘해온 테너 한정일씨가 맡았다. 남양주 봉선사 합창단을 지휘하는 베이스 김성민씨는 세존 역을, 바리톤 김태환 안혁진 · 테너 이준형 · 베이스 김현호씨는 비구 역을, 소프라노 김양희 김향미 최현진 · 메조소프라노 연정숙 장정윤 · 알토 김희진 박진성씨는 비구니 역을 각각 맡아 감미로운 노래로 청중들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14~15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오페라 '야수다라와 아난다의 고백'으로 데뷔한 바라오페라단은 올해 가을에도 '야수다라와 아난다의 고백' 앙코르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02)723-0440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달은 찼는가 비었는가

조각가 류종민展 '월인천강지곡'


류종민 作 '월인'.

'달' 그리고 '깨달음'. 조각가 류종민씨에게 달은 곧 깨달음에 이르는 지혜이다.

7월 7일~10월 30일 안성 너리굴문화마을에서는 조각가 류종민씨가 만들어낸 달과 깨달음의 세계가 펼쳐진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청년기 정신적 지주였던 불교적 세계관으로의 회귀를 선언하며 '월인천강지곡'을 선보인다.

한미애 관장(스페이스틈새)은 "곡옥대 위에서 월인천강지곡에 이르는 조각가 류종민의 조형적 세계는 그의 정신적 세계의 근원이 되고 있는 불교적 세계관 그 중에서도 <반야심경>을 통해 이해하고자 한다"고 평한다.

조각가 류종민씨는 "소멸이 환영인 것처럼 생성도 그러하다. 모든 만상은 보이고 만져지는 존재이지만 그것은 시간 속의 홀로그램이다. 환(幻)이면서도 실상인 세계, 사바이면서도 정토인 세계, 물질이면서도 정신인 세계가 여기에 있다"고 자신의 작품을 설명한다.

"가시적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불상과 형상성, 이것은 선가의 화두처럼 하나의 달에서부터 투영된 것"이라는 류종민 작가는 "달은 본래의 밝은 마음에 비유되고, 이것을 보는 밝은 지혜가 반야다"라 설명하며 평면으로 입체로 다양한 '월인(月印)'을 선보인다. (031)675-2191

생사, 그 윤회의 고리

백남준 특별전-삼성미술관 리움


국내 첫 선을 보이는 '스키타이왕 단군'.

삼성미술관 리움이 故 백남준 선생을 기리기 위해 소장품으로 구성한 특별전 '백남준에 대한 경의' 전시회를 6월 22일~9월 10일 열고 있다.

전시품은 모두 14점. '알' '스키타이왕 단군' '20세기를 위한 32대의 자동차-모차르트의 진혼곡을 조용히 연주하며 중 8대' '나의 파우스트' 'TV물고기' '보이스 자동차'와 캔버스 회화 '소문만복래' 등이다.

이번 전시는 기계와 자연이 동화하고 삶과 죽음이 연결돼 있다는 불교적 세계관을 작품 속에 담아냈던 백남준 선생을 기리며 생명의 탄생과 소멸, 그리고 그 이후라는 이야기 속으로 관람객들을 끌어들인다. 매일 오후 1시30분에는 문화예술 작품 전문 설명인 도슨트가 50여분간 작품들을 설명해준다. (02)2014-6901

강지연 기자

티베트 탕카-한·중·일 유물 한자리에

화정박물관 재개관 특별전

'아시아를 조응하는 눈'


'석가여래삼존과 십육나한'.


모든 재난에서 중생을 구원한다는 '녹색타라보살'.


중국 청대의 여성용 머리 장식.


'십일면천수관음'.


중국 청대에 제작된 '상아제산수필통'(왼쪽)과 '분채연당초문쌍이병'.


텟사이 호쿠바 作 '육필 우키묘에 미인도'.


우리나라 최고의 묵죽화가 이정의 '우죽'.

티베트 탕카와 한국 중국 일본의 대표 유물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5월 평창동에서 재개관한 화정박물관이 개관기념 특별전 '아시아를 조응하는 눈(Gazing upon Asian Art)'을 8월 30일까지 개최한다.

박물관 1층에서는 2003년 대영박물관에 전시됐던 최고 수준의 탕카들이 국내에서 처음 선보인다. 석가여래를 중앙에 크게 묘사하고 좌우에 제자 사리불과 목건련을 주변에는 십육나한을 배치한 '석가여래삼존과 십육나한', 관음보살의 눈동자(타라)에서 태어난 아름다운 여성 보살이라는 '녹색 타라보살' '십일면천수관음' 문수보살의 화신이자 수호존 '바즈라바이라바', 티베트 불교 닝마파의 시조승 '빠드마삼바바' 등의 티베트 탕카가 대표적이다.

2층에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묵죽화가로 손꼽히는 이정의 묵죽화 '우죽(雨竹)', 중국 청대 건륭황제 때 제작된 도자기 '분채연당초문쌍이병', 일본 무로마치시대부터 에도시대 말기에 제작된 풍속 목판화 '우키요에(浮世繪)' 등이 선보인다. 이번에 소개하는 텟사이 호쿠바의 '육필 우키요에 미인도'는 기존 목판화와 달리 손으로 직접 그린 작품이다.

1999년 개관한 화정박물관은 이태원 본관 전시장과 평창동 분관으로 전시를 진행해왔다. 올해 6월 평창동에 새로 지은 박물관 건물로 전시공간을 모두 옮겼고 기존 건물은 연구실 및 수장고로 탈바꿈했다. (02)2287-2994

강지연 기자









주석처인 금산사 만월당에서 <학명집>을 읽고 있는 월주 스님.

'함께 잘 살기' 평생의 화두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월주 스님 (김제 금산사 회주)


월주 스님은 고희가 넘은 나이에도 지구촌공생회를 설립해 국제적으로 왕성한 복지활동을 펼치고 있다.

너른 호남평야를 어머니가 양팔 벌려 감싸안은 듯한 모악산(母岳山). 만물의 탯자리쯤에 해당하는 김제 금산사(金山寺)에도 여름이 찾아왔다.

고희를 넘긴 태공 월주(太空 月珠) 스님이 주석하는 만월당(滿月堂)에 들어서자 산들바람을 벗삼아 책장을 넘기던 스님이 반갑게 객을 맞는다.

"얼마 전, 어느 스님이 <학명집(鶴鳴集)>을 보내왔어요. 학명 스님은 일제 때 주로 호남에 주석하며 '반선반농(半禪半農)' 운동을 주창하신 선승이자 사회운동의 선구자이십니다. 당시는 불교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르던 때였는데 스님의 수행과 실천행은 저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학명 스님(1867~1929)은 내장사에 주석하면서 사찰 주변의 황무지를 개간하고 "스님도 일하며 정진해야 한다"며 실천행을 강조했다. 아울러 참선곡, 선원곡(농사지으며 참선하자) 등의 찬불가를 발표해 불교 대중화에도 앞장섰다.

월주 스님이 걸어왔던 길도 수행과 포교, 복지사업으로 점철된다.

스님이 출가한 때는 6·25 전쟁이 끝난 이듬해로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웠다. 어느 사찰에 머물든 자급자족하며 가람수호와 복구에 주력해야 했다.

스님은 두 번에 걸쳐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하면서 '법당에 들면 참선하고, 일어서면 자비행을 펴는 반좌반행(半坐半行)'으로 종단 자주화와 깨달음의 사회화를 이끌었다.

"참선이든 경전강독이든 수행으로 깨달음을 추구하고, 깨달았으면 사회에 회향해야 합니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 귀일심원(歸一心願)이며, 사회화하는 것이 요익중생(饒益衆生)으로, 이는 곧 대승불교 사상의 요체입니다."

월주 스님의 은사는 한국불교 정화운동을 주도했던 금오 스님이다. 참으로 엄했던 분이었다. 곁에 있으면 칭찬보다 '틀렸다' '잘해라'는 질책이 끊이지 않았다.

하루는 은사스님에게 합장 반배로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받지 않고 '더 숙여라'는 것이었다. 허리를 90도로 숙이는데도 스님은 계속 '더 숙여라'고 말할 뿐이었다. 지나고 보니 그것은 '자만하지 말고 아만심을 버리라'는 커다란 가르침이었다.

'깨달음의 사회화' 주창,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10년째
'지구촌공생회' 통해 고통받는 이들에 희망심기 매진

은사스님이 고구정녕 말씀하신 것은 '참선하라, 계율을 잘 지켜라, 보살행을 행하라'는 세 가지였다. 궁극에는 견성성불해야 하는데 계행을 지키지 않고, 보살행을 하지 않으면 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월주 스님은 1994년 개혁종단 총무원장 시절 '깨달음의 사회화'를 주창했다.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 그동안 불교계가 소홀했던 대사회복지에 적극 나섰다. 사회 참여에도 관심을 갖고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을 10년째 이끌면서 인도적 지원을 위해 북한에도 10여 차례 다녀왔다.

오늘날 조계종단에서 펼쳐지는 포교와 복지사업은 월주 스님이 종무행정에 몸담으면서 토대를 닦은 성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랜 종무행정과 불교의 대사회 참여를 위해 일하다보니 월주 스님을 찾는 이도 많고, 가야할 곳도 많다. 평생 소식(小食)과 독서, 산책으로 다스려온 건강이 큰 힘이다. 그러나 힘들 때마다 수행자의 길을 올곧게 걷게 한 것은 훨저하게 지켜온 계행이다.

2년 전, 월주 스님은 세속 나이로 고희를 맞았다. 그 해 스님은 수행의 후반기를 맞아 또하나의 '출가'를 단행했다. 불자들을 중심으로 '지구촌공생회'를 설립한 것이다. '세상은 하나의 꽃'이라는 세계일화(世界一花) 정신에 따라 빈곤과 질병 무지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구촌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위해 발심한 것이다.

지구촌공생회는 십시일반 모은 성금의 20%를 국내 중증장애인과 독거노인, 결손가정을 돕고, 20%는 북한 주민과 중국 조선족 연해주 고려인을 지원하고 있다. 나머지 60%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몽골 등 제3세계 어려운사람들을 돕는다.

글=이준엽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화엄사 등서 10 하안거 성만
조계종 총무원장 두번 지내

월주 스님은 | 1935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났다. 54년 법주사에서 금오 스님을 은사로 출가, 56년 화엄사에서 수선 이래 10하안거를 성만했다.
금산사 개운사 영화사 주지 역임. 80년 조계종 제17대 총무원장을 맡았으나 신군부에 의해 10·27 법난이 일어나 7개월만에 물러났다.
94년 조계종 개혁때 제 28대 총무원장을 역임하며 '깨달음의 사회화'를 주창했다.
현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 겸 이사장, 나눔의 집 이사장, 지구촌공생회 대표 이사 등을 맡아 대사회 활동에 힘쓰고 있다.
2000년 국민훈장 모란장과 2005년 조계종 포교대상을 수상했으며 저서로 <보살사상> <인도성지순례기>가 있다.

'오직 불자님들께만 드리는 단 한번의 혜택!!'

불자들을 위한 냉풍기 초특가 보급행사



본 제품은 기존 선풍기에 비해 다양한 기능과 차별화된 냉각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보다 쾌적하고 시원함을 누릴 수 있으며, 에어컨에 의한 냉방병에 대한 위험이 없으며 전기료의 부담이 없고, 냉방기능과 동시에 가습 및 공기정화의 기능이 있는 다기능 냉풍기입니다.


얼음 투입구


리모컨 수신창


버튼조작부 및 기능 표시부

국내 최저가 보급
150대 한정판매

[제품사양]
- 제 품 명 : 아이원 그린 냉풍기[SLC-5000R]
- 구 성 : 본체+리모컨+교체용필터+건전지+아이스팩4EA
- 사용전압 : AC 220V 60Hz
- 제품크기 : 320(W) x 230(D) x 700(H)mm
- 중 량 : 7.4Kg
- 제조사 / 원산지: 성일 / 한국
- 소비자가 : ~~130,000원~~ → 초특가 99,000원


송풍구


상하 조절 레버


이동바퀴

특별 사은품- 하나,
16인치 벽걸이선풍기
특별 사은품- 둘,
아이스팩 2개 더(총6개 증정)



LCD 계기판
최신 접이식 LCD 계기판 채용으로 디자인과 편리함을 한층 높였습니다



이동이 편리한 측면 손잡이
양쪽에 손잡이가 있어 이동하시기에 편리합니다





AIRSON 이동식 에어컨
냉방.제습.송풍.공기청화까지.. 4in1 이동식에어콘!!
(10~12평형)

[제품특징 및 사양]
물받이가 필요없는 증발수 냉각방식, 저소음, 제습 및 송풍기능, 자동온도 조절기능, 공기 정화필터 사용, 전기능 을 리모컨 하나로 조작할 수 있으며, 강력냉방, 최대 24시간까지 예약이 가능하여 작동하고 싶은 시간을 마음껏 조절할 수 있습니다.
- 냉방능력 : 12000BTU/3500W
- 냉방면적 : 25m · 중 량 : 34Kg
- 소비전력 : 1500W · 제습용량 : 1.8l/H
- 사용전압: AC 220V 60Hz
- 제품크기 : 490(W) × 840(D) × 330(H)mm
- 특별보급가 : 632,000원


EEK3000

일렉트로룩스 무선 주전자
[제품특징 및 사양]
일렉트로룩스 무선 쫓주전자 EEK3000 세련된 블랙컬러와 모던디자인의 조화
- 용 량 : 1.75L
- 소비전력 : 1850W
- 색 상 : 블랙 & 실버
- 특별보급가 : 45,000원


EF883


EF881

가정용 제습기
[제품특징 및 사양]
가정용 제습기는 Peltier Technology를 응용한 제품 콤프레서를 사용하지 않아 조용한 운전이 가능 초소형,초경량화로 좁은공간에서도 위력을 발휘 통풍이 잘 되 않아 쉽게 곰팡이가 피고 냄새가 나는 좁은 방이나 창고, 옷장 등의 습기를 효과적으로 제거
- 제품크기 : 154(W) × 130(D) × 218(H)mm
- 중 량 : 1.1Kg
- 제조사 / 원산지 : GINFAX / 중국
- 특별보급가 : EF883 28,500원 EF881 39,000원

고객센터 02-732-1520 [입금계좌안내] 농협 053-01-267081/ 국민 023501-04-074548 (예금주:마하몰)

각자 분야에서 전법행 펼치세요

월주 스님의 가르침

불자들이 즐겨 독송하는 <금강경>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만일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항하 모래알만큼의 신명을 다하여 보시하더라도,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에서 사구게(四句偈) 만이라도 수지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한다면 그 복이 더욱 많으리라."

이는 아무리 많은 재(財)보시라 할지라도 그 공덕이 법(法)보시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으로, 포교가 보살행 실천의 으뜸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한국불교의 장자종단인 조계종은 소의경전을 <금강경>과 전등법어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참선을 수행의 중심에 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불자들이 널리 택하고 있는 염불과 간경, 주력 등의 수행방법 또한 배제하지 않으며 폭넓게 수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참선이 해탈에 이르는 지름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 역시 일찍이 은사 금오 스님으로부터 '이뭣고' 화두를 받아 참구하며, 불자들에게 참선수행을 지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불자님들을 만나보면 참선만을 최고수행법으로 생각하고 참선법에 집착하는 것을 봅니다.

근기가 수승한 사람은 참선수행을 통해 진리를 깨닫기 쉽지만, 업력(業力)이 두터운 사람은 참선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염불 간경 주력은 깨달음에 이르는데 더디 걸립니다.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업장을 소멸하고 정신 통일을 이루기가 한층 수월합니다. 이러한 수행으로도 각자의 소망을 성취하면서, 지혜(보리심)를 얻고 해탈의 길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 근기에 맞는 방법을 택해 참구하고 정진해야 합니다.

한국불교는 교리나 수행방법, 의식과 의례면에 있어서도 어느 하나만을 고집하지 않고 두루 취하고 포용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포교에 있어서도 열린 자세를 지향하며, 전법과 사회사업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한말, 개항 이후에 서구문화와 함께 유입된 서구의 종교는 도심과 대중 속으로 활발한 선교와 사회 구제사업을 하면서 급속히 사회저변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산중에만 머물러 있던 불교는 세속과 괴리된 채 전법도생의 본분사를 제대로 이루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해방 이후 물밀듯 들어오는 서구문물의 범람으로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해체되고 전통문화가 쇠퇴하는 등 사회전반이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또, 급속한 경제개발의 과정에서 오는 양극화와 인간소외로 시대고(時代苦), 사회고(社會苦)와 부딪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불교는 현대사회의 소외된 중생들이 겪는 질병 빈곤 무지 인권 탄압 등의 사회고와 남북분단과 환경파괴 등의 시대고에 따른 고통을 발고여락(拔苦與樂)의 자비정신으로 덜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배고프고 질병으로 시달리는 사람에게 "본래 생사가 없으니 마음을 닦아서 진리를 깨달으라"는 심오하고 고차원적인 설법은 귓전에 스쳐 지나가는 말이 되기 쉽습니다. 그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고통을 덜어주고 인권이 유린되는 질곡의 현실에서 벗어나게끔 돕는 것이 전법도생의 일환입니다.

무릇 우리 불자들은 수행하면서 무명중생을 진리로 이끌기 위해 각자의 능력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서 전법행을 펼쳐야 합니다. 불자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 복지에 기여하고, 그 영역의 확대를 통해 불교야말로 세계 어느 종교보다도 자비와 이타의 종교임을 확실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불자들은 <보현행원> 10대원의 하나인 '광수공양(廣修供養)'의 정신을 새기고 실천해야 합니다.

광수공양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불자들은 수행과 전법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서 병든 사람은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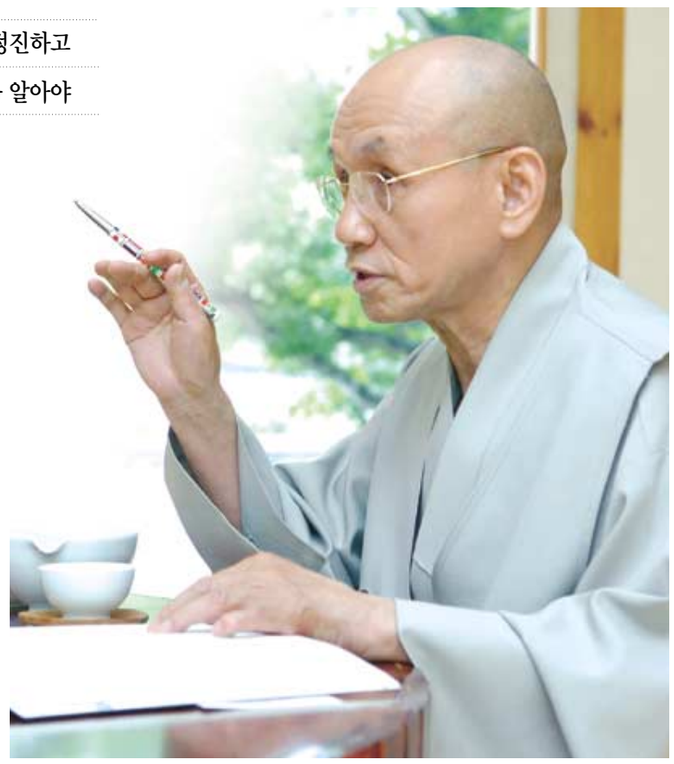
못 배운 사람에게는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 가난한 사람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생태계의 파괴와 오염을 막는 일에도 앞장서야 합니다. 또한 인권탄압을 받는 사람들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하며,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하여 복지사업도 해야 합니다.

국가간, 민족간에 전쟁을 일으키거나 사상 종교적 이념의 충돌 때문에 귀한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예방하고 살리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모두 광수공양에 속합니다.

포교를 통한 중생구제만이 불자들이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임을 부디 마음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이준엽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자신의 근기에 맞는 수행법 택해 정진하고
포교가 佛恩에 보답하는 큰 길임을 알아야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72>



내 아이에게 포교하기

기본교육이 끝나면 이따금 질문을 받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이렇게 좋은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제 아이는 불교는 여전히 미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절에 다니면 다른 종교를 가진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할지도 모르구요. 우리 아이에게 부처님의 이 좋은 가르침을 들려주고 절에 다니게 하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밖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아이의 얼굴입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내 아이에게 먹여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면 그토록 달콤하던 맛이 싹 사라질 정도입니다. 언제고 꼭 데리고 와서 먹여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는 것도 그만큼 자식에 대한 사랑이 크기 때문입니다. 음식도 그러한데 하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마음이 상쾌해지고 나면 이 좋은 내용을 누구보다 자식에게 먼저 들려주고 싶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마음일 것입니다.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 잘 알고
가르침 행하는 모습 보여주면
그 자체가 말이 필요없는 포교

하지만 자기 자식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일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인들처럼 무조건 믿으라고 등 떠밀어 보내면 고민할 필요야 없겠지만 불자들은 자식에게 종교를 그런 식으로 강권하지 않습니다. 좋은 가르침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식에게 들려주는 일은 옛 성인들도 고민했던 문제 같습니다.

"옛날에는 자식을 서로 바꾸어서 가르쳤다. 부모자식 간에는 착하게 살라고 요구하지 않는 법이니, 착하게 살 것을 요구하면 정(情)이 떨어지게 된다. 정이 떨어지면 이보다 나쁜 것이 또 어디 있겠는가."

정이 떨어진다는 말은 관계가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부모 자식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있을까요? 부모 자식 간에는 윤리, 종교, 이념… 그 어떤 것도 사이에 끼어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훌륭한 성인군자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부모 자식 간의 정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친밀하다보니 오히려 부모는 자식에 대해 기대와 애정이 넘쳐흘러, 자식은 부모에 대한 신뢰가 너무나 커서 자기도 모르게 강요를 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맹자>의 말씀은 친한 사이일수록 이러저러한 요구는 오히려 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종교를 권하는 일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의 종교를 갖기 까지는 제각각 다양한 계기가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볼 때 모태신앙으로 하나의 종교를 받아들인 사람의 신심이 가장 두터운 것 같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의 신앙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사람에게는 그 종교에 대해 이론적으로 이러니 저러니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 신앙은 곧 어머니요, 어머니가 곧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종교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려서는 종교를 갖고 있지 않았지만 부모가 독실하게 신앙생활을 해가면 그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종교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경전의 말씀을 들려주거나 그 말 대로 살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전적으로 자식을 믿어주고 자식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모습을 암암리에 보아온 자식은 항상 자기 뒤에는 든든한 후원자인 부모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며, 어른이 되어서 어떤 어려움에 부딪치면 자기 부모가 그러했듯이 자기도 그 종교에서 해답을 찾아가게 됩니다.

어떤 경우나 부모가 먼저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자기가 먼저 잘 알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그 모습 자체로 특별한 말이 필요 없는 훌륭한 포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엾이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내어라. 그리하여 상대가 너의 말을 듣고 즐겁게 받아들이거든 그때 그들을 위해 네 가지 무너지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설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거기에 들어가 머무르게 하라. 네 가지란 불 · 법 · 승 · 계이다."(잡아함 사불괴정경)

자기 신앙을 권하기 이전에 자식의 마음을 먼저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자식에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베풀고(보시), 진실하고 다정한 말을 늘 건네며(애어), 자식에게 이롭도록 행동하고(이행), 자식이 하는 일을 이해하고 같이 행동을 해야 할 것(동사)입니다. 이 네 가지는 사람을 자기편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부모가 이 네 가지를 자식에게 먼저 실천하면 자식은 부모의 신앙을 기꺼이 자신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부모보다 더 훌륭한 불자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식은 부모를 보고 배우게 마련이니까요.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밀랍주조공법으로 제작된 강릉시민의 종
높이 3.15m, 직경 1.85m 중량 3000관

世界가 격찬한 聖鐘社 梵鐘

초대형범종의 밀랍주조공법 개발 성공

– 에밀레종, 상원사종을 초월하는 초정밀 범종 제작 실현 –

聖鐘社가 지난 2004년 중소기업청이 전개하는 기술혁신 개발사업을 통해 본사 전매특허인 蜜蠟鑄造工法으로 10,000관 이상의 초대형 범종까지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법당종에서 입증된 성종사 작품종의 섬세한 문양과 부드러운 소리를 이제 大鐘에서도 만나보실수 있습니다.
聖鐘社는 최고의 범종 제작을 위해 항상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종사가 보유하고 있는 4가지 신기술

1. 세계 유일의 밀랍주조공법 보유 업체
지난 97년 신라의 범종주조기법인 밀랍주조공법을 독자 재현하는데 성공,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원광식대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밀랍주조공법으로 범종을 제작하는 종장으로 세계에서 가장 표면이 깨끗하고 문양이 정교한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2. 세계 유일의 음향조율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최첨단 음향측정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범종의 음향 분석은 물론 음향조율 기술을 통해 완성된 범종의 소리를조율해 드리고 있습니다.

3. 세계 유일의 범종 열처리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범종 열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 범종의 금속조직을 균일화시켜줌으로써 범종의 소리를 부드럽게 함과 동시에 수명을 연장시켜 주고 있습니다.

4. 국내 최고 착색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기존의 착색방식에서 탈피, 한국 최초로 범종에 다양한 착색처리를 도입함으로써 갈색, 구리색, 녹청색, 금색 등 다양하면서 아름다운 색상의 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정교하고 아름다운 성종사 범종의 하대 문양 !

聖鐘社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 02-733-6141 / FAX : 02-733-4840
● 공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www.soungjoungsa.co.kr / E-MAIL : sungjongsa@hotmail.com
대표 : 범산 원 광 식(인간문화재 112호 • 대한민국 명장)

튀는 茶가 맛·건강도 좋아

▷일회용 잎차 우림구

고품질 찻잎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차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식사 후 차 한 잔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든 것이 당연지사. 하지만 휴대용 다구를 들고 다니자니 번거롭고 티백이나 시중에 판매하는 차 음료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 (주)B&S 보성델타가 개발한 일회용 차 우림구는 바로 이런 차인들의 마음을 읽은 '틈새시장'이다. 보성델타 이태환 대표는 "저가의 티백 대신 고품질의 찻잎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잎차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회용 차 우림구를 개발했다"며 "젖병 소재인 폴리카바나이트로 제작해 뜨거운 물을 부어도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것이 장점"이라고 밝혔다. 9월 중 '하루행복'이란 제품명으로 상품 출시 예정이며 편의점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판매된다. 차 종류로는 녹차와 자스민차, 보이차, 철관음이 있고, 2인이 함께 마실 수 있는 '커플티'도 출시된다. www.cleantea.co.kr

▷피부가 좋아하는 녹차



녹차의 살균 · 미백 작용은 차 미용제품 개발의 길을 터놓았다. 녹차향수 '소지'와 녹차로 만든 전통 향 '구례소리'를 개발해 눈길을 끌었던 (주)우향알앤디는 녹차향엽을 새롭게 선보였다.

녹차향엽은 지리산 찻잎을 분쇄해 압착시킨 제품으로, 세안이나 목욕 시 물에 녹여 사용할 수 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과 비타민A, C, E가 지친 피부에 수렴 · 진정 작용을 하고 피부 노화를 예방한다는 것이 업체의 설명이다.

우향알앤디 관계자는 "기존의 입욕제들이 차 추출물에 화학성분을 섞어 만들어진 것에 반해 녹차향엽은 100% 찻잎만을 분쇄해 압착한 것으로 부작용이 거의 없다"며 "녹차 가루가 물에 거의 녹아 피부에 직접 성분이 작용하는 것은 물론 찻잎 찌꺼기가 남지 않아 생활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녹차향엽을 뜨거운 물에 녹여 세안하거나 입욕제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곱게 가루내 요구르트 등과 섞어 팩으로도 쓸 수 있다. www.soji.co.kr

100% 찻잎 분쇄 압착, 팩으로도 이용



■ 반짝 아이디어 '茶' 4색

"야외에서도 잎차를 마실 순 없을까? 커피믹스처럼 간단히 마실 수 있는 보이차는 없을까?"
언제 어디서든 페트병에 든 차 음료를 사 마실 수 있는 요즘이지만,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차를 즐기고 싶은 것이 차인의 마음이다. 최근 개최된 차산업 박람회에서는 이 같은 요구에 부응하는 색다른 아이디어 상품들이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중 몇가지를 소개한다.

▷물에 타서 즐기는 보이차

커피믹스 타서 마시듯 개발된 분말 제품

진짜다 가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보이차. 하지만 국내 보이차 마니아는 날로 늘고 있다. 보이차 관련 책이나 잡지가 다양하게 출시되고, 보이차 전문 매장도 우후죽순 생겨난다.

보이차를 마셔 보려 해도 평소 차를 즐기지 않는 사람이라면 자사호와 각종 다구를 준비해 차를 우리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기만 하다. (주)청심연이 선보인 '보이정화차'는 커피믹스를 타서 마시듯 보이차를 즐길 수 있도록 개발된 분말 '녹차 비누'나 '녹차 화장품'이 여성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은 지는 오래다. 녹차의 카페틴 성분이 수렴 · 진정 작용을 함으로써 탄력 있는 피부로 가꿔주고, 머리를 감을 때 녹차 우린 물로 헹궈주면 항산화 작용으로 탈모와 비듬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미용상식'이 됐다. 천연재료 화장품과 미용재료를 개발해 온 (주)e-자연주의는 녹차 비누와 화장품을 선보인데 이어 발효차를 이용한 천연 수제 비누를 판매하고 있다. 전통염색과 천연미용재료를 연구하고 있는 (주)e-자연주의 안화자 대표는 "쟈스민차나 철관음 등을 이용한 천연염색비누는 차의 고유한 색이 나타날 뿐 아니라 차향도 느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고 말한다. 판매되는 제품 외에 자신이 원하는 재료로 직접 비누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강좌도 운영하고 있다. www.e-naturalism.com

여수령 기자



제품이다. 베트남 북부에서 생산된 찻잎으로 만든 보이차의 원액을 추출해 동결건조 방식으로 농축 시킨 것으로, 뜨거운 물에 보이차 엑기스 가루를 타서 마시면 된다.

청심연 박소영 대표는 "100g의 보이차 엑기스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보이차 750g이 소비된다"며 "고농축의 보이차를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것이 '보이정화차'의 특징"이라고 밝혔다. www.chungsy.com

▷발효차 비누

탈모 · 비듬 등 예방

瑞榮普洱
진년보이 · 진년오룡 · 철관음 · 오룡차
대흥포 · 화차 · 인삼오룡 外 40여가지의 茶
보이차 전문점
■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짱유화(姜育發) 교수의 보이차 이야기



21. 보이차의 올바른 저장

예로부터 차는 햇차일수록 귀하게 여겼다. 차의 변질 인자는 산소 · 온도 · 습도 · 광선이며 여기에 산화효소의 작용, 미생물의 참여 그리고 자연산화의 진행 등 제반 요소들이 함께 어우러져 차의 변질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차의 함수율을 6% 이내로 유지하고, 포장지의 빛 차단과 진공을 통한 포장 그리고 저온의 저장 방법 등은 모두 차의 산화를 막기 위한 조치다.

20세기말, 차의 저장법에 대한 인식을 뒤엎는 사건이 일어났다. 즉 어떻게 해야 신선도를 유지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묵혀야 제대로 된 차맛을 느낄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저장법이 등장한 것이다. 저장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던 저장에 대한 개념에 정반대되는 저장 개념의 탄생은 많은 혼란을 초래했고, 그 혼란의 중심에 보이차가 서 있다. 녹차의 질은 어떻게 산화인자들로부터 철저히 차단하느냐가 관건이라면 보이차는 이와 반대로 어떻게 이러한 인자들을 충분히 활용하느냐에 따라 품질을 다르게 만들 수가 있다.

그렇다면 보이차는 어떠한 방법으로 저장해야 제 맛이 날까? 먼저 차의 산화인자와 보이차의 함수관계 그리고 산화여건을 알아야 보이차 맛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

보이차의 산화인자 중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차의 함수율이다. 함수율의 증감은 공기의 습도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상대습도가 50%가 넘으면 보이차는 빠르게 수분을 흡수하게 된다. 물론 습도의 증가비율이 높을수록 함수율도 정비례해 높아진다. 그렇다고 보이차의 함수율이 마냥 높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대체로 함수율이 12% 이상 넘으면 보이차에 빠른 속도로 곰팡이가 피기 때문이다. 만약 여기에 온도마저 높아지면 그 부패의 속도는 더욱 빨라진다.

온도와 습도의 적절한 배합은 보이차의 맛을 내는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된다. 예를 들어 환경의 온도와 습도가 모두 높아지면 보이차에 곰팡이가 피어 곧 바로 부패하게 된다. 그러나 온도만 높고 습도가 모자라면 유리지방산이 증가해 보이차에서 신맛이 나게 된다. 그리고 보이차를 직사광선에 노출하게 되면 산화의 속도는 빠르게 진행되나 발효된 후의 보이차의 맛은 밋밋하게 변해버려 가치를 잃게 된다.

저장환경에서의 산소공급은 보이차의 맛을 내는데 필수조건이다. 흔히 보이차의 저장용기에 덮개를 덮어 산소의 유통을 차단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 산소의 공급은 많을수록 좋다. 통풍이 잘 되고 서늘한 곳에 보이차를 저장하라는 얘기는 곧 산소를 충분하게 공급하라는 뜻이다. 전통 보이차의 압착에서 보이는 느슨한 누름도 산소의 공급을 높이기 위한 배려이다.

덮개 덮어 산소 차단하는 것은 옳지 않아

서늘한 곳에 실온 25℃ 습도 70% 가장 적합

보이차의 참맛은 저장을 통해 이루어진다. 아무리 좋은 원료라도 옳지 않은 저장방법을 사용한다면 결국 보이차의 진미(眞味)를 잃게 되며 품질이 저하된다. 풍부한 산소에 서늘한 곳, 실온을 25℃에 맞추고 상대습도를 70%로 유지하게하면 보이차의 저장환경은 더 없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산화조건들은 하여금 보이차의 산화효소반응을 일으키고, 적당한 미생물의 참여를 유도하며, 자연산화의 진행을 원활하게 작용하여 보이차의 숙성 즉 후발효의 가치를 한층 높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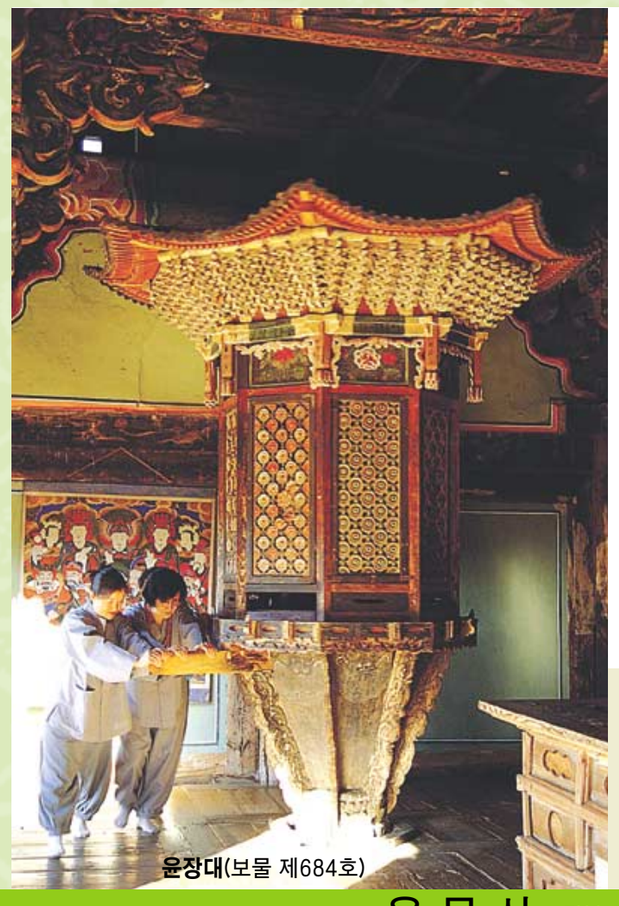
이러한 산화인자들을 철저히 예방해야만 차의 변질을 막을 수 있다. 물론 보이차의 맛은 여기에 더해 산화효소의 작용, 미생물의 참여 그리고 자연산화의 진행 등 제반 요소들이 함께 아우러진 결과물이기도 하다.

■ 한서대학교



숙성되고 있는 보이차.

용문사 윤장대 윤전으로 모든 액을 소멸하자!



윤장대(보물 제684호)

용문사 전경 / 용문사 윤장대(보물 제684호) / 용문사 교지(보물 제729호) / 용문사 천불전 / 목각좌상 및 목각탱(보물 제989호) / 용문사 만등불사 / 영산회 괘불탱(보물 제1445호)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윤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윤장대를 돌려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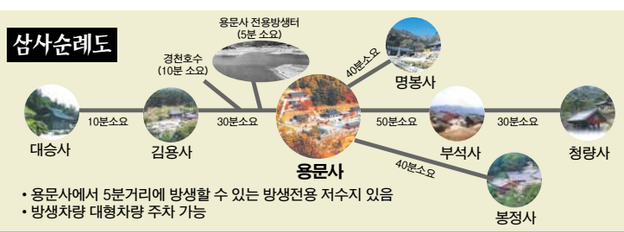
소백산 용문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천년고찰로서 한국불교 중흥과 호국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 및 대장전, 목각탱 · 목각 삼존불, 세조의 교지, 괘불탱, 팔상탱 등 약 315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특히 호국을 기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윤장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이 땅의 수많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시는 자비롭고 영험하신 부처님 말씀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심각한 경제난과 사회 불안으로 점점 살기가 힘듭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 건강을 기원하시는 분, 그리고 집안에 수험생이 있는 분, 새로 이사하는 분들 모두 윤장대를 돌리시어 업장소멸 하시고 사업성취, 병자쾌차, 학업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용문사에서는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전용 저수지가 있으며, 삼사순례를 할 수 있는 대승사, 김용사, 부석사, 청량사, 봉정사, 명봉사 등 전통있는 사찰들이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방생과 삼사순례로 한량없는 공덕 쌓으시고, 윤장대를 돌리시어 각자 지은 업장을 소멸하고 바라는 바 모든소원을 성취하시길 다시한번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주지 벽담 청안 합장

용문사 오시는 길
버 스 : 동서울터미널 출발(06:10~6:30, 30분 간격) 3시간 소요 ⇒ 예천 하차 ⇒ 택시(용문사)20분
승용차(서울) : ① 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② 영동고속도로 ⇒ 여주JC ⇒ 중부내륙고속도로(충주김천방향) ⇒ 점촌 · 함창IC
승용차(부산) : 경부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승용차(대구) : 중앙고속도로 ⇒ 안동 ⇒ 예천IC



삼사순례도



• 용문사에서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방생전용 저수지 있음
• 방생차량 대형차량 주차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 문 사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2리 391 (우)757-800 / 전화 : 054)655-1011, 011-336-4665 / 전송 : 054)655-8405 / www.yongmoonsa.com



여성환경연대는 6월 1일 서울 안국동 윤보선 前 대통령의 고택에서 열린 창립 7주년 기념행사에서 '공정무역 패션쇼'를 개최했다. 이날 공정무역 홍보대사로 임명된 탤런트 변정수씨와 여성환경연대 회원들은 인도와 네팔 등지에서 수입된 '공정무역 의류'를 선보였다. 사진제공=여성환경연대

생산자와 소비자 함께 사는 길

제3세계 생산품 제값 주고 사자!

공정무역 상품 써 보셨습니까?



국내에 공정무역 운동을 처음 소개한 아름다운 가게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제3세계에서 생산된 생활용품과 커피 등을 판매하고 있다. 공정무역 상품의 판매 이익은 15~30% 정도가 생산자에게 되돌아간다. 사진은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조각보와 코끼리 손거울, 원두커피, 보석함.

'뛰면서 즐기는 커피 한 잔의 여유.' 어느 커피 음료의 광고 문구처럼 커피는 현대인들에게 '휴식'과 '여유'를 주는 기호음료다. 그러나 이 커피 한 잔을 생산하기 위해 제3세계의 농민은 농약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그들의 예닐곱 살 난 자녀들은 하루 1달러도 안 되는 돈을 받고 무거운 커피 자루를 지고 옮겨야 한다. 다국적기업들이 일방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농민들의 노동력과 자원을 착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세계화의 이면'이다.

제3세계에서 생산하는 상품을 '제값' 주고 사자는 '공정무역 운동'이 국내에서도 펼쳐지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상생(相生)의 길'을 모색하자는 움직임이다.

▷공정무역이란?

페어트레이드(Fair Trade, 공정 무역). '대안무역(Alternative Trade)'이라고도 불리는 공정무역은 '생산자에게 생산원가와 생계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공정한 가격을 치르자'는 시민사회운동을 일컫는다. 다국적기업이 제3세계 천연자원을 헐값에 매점매석하거나 하루 1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어린 아이들의 노동력까지 착취한 대가로 싼값에 구입한 농산물 대신, 생산 농민에게 생산지 조건에 맞는 최저 가격을 보장하고 직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소매상의 유통 마진 중 일부는 생산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물건을 사자는 것이다.

다국적기업의 이익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도 저개발국 농민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공정무역 운동은 1960년대 유럽에서 출발했다.

'제3세계 생산자에게 더 나은 거래를 보장한다'는 공정무역 마크가 붙은 상품들은 기존 제품보다 10~20% 정도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공정무역 상품 전문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소비자의 힘

공정무역 제품 시장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세계공정무역협회(FLO) 보고에 따르면 공정무역 상품은 18개국에서 매년 20% 이상 매출이 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공정무역 마크를 제정하고 해당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한지 10년 만에 연간 수익이 1억 파운드(약 20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양심적 소비'를 촉구하는 공정무역의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이 늘어난 덕분이기도 하지만, 공정무역 제품 자체가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 제품이라는 것도 소비자의 선택을 이끌어내고 있다.

공정무역 제품 인증기관은 420여 지역 생산자 그룹과 20개국 공정무역 단체와 연계해 제품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장이 커지고 소비자의 요구 수준도 높아지자 네슬레나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도 공정무역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무역의 실효성이 적고 시장 원리에도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다. 영국 애덤스미스 재단은 "최저 가격을 보장해주는 공정무역 운동으로 인해 더 많은 농산물이 생산되고, 결국 해당 농산물 가격은 더 떨어지게 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공정무역이 시장질서를 깨뜨리고, 경쟁력 없는 생산자들의 명맥을 억지로 유지시키고 있다고 공격한다.

공정무역에 참여하고 있는 영국 옥스팜은 "공정무역의 최종목표는 소규모 생산자들도 거대 다국적 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불공평한 세계 무역의 규칙을 바꾸는데 있다"며 "소비자들이 좀 비싸더라도 윤리적인 상품을 선택한다면 긍정적인 무역 관행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아름다운 가게' 통해 국내 첫 선

국내에서는 지난 2003년 '아름다운 가게'를 통해 처음 공정무역 운동이 알려졌다. 아름다운 가게는 쓰던 물건을 기증받아 이를 되팔고 그 이익금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쓰는 '나눔과 순환의 재활용 운동'을 펼치는 단체.

아름다운 가게(www.beautifulstore.org)에서는 제3세계 생산품을 직거래하는 '대안무역' 운동을 펼치고 있다. 생산자들에게 공정한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소외 받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거래를 통해 판매가의 15~30%를 생산자 이윤으로 보장 등을 목적으로 한다. 아름다운 가게 매장과 홈페이지를 통해 인도와 네팔 방글라데시 태국 캄보디아 등에서 생산한 의류 신발 등을 판매하고 있다. 9800원에 판매되는 '아름다운 커피'의 경우 똑같은 양의 커피 원료가 백화점에서 판매될 경우 생산자에게 약 400원의 수익이 돌아가지만 아름다운 가게에서 판매되면 3000원 가량이 돌아간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여성환경연대(www.ecofem.or.kr)는 6월 1일 창립 7주년 기념행사에서 탤런트 변정수씨를 '공정무역 홍보대사'로 임명하고 공정무역으로 수입된 의류를 선보이는 패션쇼를 개최했다. 여성환경연대는 하반기 중으로 인도의 오가닉 코튼, 네팔의 천연염색 의류 등을 판매하는 등 공정무역 운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직거래로 유통마진 일부 생산자에게 돌려줘 원가·생계비 보장

가격 10~20% 비싸지만 매출 매년 20% 성장 유기농 인기도 한몫

여성환경연대도 동참 예정 '아름다운 커피' 등 판매 홈페이지서 구입 가능

5000원으로 만드는 **사찰음식** <24>

감잎 양갱



가끔 절에 가면 다양한 종류의 차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워낙 차가 몸에도 좋고 수행에 도움을 주는 음료이다 보니 절에서는 차문화가 무척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녹차 외에도 황차나 청차 같은 다양한 차도 있고 쑥차나 감잎차 같은 대용차도 있습니다. 저 역시 차라고 하면 녹차나 홍차 정도만 알았는데, 전국 각지의 절에 다닐 기회가 늘면서 여러 차를 마셔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찰음식을 공부하면서 부터는 차문화를 접할 기회가 더욱 늘어난 것 같습니다.

어느 해 가을, 설악산 등반길에 한 사찰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스님과 여러 보살님들이 감나무에 올라 감잎을 따는 것을 봤습니다. 그 모습이 재미있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한참을 바라보다 "감잎을 어디다 쓰실 건가요?"라고 여쭤보았습니다. 스님께서는 감잎차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감잎차라는 말에 고개를 들어 암자를 둘러보니 정말 감나무가 암자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등반길에는 그저 나무가 많다고만 생각했는데, 그것이 다 감나무였던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잠시 일을 멈추고 플라스틱 물통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시원하게 식힌 감잎차였습니다. 차 한 잔을 따라주며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절에서는 떡도 감잎으로 만들고 차도 감잎으로 만들고 장아찌도 감잎으로 담는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 절에 내려주신 큰 선물이랍니다."

감잎차는 시원하고 달콤했고, 시원한 감잎차를 따라주던 스님의 모습도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 역시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의 선물이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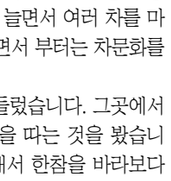
욕심 내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그런 소박한 삶의 보금자리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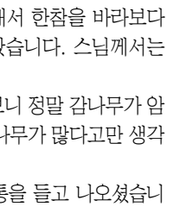
"이 가을이 무르익으면 저 감나무엔 감이 주렁주렁 열리겠지? 첫눈이 내리면 감나무엔 외로이 홍시가 익어 사찰을 찾는 보살님들의 발걸음에 행복을 주겠지?"

이 풍성한 감나무 숲을 걸어 법당에 들어가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계신 부처님께 삼배를 올립니다. 이곳이 바로 극락이겠지요?

■만드는 법

<감잎 영양갱> 재료: 한천 10g, 통팥 500g, 감잎 끓인물 600㎖, 설탕 400g, 물엿 20g





① 감잎차에 물 700㎖를 붓고 끓여 600㎖로 만들어 준다.
② 한천은 1시간 전에 깨끗이 씻어 물에 담가 놓는다.
③ 한천에 감잎 물을 넣고 강한 불로 끓여 완전히 녹인 후 설탕을 넣는다.
④ 한천 녹인 물을 고운체로 걸러준다.
⑤ ④에 통팥을 넣고 졸인 후 물엿을 넣어 부드럽게 풀어준다.
⑥ ⑤의 마지막 단계에서 밤을 넣고 졸인다.
⑦ 원하는 틀에 부어 실온에서 굳힌다.
⑧ 굳으면 틀에서 떼어내 원하는 크기로 자른다.

▶다음 주에는녹차나물과 칡콩나물을 만들어 봅니다.

■ 박상혜(사찰음식연구가)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 출시 - 궁중비법-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15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겐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불교 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 구입금액 : 추명사 건립 보시금 120만원
◆ 계좌번호 농협 704-02-341067(예금주 : 김금란), 대구은행 018-08-388350-001(예금주 : 이하림)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총재 : 백운 성수, 부회장 도영(성수철학원장)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우주 에너지로 건강을 지킨다! www.chgg.co.kr
氣주입법
이재복 지음 2권 값 16,000원
우주에너지에 파동을 맞추면 누구나 氣를 방사할 수 있다.
생명에너지의 레벨을 높이면 몸이 더워지고 손에서는
전류처럼 자장이 흐르고 오라(Aura)가 증폭된다.
척추디스크 자연치유법
가정에서 골반보정운동으로 골반, 척추 바로 잡는다.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질환, 혈전등
혈관계통질환 치료율 98.8% (호주,북한보고서)
MBC - TV (통일전망대 방영)
2005년 11월 22일



북한의 조선중앙 TV는 2005년 11월 14일자로 「반지와 팔찌만 차면 기적처럼 혈액이 정화되는 휴대용 혈액정화기」를 과학영화로 소개했다.
혈관계통 질병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햇빛을 쪼여주면 사향보다도 효과가 더 좋다는 내용이다.

책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받으실때 택배비 3,000원 부담하시면 책2권(정가 16,000원)을 보내드립니다.
도서출판 건강한세상 ☎ 1544-2181



50년 세월…1인 30역

'진짜' 배우 김성녀씨는 '벽 속의 요정'을 통해 소녀에서부터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등장인물 전부를 혼자 연기하며 그 역량을 인정받았다.

1950년대 말, 한 소녀가 있었다. 어느 날 들려온 벽 너머의 소리. 소녀는 벽 속에 요정이 있다고 믿는다. 소녀와 소통하기 시작한 벽 속의 요정은 옛날이야기도 들려주고 소녀와 함께 노래도 부른다.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단 둘이 살아가던 소녀는 벽 속의 요정과 함께 희로애락을 나누며 그렇게 성장해간다. 벽 속의 요정과 함께 성장한 소녀는 결혼하고 그리고 황혼기를 맞는다.

2005 올해의 예술상, 2005 동아연극상 연기상, 2005 평론가협회 선정 올해의 연극 베스트3 등 지난해 각종 상을 휩쓴 '뮤지컬 모노드라마 김성녀의 벽 속의 요정'이 7월 6~23일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에서 앙코르 공연된다.

'김성녀 만이 할 수 있는 작품'이라는 찬사와 함께 재공연 요청을 받아오다 3개 부분 수상을 기념해 앙코르 공연을 올리는 것이다.

벽 속의 요정과 함께 사는 어린 딸과 엄마의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그린 이 작품은 스페인 내전당시의 실화를 토대로한 원작을 극작가 배삼식씨가 우리 상황에 맞게 재구성 · 각색했다.

5살 때부터 무대에 섰던 김성녀씨는 '최승희' '게이오9년 조각구름' '에비타' '피가로의 결혼' '심청전' '춘향전' 등 연극 뮤지컬 악극 마당놀이를 넘나들며 자신의 역량을 펼쳐왔다.

'벽 속의 요정'에서 김성녀씨는 50여 년의 세월을 배경으로 1인 30역을 소화해냈다. 지난해 6월 배우 김성녀의 첫 모노드라마로 세상에 선보인 이래 전회기립박수의 기록을 세우며 큰 화제와 호평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다시 연극으로 돌아가 보자. 커가면서 벽 속의 요정이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는 소녀. 해방 후 좌우익의 이념 대립 속에서 억울하게 반정부 인사로 몰리게 된 아버지가 벽 속으로 피신해 숨어살았던 것이다.

행상으로 힘겹게 삶을 이어가던 어머니는 베를 짜 장사를 시작하면서 경제적인 안정을 되찾는다. 늦은 밤, 어머니를 위해 아버지는 남몰래 수건을 뒤집어쓰고 베를 짰다. 하나 뿐인 딸의 결혼을 앞두고 자신이 짠 베로 만든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을 벽 틈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사면이 된 아버지는 짧지만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맛본다.

힘겨운 삶을 살아온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고 세상을 떠나는 아버지, '살아있는 건 아름다운 것'이라며 아버지를 격려했던 어머니도 세상을 뜬다. 어머니와 같은 나이가 된 딸은 어느 바람 부는 날, 벽 속에서 들리는 소리를 통해 삶의 의미를 깨닫는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시대상황과 벽 속에 숨어 딸의 성장을 지켜봐야했던 아버지의 애틋한 부성애, 가난과 남편의 부재 속에서도 가정을 지켜 온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벽 속의 요정'은 가족과 사랑에 대한 진한 감동을 선사한다. (02)747-5161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뮤지컬 모노드라마 '김성녀의 벽 속의 요정' 앙코르 공연 / 예술의 전당 자유소극장 / 7월6~23일



분단의 아픔
애틋한 부성애
굳건한 어머니
진한 감동 선사







오스트리아 탄츠 좀머 페스티벌에 4~5년간 검증과정을 거쳐 한국 최초로 코리아나예술단이 초청됐다. 사진은 2003년 '니르바나' 공연 모습.

영산재, 세계 최고 무용축제에 선다

오스트리아 '탄츠 좀머 페스티벌' 초청 공연 니르바나 / 7월 13 · 18일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가 세계적인 무용축제 오스트리아 탄츠 좀머 페스티벌에 초청됐다.

김향금 창원대 교수가 이끄는 코리아나예술단이 영산재를 공연예술로 승화시킨 '니르바나'로 탄츠 좀머 페스티벌에 한국 무용팀으로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니르바나'는 7월 13일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18일 그라츠에서 각각 공연된다.

이번에 무대에 오르는 '니르바나'는 고구려 장천 고분벽화의 내용, 고려불화, 조선불화 및 감로탱화에 나타난 무용과 한국무용이 점목된 2시간짜리 공연이다. 그 바탕에는 석가모니부처님의 인도 영취산 법회 즉 영산회상을 상징화한 영산재가 있다. 영산재는 스님들이 춤과 노래로 부처의 공덕을 기리고 죽은 자를 천도하며 산 자의 복을 빌어주는 재이다. 이번 공연에는 법현 스님을 비롯해 월타 스님, 김향금 교수, 코리아나 예술단원 35명이 참가한다.

나비춤 부채춤 등으로 화려한 의상과 춤사위를 선보이는 1장에 이어 2장은 대금 독주로 문을 연다. 관욕, 조전무 등이 엄숙함으로 무대를 장엄한다. 상단권공이 주를 이룬 3장은 복청게, 천수바라, 식당작법을, 회심곡과 회향의식, 탑돌이가 벌어지는 4장은 떠나보내는 소대의식으로 무대를 마무리한다.

오스트리아 탄츠 좀머 페스티벌은 세계 최고의 무용단을 선발해 무대에 올리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동안 현대무용에 치중해왔던 탄츠 좀머 페스티벌이 올해부터 전통예술에 눈을 돌려 처음으로 우리나라 영산재가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작품을 총괄하는 법현 스님(동국대 국악과 교수)은 "7월 4~11일 폴란드 공연을 마치고 오스트리아 공연에 들어간다"며 "오스트리아 공연은 4~5년 전부터 선별작업 끝에 초청된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11월에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초청공연을 할 계획이다.

코리아나예술단은 2000년 한국 전통예술을 활성화하고 전 세계에 널리 알리자는 목표로 설립된 이래 25개국에서 공연하며 각종 페스티벌에 참가했다. 코리아나예술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향금 교수는 88올림픽 폐막식 안무와 아시안 게임 월드컵 개막식 폐막식에서 안무를 맡기도 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사찰벽화 의상을 재현한 승무.



선 사상을 담은 '공'.



김향금 교수는 한국무용과 불교를 접목시켰다.

예·효 실천을 위한 현대불교 윤년 특별 기획

장락수(長樂壽)는 장수(長壽)의 기원과 정성을 담은 불자수의입니다. 불자님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현대불교신문에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소중한 효심을 담아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 불자수의 '장락수(長樂壽)'를 지었습니다. 예로부터 윤년에 지은 '윤년수의'는 탈이 없고, 손이 없어 부모님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최상의 효행 선물이었습니다. 불자님들이 윤년윤달에 준비한 장락(長樂)과 장수(長壽)의 기쁨을 드릴 불자수의 장락수(長樂壽)는 부모님께 깊은 만족과 감동을 드릴 것입니다.

불자수의 長樂壽 장락수



장락수의 특징
- 원사직물시험연구원의 원사심사와 품질보증 Q마크를 획득한 믿을 수 있는 제품
- 30년 경력의 전문가가 면사실로 직접 제작
- 옷함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 특별 주문 · 제작한 수의함

품명	재질	특징	판매가
珍品	대마 100%	최고급 원단 안동포로 제작한 한정된 물량의 최고급 불자수의	4,500,000
名品	대마 100%	최상의 중국산 흑대마, 안동포 전통가공법으로 제작 품격 유지	1,800,000
特品	대마 100%	중국산 사천대마, 남해포 전통가공법으로 제작 실용적 가격	1,450,000
上品	저마 100%	중국 현지에서 엄선된 고급 수직저마를 원단으로 제작한 수의	600,000

※ 멧베 추가 주문시 판매가의 10%가 추가됩니다.

제품구성
- 남성용(18종) : 도포 도포끈 두루마기 저고리 속저고리 겉바지 속바지 천금 지금 베개 면모 버선 오낭 허리띠 대님 장매 악수 고깔
- 여성용(17종) : 원삼 원삼끈 두루마기 저고리 속저고리 겉치마 겉바지 속바지 천금 지금 베개 면모 버선 오낭 장매 악수 고깔

현대불교신문사 기획사업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전화 02)737-0695(직), 2004-8219 / 팩스 02)737-0696
홈페이지 http://biz.buddhapia.com e-mail : onlymaum@buddhapia.com


대행스님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자기 보배의 맛을 알아야

여러분께서 비가 오는데도, 자리가 부족한데도 무릅쓰고 이렇게 같이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몸을 벗기 전에 필연적으로 알아둬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이 때로는 착잡하기도 하지만, 착잡한 것을 생각지 말라 해도 아니 되고 생각해라 해도 아니 되는 것이죠.

그건 왜냐하면 길을 지나가다보면 벌레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동시에 그것을 감지해본다면, 기댈 데가 있으면 좀 덜하고 기댈 데가 없으면 아주 역력히 자기 살 궁리를 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홀홀단신으로 모든 거를 집착하지 않고 일어선다는 것은 참 어려운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점을 감안해서 귀도 떠야 하고 눈도 밝아야 하고, 폭도 넓혀야 하고 하니까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머리 위에도 세계가 있고, 우리 발밑에도 세계가 있고, 사방팔방에 세계가 있습니다. 전체 '대천(大千)' 하면 벌써 그렇게 있다는 말이고, '대천' 하면 그런 세계가 헤아릴 수 없이 있다는 증겁니다.

그러니 요만한 한 지구의 우물에서 '우리가 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땐 참으로 답답한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답답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우물에서만이 자기 집이라고 하고, 자기 거라고 하고, 자기가 했다고 하고, 서로 뺏고 빼앗기고 하는 싸움을 계속하는 그런 정신계의 문제와 육신계의 물질세계와 이 모두가 전쟁 아닌 전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새도 보십시오. 전쟁 아닌가! 내가 생각할 때는 거저 줘도 싫다고 할 텐데 말입니다. 허허허. 돈을 갖다 주고 하라고 그래도 싫다고 할 텐데 말입니다. 이 문제들이 모두 겉면에 탐착을 해서 그런 거죠. 그것도 과한 욕심이죠. 진짜 욕심을 부리려면 우주세계 천차만별을 다 집어먹으려고 해야지 그것이 당연하겠죠. 영원치도 않은 걸 가지고 싸우긴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고등동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하지않게 생을 버리다니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세계가 그렇게 많고 그런데 여러분은 부처님께서 연기법(緣起法)이라고 하신 말을 많이 들어보셨겠죠. 전기가 전력이 있으니까 이게 돌아가고 이렇게 불이 들어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데에서 연기법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연기법이 있는 겁니다. 켜졌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 분명히 아시죠. 그런데 전력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보지 못하시죠. 그것도 이름해서 연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연기법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연들이 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스님, 지금 병원에서 죽어갑니다. 애를 낳고 하혈을 합니다." 이렇게 해도 여러분은 보이지 않으니깐 모르시겠지만 부처님께서는 응신(應身)으로 화(化)해서 거기까지 같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같이 해주는 것은 모르되 내가 하혈이 멎어진 것은 알거든요. 그러니 그것 또한 연기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연에 따라서, 일체 만물 만생이 다 연에 따라서 돌아가기 때문에 모두가 직결이 돼 있고 가설이 돼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겁니다.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스위치만 누르면 즉발 전기가 들어오듯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방편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방편이 없어도 아니 되고 방편이 있어도 아니 되는 그 가운데 모두 여러분이 각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아휴! 나를 찾으려니까 힘들고 주인공에다 놓으려도 잘 놔지지를 않고 그럽니다." 그게 무슨 까닭이냐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콩씨를 심었는데 그 콩씨가 바로 싹으로 화해 버렸는데 콩씨를 과거로 돌아가서 찾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말씀 해드리는 게 맞습니까? 콩씨는 싹이 되려면, 인간이 정자 난자에 의해서 싹이 나듯이, 생산이 되듯이 그것도 수분과 흙과 그렇게 있어야 생산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생산이 됐으면, 싹이 나왔으면 태양열도 필요하고 거름도 필요하고 모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김 매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듯이 여러분이 콩싹이 콩씨를 찾을 때에는 반드시 그 콩싹에 콩씨가 또 열렸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콩씨는 과거 콩씨가 현실의 싹에 콩씨로 또 그렇게 연방 고리가 고리를 물고 있듯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다'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콩이 콩싹으로 화했으니까 지나갔죠? 콩 시대는 지나갔단 말입니다. 이제 싹 시대죠. 싹 시대에서 싹에 콩씨가 또 붙었으니 자기 조상과 그 화한 싹과는 둘이 아니란 얘깁니다. 싹이 없어서도 콩이 없고 콩이 없어도 싹이 없으니 이 노릇을 어떻게 하느냐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 싹과 콩과 둘이 아닐진대 어찌 싹이 콩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콩은 싹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둘이 아닌 까닭에 그렇게 서로 이끌고 있습니다. 누가 이끌어라 말아라 해서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묵은 뿌리가 있습니다. 콩 묵은 뿌리 말입니다! 콩싹이 육의 부모라고 한다면 콩씨는 법의 부모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넓혀야 할 것이 무엇인가? 넓히기만 하는 것이 부처님 법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넓게 알았으면 좁힐 줄도 알아야 한다. 좁힐 줄 안다면 넓힐 줄도 알아야 한다. 이 넓히고 좁히고 하는 생활의 작용을 어떻게 누구가 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다 제각기 자기가 있으니깐 작용을 하죠? 자기가 없다면 누가 대신 해주겠습니까? 여러분은 불교를 믿으시면서 일하는 거 따로 불교 믿는 거 따로 계산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일거수일투족이 들이 아닌 까닭에, 전부 자기가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자기로 인해서 그 콩씨는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바로 콩씨와 콩싹과 더불어 같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콩씨는 움쭉거리지 않아도 그 능력은 배출할 수 있으니깐요. 그리고 또 콩싹에 배려할 수도 있고요. 그건 자동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작용 자체가 바로 자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현실 그대로가 여여한 부처님의 법이자 우리들의 법입니다. 어떻게 지금 뛰고 생각하고 하는 세상에, 어떻게 멀리 가서 물어보고 와서 하겠습니까? 종교를 믿으면 어디에 귀의하고 무엇을 믿습니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것과 시시각각으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대치를 다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나 아닌 타의를 믿는다면 그냥 어떤 큰 일이 벌어졌을 때 길에 가다가도, 그럼 부처님한테 법당에 와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벌써 일은 당하고 난 뒤에 부처님한테 와서 그 일을 그렇게 당했다고 할 겁니까? 아, 생각들 해보세요. 안 그런가, 그런가? 즉시 즉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이러한 방편의 이름이 있습니다. '와지끈 탕탕' 이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거는 말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럽니다마는, 왜 말로 할 수가 없느냐면 여러분이 그릇이 작으면 나도 작아지고 여러분이 커지면 나도 커지고 똑같이 그렇게 가거든요. 그 뜻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릇이 요만하면 나도 요만할 수밖에 없지, 요만한 데다 드럼통으로 쓸어부어 봤자야. 다 나가버리고 그만인 거를 항상 똑같이 해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여하게 두루 걸림 없이 찰나찰나 나투며 와지끈 탕탕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에 누구한테 물어야 합니까? 제삼자가 대신 해줄까요? 자기가, 자기 몸뚱이가 남한테 보였으니까, 그대로 자기가 있으니깐 닥쳐오는 겁니다. 그게, 자기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무효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있기 때문에 상대성 원리가 있으니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콩씨를 자기 안에 두고, 남한테 만날 비럭질을 하는 거죠, 자기 보배를 자기 안에 두고도 말입니다. 그 보배란 어떤 것이냐? 불기둥과 같고, 자기 몸뚱이는 수레와 같아요. 이 세상에 모든 차나 어떠한 물건이든지 중심 없이 바퀴가 돌아가는 거 보셨습니까? 그 중심은 바로 심봉과 같고 자기 보배와 같아서 움죽거리질 않으면서도 그 능력을 베풀 수 있는, 배려해줄 수 있는 그것을 다 갖추고 있단 얘깁니다. 왜냐하면 심봉이기 때문에 바퀴가 거기 꿰어져 있거든요. 이 지구도 중심이 없다면 여여하게 그렇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중심이 있기 때문에 기울어지지도 않고, 움죽거리지 않으면서도 움죽거리게 돼 있습니다.

아까 연기법이라고 얘기했죠? 그것도 한 개의 이름이지 진실한 실천이 바로 문제입니다. 길에 오다 가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보이지 않는 데서 대치를 할 수 있어야만이 보이는 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남이 볼 때에 아, 저 사람은 모습은 저렇게 그냥 했어도 자기 몸이 수월하게 빠질 수 있고 여여하게 갈 수 있게끔 될 때 그걸 우연이라고 하겠습니까? 자기가 우연이라고 하겠느냐고요.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대치했고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도 당했지, 그 우연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자기의 보배로 하여금 보이는 데로 나온 것입니다. 그것도 이름해서 하나의 연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지구 안에서 이렇게 오물딱오물딱 살면서, 벌레 하나 버리지 않고 살면서 그 바깥으로는 못 나가시죠? 지구 바깥으론 안 되시죠? 허허허. 그래서 말입니다, 항상 난 그런 말을 잘해요. 그 지구가 버스라면 대형 버스라면, 그 대형 버스 안에 우리가 들어서 서로 싸우고 그냥 수라장이 돼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러냐, 그러냐? 옳으냐, 그르냐?' 하고 온통 그냥 벌어먹기 위해서 안하무인으로 남을 밟고 남을 올라타고 또 올라타면 위에서 그냥 내리밀고 이렇게 해서 중간에서 그냥 힘이 들고, 살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힘이 너무 들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맸던 것입니다. 우리 중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은 허리띠를 안 맨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버스 안에서 살면서 이 버스가 돌아간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어디로 돌아가고 돌아오는지 제자리걸음을 하는지 그걸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돌아서 오는지 어디로 돌아가는지 생각해보셨습니까? 그것도 또한 돌아가고 돌아온다는 거는 아는데 어디로 어떻게 해서 돌아오는 것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도 또한 이름해서 연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사실은 모르는 게 아닌데도 그냥 이름만 그렇게 돌아온다더라 그렇게 돌아간다더라 이런 것만 알지 내다보기라도 했습니까? 그래 여러분이 우물 안에서 놀기보다는 좀더 우주세계를 내다볼 수 있고, 우주세계를 들을 수 있고, 과거세계와 미래세계를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인생살이를 할까. 얼마나 자유인으로서 살 수 있을까. 밥을 굶는다 하더라도 허허, 하늘을 쳐다보고 웃을 수 있는 진짜 그런 자유인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어느 누구도 나 아님이 없기 때문에 공양을 바치는 사람이 그냥 갖다줘도, 거지가 얻어다줘도, 어느 누구도 인연에 따라서 밥을 굶어서 배에서 쪼륵소리 나게끔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즉 자유인의 삶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오는 대로 배가 부르게 그냥 그저 자기 몸뚱이가 어떻게 되든지 먹기만 하는데 그게 아니죠. 자기가 공덕이 많아서, 베풀어줘서 그만큼 들어온다 하더라도 먹는 거를 또 제재해서 아주 알맞게 먹어야 되겠죠. 목적지를 가려면 알맞게 싣고 가야지 운전자 머리 위에도 그냥 잔뜩 싣는다면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듯이, 우리 삶이 바로 이런 것에서 모두 벌어지는 문제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 세상의 보물을 다 주워 모아서 너를 줄 테니 너 이걸 가지려느냐, 근본 금강석 같은 보배를 가지려느냐 한다면 어떤 거를 가지시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잘살고 잘 먹고 부자로 으스대고 잘살아보기 위해서는 아마 그거를 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한철인 걸요, 한철요. 욕심 많은 사람은 한철 그까짓 거 가지고 눈에 뜨이지도 않습니다. 한철 지나면 그냥 다 없어질 것을, 자기 몸뚱이까지도 없어질 것을 왜 그걸 택하겠습니까? 그러니 영원히 내가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먹을 수 있고, 영원히 쓸 수 있고, 영원히 갖출 수 있고, 영원히 자유스러울 수 있고 그런 길을 택하지, 고작 한철 잘 먹고 잘 지낼 거를 택하겠습니까?

지금 전세계로 다 돌아다녀보니까 전부 타의에서 구하고 기도를 해요. 정말 기도 소리라는 게, 너무도 기도라는 것에 실망을 해서요, 너무도 정말이지 기가 막힌 탄식이 나오더라고요. 때로는 영계성이다 때로는 뭐 그것들을 하나 불들고 영계성의 연구를 하질 않나, 또 그렇지 않으면 철학이라고 하는 거를 불들고 늘어지질 않나. 이것은 이것저것 하나만 불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바깥으로 말이에요.

☞3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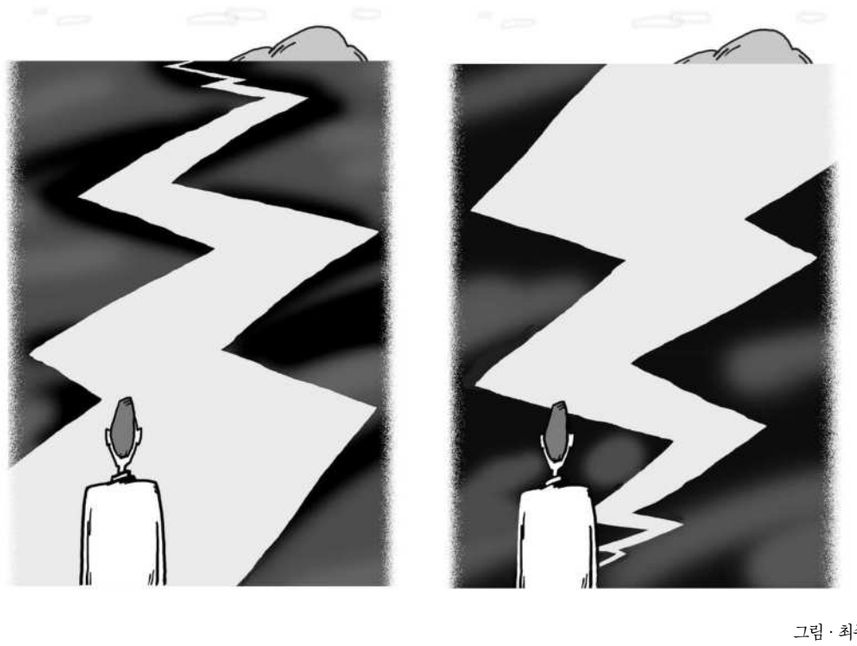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여하게 두루 걸림없이
찰나찰나 나투며 '와지끈 탕탕!'

이 안의 내 보물은
우주 삼천대천 세계를 꿴 심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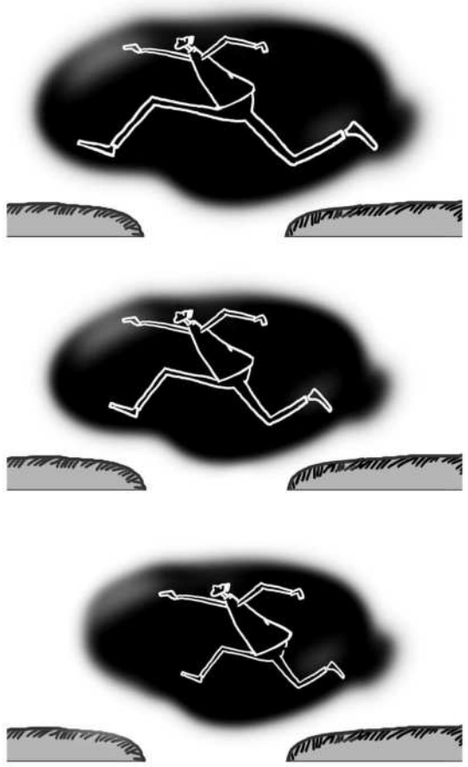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진실한 실천이 바로 문제!

현실 그대로가 여여한 부처님의 법이자 우리들의 법입니다

이 뛰는 것만 가지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일체 만법, 여러분이 굴리고 작용하고 돌아가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사람이 살다보면 극한 문제가 있어서 안에다 굴리지 않는다면은 분기가 나서 분대로 막 말을 해버립니다. 말을 해버리면 그 말을 다시 주워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 굴리다 보면 "주인공! 너만이 그렇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아!" 할 때에 벌써 마음은 가라앉아서 순서 없는 말을 내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아무렇게나 그냥 자기 생긴 대로, 그냥 나오는 대로 막 말을 해버리는데 그렇게 한다면 안 됩니다. 항상 나를, 내 키에 재지 말고 내 그릇에 재지 말고 상대방의 그릇에 따라서 대치를 해나가신다면 얼마나 둥글고 좋겠습니까? 항상 잣대를 내 키에다 재면, 내 방식대로 내 그릇대로 상대방을 생각한다면 항상 모가 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그릇에 따라서 나도 그 그릇이 돼준다면 항상 둥근 겁니다, 둥글어요. 세상에 나서 얼마나 이 몸을 가지고 살려고 그렇게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을 섭섭하게 하고, 남을 이익치 못하게 하고, 앙심을 먹게 하고 그럽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나한테는 무슨 이득이 있느냐 하시겠지만 만물이 다 한마음이 돼서, 내 한마음이 돼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데, 예를 들어서 얘깁니다. 길에 가다가 몰매를 맞게 됐는데 그냥 내 한마음 식구가 모두 우르르 달려 나옵니다. 그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돼서 모습이 없는 모습들이 달려 나오는 거죠. 달려와서 '아이쿠, 내 몸 죽인다!' 하곤 내 몸 살리느라고 그냥 모두 살리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개운하고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이 자기 보배의 맛을 모르면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 안양엘 가다가 보니까 싸움이 났는데 무슨 싸움인가 하고 이렇게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거지 탈을 쓴 아주 옷이 남루한 청년인데, 청년 다섯이 그냥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 준다는데도, "돈이 없어서 못 주지 있으면 주지 않겠니? 지금 우리 어머니가 병환이 나셔도 내가 그 돈을 못 주고 있지 않아." 하는데도 그냥 "이 새끼 돈 내놔!" 하고는 그냥 때리거든요. 내가 내려다보다가 아, 참 기가 막혀요. 세상 사는 게 저렇게 살고 저렇게 하다보면 우리는 불국토를 가져오기는커녕 악다구니 마구니 종자만 생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심스러워서 그거를 좀 내가 돼줬죠. 부처님이 되게끔, 부처님 법신(法身)이 되게끔 했단 얘깁니다.

그랬더니 어디서 난데없이 노인 축에도 안 가는 한 사십 먹은 분이 척 오더니 "왜들 이래? 돈이 없어서 못 주지 있으면 주지 않겠나? 누군들 다 그렇지, 너도 돈 없어봐라." 하면서 그냥 탁 헤어지게 하니까 다 순순히 말을 듣고선 가더라고요. 가고 나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어, 그러게 그래. 어머니가 아파서 그거 그렇게 했어? 어디서 사는데?" 뭐 그런 걸 다 적어가지고 가더라고요. 틀림없이 취직을 시켰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하하. (대중 박수)

이것이 우리가 그냥 우연이고 보통 그냥 아무렇지도 않는 일 같지만, 그 하나하나가 뼈저린 문제입니다. 인생이 살아나가는데 얼마나 뼈저린 문제들이 다가오고 얼마나 뼈저린 문제들이 안에서 일어나는지 여러분은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고도 살아나가시면서도 그런 거를 당해보지 않은 분들은 말로만 듣고 그저 그런가보다 했지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기를 때 용돈 많이 주지 마시고, 허허허, 아주 모자라게도 주지 마시고 너무 넘치게도 주지 마세요. 그리고 겉으로 쓰다듬고 이쁘다고만 하지 마시고 속으로 항상, 그저 겉으로는 팽개쳐 놓는 거와 같아도 부드럽게 말해주고, 부드럽게 섬겨주긴 하지마는 항상 집착을 두지 마세요. 집착을 하면은 그건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의 큰일을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걸음을 걸어가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빛을 내지 못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가난한 집 아들은, 손도 써볼 수 없는 아들들은 그래도 스님께 말씀만 드리고 가면 다 좋은 데로 떨어졌는데, 뭐 그 미군들하고 이러는 거 뭐죠? 군인 가는 거 말이에요. 그런 데로들 떨어지고 병원으로 떨어지고 가까운 데로 떨어지고 이러는데, 부모들이 손을 써준 아들들은 다 잘됐다 하더라도 다시 못 돼졌고, 또 꺼내서 잘 해놨는데 일을 저지르고 자기가 스스로서 빛을 못 내고, 또 멀리 그냥 좋지 않은 데로 떨어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를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스님,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정말 그럽디다." 하면서 "정말 그 도리를 가르쳐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고 울기까지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당신이 그렇게 즐겁고 잘 믿고 가면 동시에 어디가 좋으냐 하면은 조상도 좋고 자녀들한테도 좋으니까 그 즐거운 눈물은 아껴두라고요. 그래서 이 도리를 꼭 믿고 가야 되고 실천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을 할 줄을 몰라서 지금 그러는데요, 이 조상이 잘해나갔으면 자식도 잘돼나갑니다. 그런데 조상이 잘못했으면 자식도 거기 한 줄에 꿰여 있기 때문에 잘 안됩니다, 그 업보가 같이같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또 자식이 잘하면은 부모가 연결이 돼서, 조상들이 잘 천도가 되고 또 활용을 해서 이 세상에 보람 있게 나와서 참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을 이끌어가지마는, 그렇지 못하면 이런 게 있죠. 자식들이 잘못해 놓으면 부모가 회사 경영이라든가 정치라든가 이런 거 하는 데에 많이 연결되죠. 몹쓸 일을 했다면 아이고, 모가지까지도 날아갈 수가 있죠. 부모가 잘못해도 자식이 그렇고 자식이 잘못해도 부모가 그렇습니다.

이 도리에서 보면 대대로 그렇습니다, 대대로 말입니다. 그게 유전성입니다. 인과로 인해서 유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전성 세균성 업보성이 되는 거죠. 인과성 영계성, 이 문제가 어떻게 오느냐? 나는 현실에 정신분열증을 앓는 사람을 많이 볼 때 '어허, 저것은 아무 때 연분에 이렇게 이렇게 살생을 어떻게 어떻게 저질렀구나. 하나만이 아니라 수없는 거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식들마다 저렇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는 자기 자신과 식구들이 한데 합쳐서 지금 녹음이 되고 입력이 돼서 팔자 운명대로 나오는 것을 되 거기다가 넣어서 그 입력을 없애는 공부를 하시라 이겁니다. 그거는 그 자리에서 나온 자리로 다시 입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 업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대손손으로 내려갑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게. 영계성이든지 유전성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없애려면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것을, 되 그 자리에다가 맡겨놔야 앞서 입력된 게 없어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데도 모르시겠습니까? 아시겠죠?

대중: 예.(대중 웃음)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4년 6월 18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29면에서 계속

이 안의 내 보물은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꿴 바로 기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기둥은 움쭉거리지 않으면서도 그 수많은 세계를 다 대처하고 배려하고, 그 능력이 자동적으로 배출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기둥이 하나 붙은 그 수레가 수억 개로, 수만억으로 돼 있고, 보살이 수십억으로 돼 있단 얘깁니다. 보살은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거기에는 철학도 붙어 있고, 의학도 붙어 있고, 과학도 붙어 있고, 천문학도 붙어 있고, 하하하. 이게 모두가 여기에 다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모조리 요거 하나만 연구해서 내가 잘 캐치한다면, 예를 들자면 콩껍데기가 콩이 자기한테 달려 있다는 거를 알면 진짜로 믿어질 겁니다. 자기 중심에 자기 몸뚱이가 있는 거지, 자기 몸뚱이가 없으면 중심도 없고, 중심이 없으면 몸뚱이도 없는 건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장마가 들었는데 개천을 건너려니까 어디를 뛰어야만 잘 건너뛸 수 있을까 하고 위도 보고 아래도 보지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 뛰어가서 무조건 넓든지 좁든지, 빠질 거든지 안 빠질 거든지 그냥 뜁니까? 안 그러죠? 부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상세계를 보고 하세계를 보고 중도(中道)를 지켜라, 중도를 지킴으로써 중용을 하게 된다, 중용을 하게 됨으로써 모두가 종자를 제대로 찾을 수 있고, 제대로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무조건 뛰어가서 건너질 말고, 아래 위를 봐서 잘 생각해서 내가 뛰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안에다 (가슴을 짚어 보이시며) 굴려서, 안에다 굴리고 잘 보고 안에다 굴려서 뛰어라 이겁니다.

이화 청기와 공장

• KS S형 청기와
장당 3,500원 도착
(하차별도)

• 한식 검정 시멘트기와
장당 1,500원 도착
(하차별도)

문의 041)554-0112(천안)
011-9820-0112(직)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관신환

상기 관절염 등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관신환(丸)

통상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치거나 뼈가 기형화되기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윤량한의원의 윤량원장은 수십년동안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등의 환자와 전쟁하면서 연구개발한 관신환(丸)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임상결과 80-90% 이상 호전반응이 나오며 관신환(丸)을 5~7일만 복용해도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어떤 관절염 약을 복용해도 못 느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한약은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됩니다.

관신환을 드실 분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무리가 오시는 분
· 기타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
· 류마티스관절염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위궤양때문에 관절염 약을 못드시는 분
·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이 잘 안되시는 분
·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심하신 분
·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디스크 등이 아프신 분

윤량한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부처님의 가피로,
불자님의 가정에 더 큰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백년가약
사랑스런 자녀의 혼인을 현대에서....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 합장

위치안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 大幸,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영숙(법명 : 無生子)
사무실 : 02)2677-5442
소연구원 : 032)345-5411
휴대폰 : 011) 288-2944

현대결혼연구원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 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마음 내려놓기 (하)

양경인 (서울시 중구 필동)



그림 · 문병성

이런 순간순간을 세세하게 말하는 것이 너무도 힘들고 답답하기만 한데 두서없는 내 이야기를 언제나 묵묵히 들어만 주시는 스님은 어김없이 녹차 한 잔을 따라 주셨다.

"시간 나면 법당에 가서 절을 한번 해보세요. 거창하게 108배를 하라는 게 아니고 삼배만이라도 해보세요. 강요는 아니에요. 시간이 나면 하세요!"

차 한 잔을 더 권하며 하는 말씀이 내게 와닿곤 했다.

얼마 뒤 스님 말씀도 말씀이거니와 딱히 할 일도 없고, 잠깐 시간을 내어 법당에 들러 삼배를 하는데도 왜 절을 하는지, 절을 하는 내 모습마저도 초라하게 여겨졌다.

어김없이 발걸음은 스님이 계신 곳으로 향했다. 스님은 환한 미소로 나를 반기며, 절은 해 보았냐고 물으시는데 건성으로 대답만 하고 또 나의 자학에 가까운 아만에 관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식욕도 점점 잃어가고, 삶의 의욕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 서있을 이유를 상실해가는 나를 스님은 한없이 다독여 주셨다.

"법우님은 참 밝아요. 많은 사람들이 법우님 그런 모습을 좋아 한답니다. 예의가 바르고 인사성도 밝아서 요즘 사람 같지 않다는 칭찬이 자자해요."

"칙칙한 색 말고 밝은 색 옷을 입으세요. 접어 입는 청바지가 발랄해 보이고 예쁘던데…. 그래요, 운동화 말고 구두도 신고 그러세요."

어떤 말씀을 해주셔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모든 것이 아만인 것 같고, 스님께 구구절절 말씀드리는 내 모습마저도 싫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손가락하나 까딱하는 행동마저도 조심스러워지자, 먹는 것이 제대로 소화될 리 없는 나는 결국 집밖을 나설 수 없을 만큼 아팠다. 그 누구도 간호해 주는 사람 없이 집에 혼자 누워 있자니 그 처량함이란 말로 표현 할 수 없었다. 식은땀을 흘리며 머릿속이 깜깜해지는 아찔함을 느끼고 있으니 이러다 죽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물을 한잔 마셔도 화장실은 끝없이 가야했다. 약조차 넘어가지 않고 먹은 것 없이 화장실만 들락날락하다 금새 지쳐서 잠이 들었다. 그렇게 하루 밤을 보내고 몸을 추스른 뒤 집을 나서는데 비온 뒤 맑게 갠 날마냥 깨끗한 공기가 들숨으로 들어왔다. 온 몸의 피부가 숨 쉬고 있는 느낌이었다면 조금 과장된 것이려나.

햇볕도 따사롭고 너무나 상쾌한 가운데, 목이 말라 편의점을 들어서는데 편의점 직원이 "어서 오십시오, 손님!"하고 반갑게 맞는다. 평소엔 거추장스런 형식적인 인사처럼 여겨졌는데,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순간 나도 모르게 "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있었다. 물값을 치르고 가게를 나서려는데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라는 인사에 손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세상이 달리 보이면서 살아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사지 멀쩡하게 낳아주신 부모님께 먼저 감사하며, 길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이 감사하며, 소중하게 여겨졌다. 그 나름의 삶에, 역할에 충실하신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워 보였다.

그길로 돈각 스님을 찾은 나는 오늘의 경험을 간증(?)하듯 풀어냈다. 그간 소원해졌던 기간 동안의 심경과 함께 밀린 숙제마냥 지난 것까지 모두 한숨에 말씀을 드리고 나니 스님이 웃으셨다. 그리고는 책꽂이 한 켠에 복사해둔 종이 한 장을 읽어 보라고 내미시는데 <법화경> '상불경보살품' 이었다.

<법화경>에 나오는 상불경 보살이라는 구도자의 이야기인데 그분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감사하다는 인사와 존귀한 부처님이 되실 분이라고 칭찬하며 다녔다고 한다.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비웃거나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모두 구제하고 본인도 부처님이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신묘한 지혜 한량없어 모든 중생을 권장하며 인도하고 하늘 사람 용 귀신들의 공양함을 받았으며 이 부처님 열반하시고 법이 없어지려는 때에 한 보살이 있었으니 이름이 상불경 보살. 그 때에 있던 여러 대중들 법에 집착되었거늘 그 때 상불경 보살이 그들의 처소에 가서 이렇게 말하기를, 그대들 경멸하지 못하노니 그대들 도를 닦아서 모두 다 부처 되리라……상불경 보살 명을 마치매 수없는 부처님 만나 이 경전 말씀한 연고로 한량없는 복을 얻고 점점 공덕을 갖추어 부처의 도를 빨리 이루었나니 그 때의 상불경 보살은 지금의 내 몸이요, 그때 사부대중으로 법에 집착되었던 이들 상불경 보살이 말하기를 그대들 성불하리라 하매 그 말을 들은 인연으로 수 없는 부처님 만난 이는 지금 이 회중에 있는 500명 보살대중과 그밖에 사부대중인 우바새 우바이들 지금 나의 앞에서 법문 듣는 이들이라…."

절할 수록 부처님 말씀 가슴에 와닿고

마음의 변화 다스릴 수 있는 여유 생겨

게송의 내용은 이러했다. 그동안 강의시간이나, 절에서 수많은 법문들 속에 한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 이야기였다. 그동안 코웃음 치며,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라 치부했던 부처님 전생 이야기들과 경전 글귀 하나하나가 너무도 감사하게 가슴에 와 닿았다. 이제야 겨우 글이 눈에 들어온다는 표현이 어울리며, 견문이 열린 순간이었다.

"법우님 법당에 다녀오셨어요? 그동안 절은 계속 하셨나요?" 순간 뜨끔하는 마음과 함께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법당으로 달려갔다. 법당에 들어서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절을 하는데 좌복에 머리가 닿는 순간 일어 날 수가 없었다.

"이런 것이 하심이구나! 절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런 심정으로 머리를 낮추시는구나!"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자리에서 일어나 삼배를 하고, 또 삼배를 하고 얼마나 많이 절을 했는지도 모르게 계속 해서 절을 하고, 또 했다.

절을 하면서 문득 든 생각이, 스님은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서 부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릴 때까지 기다리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실제로도 그랬을 것이다.

짧지 않은 시간 스님과 함께 했지만 나에게 경전의 글귀나 부처님 이야기는 한 번도 들려주시지 않으셨다.

그 날이 계기가 돼 나는 요즘도 가끔 법당을 찾아 삼배를 하고 108배를 한다. 물론 그 일로 인해 내가 한 번에 깨달음을 얻어 더 이상 나쁜 생각과 아만에 빠지는 일이 없어졌다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나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고민하고, 맘이 상하면 욕도 하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절을 하면서 이 모든 마음의 변화를 다스릴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다. 비록 예전처럼 스님을 매일같이 찾아 뵙지는 않지만 오늘은 스님께 전화 한 통화 드려야겠다. (끝)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중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체탈 도첩 공고

법 명	속 명	제 적 사	체탈도첩일
탄 공	구회림	인천 보화정사	2006. 6. 21
광 진	구봉관	〃	〃
혜 능	신동렬	광주 관음정사	〃
서 광	이강춘	충남 용마사	〃
법 정	원상식	경기 관심사	〃
지 각	박말서	광주 동원사	〃
성 오	김학녀	경기 포교원	〃
보 성	김종현	경남 상선암	〃
영 암	박성원	충남 원묘사	〃

위 스님들은 종헌종법 제 3장 8조에 의거
체탈도첩 되었기에 공고 합니다

2006년 6월 21일

(재) 한국불교 법륜종 총 무 원

탈종공고

● 사찰명 : **강선사**

● 주 지 : **혜경**

● 주 소 :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507-21**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대한불교 대승종 총무원장 법하

탈종공고

● 사찰명 : **정토사**

● 주 지 : **응천(박창식)**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523-61**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2006. 7. 5

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 총무원장 법하



오대산 월정사 입구는 높이 30 m안팎의 전나무들이 일주문부터 큰 절까지 숲 터널을 만들고 있다.

전나무 숲길 불보살 품같이 포근

자장이 문수보살 친견 기도 하던 곳

신라 자장이 이 땅에 불보살이 상주하고 있다는 불국토(佛國土) 신앙을 세운 것은 선덕여왕 무렵이었다. 자장이 굳이 오대산을 성지화한 것은 오대산이 고구려와의 접경지였기 때문이었다. 이 지역의 민심을 다독여 어렵사리 얻은 땅을 유지코자 했을 것이다. 월정사의 위치는 자장이 문수보살 친견을 기도하며 머물렀던 모옥(茅屋)의 옛 자리로 전한다.

월정사 주변의 자연생태를 돌아보는 일은 일주문에서 시작하는 것이 통상이다. 활엽수를 수하에 거느린 전나무 숲길이 일주문부터 시작된다. 높이 30m 안팎의 전나무들이 큰 절까지 숲터널을 만들고 있다.

월정사 주변의 전나무 숲은 역사의 숲이다. 일본강점기에는 동양척식회사가 반강제적으로 월정사 사찰림 일부를 매입해 벌채를 했고, 한국전쟁 중에는 월정사와 함께 전화(戰火)에 휩싸였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7억 ㎡에 달했던 월정사 주변의 산림축적이 일제 강점기 동안 2억 ㎡로 줄었다고 한다. 전쟁 중에 월정사는 칠불보전을 비롯해 17동 건물이 모두 잿더미가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숲도 많이 사라졌다.

이 숲길 구간은 국립공원측에서 정기적으로 식생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구간이다. 이 구간의 주요 활엽수들로는 갈참나무, 말채나무, 고로쇠나무, 층층나무, 함박꽃나무, 물푸레나무, 신나무, 단풍나무, 딱총나무, 쉬땅나무, 난티나무, 붉은병꽃나무 등이 있는데, 쉬땅나무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식물구계학적 특정종(3급)이다.

숲은 소리와 함께 숲이다.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이 모두가 숲속에 사는 신령들이다. 전나무 숲을 돌아 흐르는 월정천은 비로봉(1,563m)과 두로봉(1,422m) 사이의 여러 계곡에서 발원한 남한강의 상류이다.

월정천의 기반암은 화강암과 화강편마암이다. 반야교에서 금강연(金剛淵)을 지나 일주문에 이르는 구간은 이들이 부숴진 자갈과 바위가 있어 계류성 어종들이 사식하기 좋은 조건을 보이고 있다. 기록에 금강연에 열목어가 서식하고 있다고 했지만, 근래 보고된 바는 없다.

이 수역에서 관찰되는 민물고기로는 우리나라 고유종인 금강모치, 참종개, 새코미꾸리, 꺽지, 퉁가리 등을 비롯해 돌고기, 새미, 미꾸라지, 대륙종개 등이 있다. 월정천에 3급수 어종인 미꾸라지가 나타나는 것은 무분별한 방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미꾸라지는 이끼조차 끼지 않는 1급수 월정천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

모나지 않은 자연지형 배려한 가람

월정사가 앉은 자리는 동대 만월산 정기가 내려와 월정천 앞에서 모인 자리이다. 그 자리에 적광전(寂光殿)을 본전으로 앉히고 좌우로 전각들을 펼쳤다. 이런 가람배치는 일주문에서 대웅전까지를 중심축으로 하는 전통배치와는 조금 다르다. 자연지형을 우선한 배려이다. 월정사의 분위기가 모나지 않고 둥근 느낌을 주는 것도 그런 데서 비롯된다.

적광전 토방에는 구름 무늬가 있는 운문전(雲紋塼)이 깔려 있다. 그렇게 해놓으니 적광전은 자연적으로 '구름 위의 집' 즉, 천상의 보궁이 되었다. 화마의 침입을 막기 위해 적광전 용마루 좌우에는 치미를 올려놓고, 별당 용마루 좌우에는 취두를 올려놓았다.

근래에 적광전 앞 팔각구층석탑 주위에 국화과 식물인 벌개미취를 심었다. 탑이나 석등과 같은 석조물 주위에 화단을 조성하는 것은 일본식 조경법이다.

경내에 세열단풍나무(공작단풍), 금송, 일본목련, 노란해당화 등 원예종 조경수를 심은 것도 그렇거니와 나무들마다 가위질을 해서 인공적 모형을 만든 것도 상투적인 일본식 조경이다.

전각 뒤 만월산 자락은 붉은 수피가 인상적인 육송들이 자리하고 있다. 산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전각과의 사이에 머리 깎듯 내화수림대를 조성했다.

용금루를 나오면 그윽한 전나무숲을 또 만난다. 오로지 전나무로만 이루어진 단순림이다. 1929년 조선불교 중앙교무원에서 낸 사진첩 <조선사찰 31본산>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2급인 긴점박이올빼미가 동대 관음암 주변에서 관찰됐다. 이기섭 촬영

'월정사' 편에는 이 전나무 숲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월정사 전나무숲의 역사를 단정짓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

월정사 부도전은 월정사에서 상원사 가는 길로 500m 가량 떨어진, 아늑한 전나무 숲속에 자리잡고 있다. 부도전 주변은 전나무 군락이 몇 그루의 소나무와 함께 병풍숲을 이루고 있다.

부도전 앞으로 446번 지방도가 지나가고 있다. 1960년대 군작전도로로 개설된 이 길은 상원사 앞을 지나 홍천군 내면 명개계곡으로, 오대산을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다. 그러나 비탈이 가파르고 험난하여 개통 후 거의 방치되다시피 버려져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비구니 선방 자리

오대산의 오대신앙은 자장 이후 이 산을 찾은 보천과 효명 두 수도자에 의해 펴졌다. 월정천을 사이에 두고 부도전 건너편에 남대 지장암이 자리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로 열린 비구니 선방이 이곳에 있다. 지장암은 전나무 대신 소나무들이 병풍처럼 둘러있다.

지장암 들머리에는 스님들이 인공식재한 것으로 보이는 속새가 밭을 이루고 있다. 속새는 고생대 데본기에 전 지구를 뒤덮었던 원시식물로, 오대산의 습하고 기름진 토양에서 자주 관찰되는 식물이다. 줄기는 속이 비어 있으며, 마디와 능선이 있다.

오대산엔 다양한 파충류들이 살고 있는데, 누룩뱀도 그 중 하나이다. 뱀들은 먹이를 사냥한 후 배가 부르면 따뜻한 곳을 찾아 몸을 데운다. 그래야 소화가 잘 되기 때문이다.

다시 길을 건너오면 동대 관음암까지 숲길이 나 있다. 등산객도 관광객도 찾지 않는 호젓하고 그윽한 숲 속에 자동차 길이라니…. 이 길은 원래 한 두 사람 겨우 비켜지나갈 좁은 오솔길이었으나, 관음암에서 나무 대신 기름과 같은 화학연료로 에너지원을 바꾸면서 그것을 실어 나르기 위해 부득이 자동차길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1.5km의 숲길은 포장과 비포장길이 반반이다. 경사진 곳에만 선택적으로 포장되어 있다. 숲속의 포장이 반환경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 또한 비탈길의 토양유실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다.

멸종위기 긴점박이올빼미 관찰

관음암으로 가는 숲길 주변은 활엽수 바다 가운데 우람한 전나무들이 돛대마냥 듬성듬성 서 있는 형태이다. 여우버들도 관음골 식솔 가운데 하나이다. 여우는 사라지고 여우버들만 오대산에 남았다.

숲바닥에는 관중들이 곳곳에 군락을 이루고 있다. 관음골은 생태가 비교적 튼실해서 관중의 키가 80cm에 이른다. 새의 깃털처럼 생긴 잎은 밝은 초록색을 띠고 있지만, 만져보면 딱딱한 가죽질이다.

오대산은 자연생태계가 비교적 튼실하여 35종이나 되는 다양한 조류들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 월정사 주변에 서식하고 있는 조류는 모두 28종으로 파악됐다. 환경부 지정종으로는 오색딱다구리, 매사촌, 검은등뻐꾸기, 벙어리뻐꾸기 등이 확인됐고, 관음암에서는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2급인 긴점박이올빼미를 관찰했다. 긴점박이올빼미는 주로 밤에 사냥을 하지만, 간혹 흐린 날에도 사냥에 나서 들쥐, 작은 조류 등을 잡기도 한다. 백두산, 설악산 등의 고산지대에 서식하는, 보기 드문 텃새이다.

글 · 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즐거운 여름휴가를 여시아문 추천 도서와 함께.."

모든 감정을 탁 놔버려라!
禪 너는 누구냐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초청 대법회
'마음 공부 제대로 해서 행복하게 살자'라는 공통된 메시지로 때로는 자상하게, 때로는 추상 같은 엄격함으로 자신들의 수십 년 수행 경험을 청중들에게 전했던 지난봄 조계사 선원장 대법회 법문 내용이 책으로 묶여 나왔다.
– 조선일보
Hot! 신국판 / 288쪽 / 값 9,000원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대하 로그 다큐멘터리 신왕오천축국전
혜초따라 5만리
무려 15년 동안 7차에 걸려10여 개국을 떠돌고 머물며 발품으로 완성한 신왕오천축국전
Hot! 상권 302쪽 · 하권 296쪽 값 각권 18,000원 / 김규현 지음

주제가 있는 '禪' 이야기
선 어 삼 백 칙
지금 나에게 질문하는 자, 이것이 바로 너의 보배이다
일체를 갖추고 있으며, 조금의 흠결이나 부족함이 없다.
신국판 / 420쪽 / 값 10,000원 차차석 譯解

잊혀져 가는 폐사지 그 소중함을 되찾는 이야기
잊혀진 가람탐험
폐사지 보존 법안 성정추진까지 이끌게 만들었던 책으로 시인 장지현이 폐사지를 직접 답사하여 책으로 엮었다.
B5변형 / 356쪽 / 값 23,000원 장지현 저

'선방'에서 벌어지는 사건
선 방 일 기
'지허'라는 서울대 출신 스님의 선방에서의 일과가 솔직담백하게 담겨 있는 이야기.
B6 / 136쪽 / 값 5,000원 지허 스님 지음

'화 잘 내는 사람'은 최고의 수치다!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화 잘 내는 사람이라는 말을 최고의 수치로 여기는 티베트 인들의,성전 '보리도차제(菩提道次第)'를 초펠 스님이 직접 배워 번역한 책.
B6 변형 / 178쪽 / 값 4,500원 초펠 스님 편역

집착은 마음의 적!
스님이야기
수행 · 복지 · 포교 · 교육 등에 매진하며, 구도에 힘쓰는 스님들의 치열한 삶과 열정이 소개된다. 85명 스님들의 수행일화 속에는 재미난 에피소드들도 가득 담겨있다. 그 자체로 절의 역사가 되고 나아가 불교역사의 한 장면이 되는 스님들의 진솔한 모습이 담겨 있어 의미가 깊다.
448쪽 / 값 12,000원 지묵 지음 외

참선자의 필수도서
참선요지(參禪要旨)
깨달음을 향한 과정 중 안일과 나태 그리고 아집과 자기 합리화에서 벗어나, 수행자의 모습을 찾도록 하는 필수 지침서.
B6 변형 / 278쪽 / 값 5,500원 허운화상 법어 / 대성 옮김

오직 당신에게만 권하는 붓다의 지혜 이야기
현대인을 위한 붓다의 가르침
2,600여 년이 지난 21세기에도 흥륭한 나침반으로서 행복의 길을 제시하는 붓다의 가르침
신국판 / 344쪽 / 값 9,000원 안양규 지음

그대의 날개를 자유롭게 펼쳐라!
황금빛 봉황이
바닷물이 밀려간 뒤 아름다운 조약돌이 드러나듯 쾌활 청량한 선어(禪語)들은 인위적인 문자냄새를 찾아볼 수 없다. 책에 담긴 실제의 묘용을 오득(悟得)해 모두 법계의 주인이 되길 바란다.
– 불국사 승가대학장 덕민 스님
신국판 / 358쪽 / 값 10,000원 수불 지음

조계종 수행의 길
간 화 선
이론보다 실천, 방편보다 법을 위주로 하여 선의 본지를 제시한다.
A5 / 436쪽 / 값 15,000원 불학연구소

염불삼매 속에서 나는 이와 같이 보고 들었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문수의 법왕자로서 부처님의 법을 전하노니 선근공덕이 많은 선남자 선여인들은 이 책을 의심하지 말고 믿을지니라
A5 / 300쪽 / 값 15,000원 자재만현

www.yosiamun.com
여시아문 이메일 : yosiamun@buddhapia.com 전화주문 : 02)2004-8219, 737-0695 팩스주문 : 02)737-0696